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남이 뜻대로 순종해주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8월 2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68호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당선인 설정 스님이 10월 12일 당선 직후 선거대책위원회 스님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화합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원융무애 화합으로 새 한국불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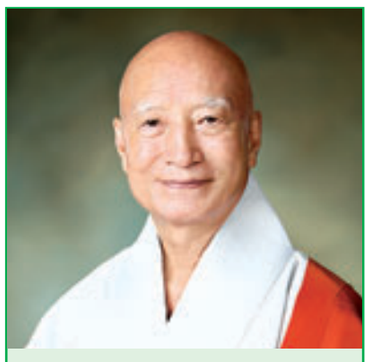
설정 스님,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당선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선거서 기호1번 前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 당선됐다. 스님은 319명의 선거인단 투표서 총 234표를 획득해 82표를 얻은 기호2번 수불 스님을 압도적인 표차로 제쳤다. 무효표는 3표.

설정 스님은 10월 12일 오후 3시 개표가 이뤄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중앙선관위의 당선 공고에 따라 당선증을 전달받고, 조계사 대웅전서 부처님전에 고불을 올렸다. 이후 조계종 총무원 1층 로비서 당선인 기자회견을 통해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종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뜻을 거울삼아 신심과 원력을 다해 종단 발전에 쉼 없이 진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설정 스님은 지난 8년간 총무원장 소임을 맡은 자승 스님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사회 곳곳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시며 종단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했고, 대중공사를 통한 종단 쇄신에 박차를 가했으며, 승가복지의 뿌리를 내리는 등 불교와 종단 중흥의 결실과 노고는 실로 크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19표 중 234표 얻어 압승
"종단 발전, 쉼 없이 진력"
당선 직후 의혹 소명 약속
18일 원로회의서 인준 예정
인준 시 31일부터 임기 시작



설정 스님 경력 및 이력

1941 충남 예산 출생
1955 사미계(수덕사 혜원 스님)
1961 구족계(범어사 동산 스님)
제방 선원서 수선안거
2011 대종사 법계 품수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종단개혁회의 법제분과위원장
제8 · 10대 중앙종회의원
제11대 중앙종회의장
제4대 덕숭총림 방장
조계종 원로의원

아울러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같이 지니고, 소견을 같이 나누며,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고, 언제나 남의 뜻을 존중하고 화합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 모두 일불제자로서 원융무애의 화합으로 새로운 한국불교를 열어 나가기를 발원한다"고 덧붙였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설정 스님은 "어떤 방법이든 깔끔하게 소명하겠다. 그게 종단에 도움되는 일"이라며 "문제들을 종도들과 함께 논의해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적폐청산 요구 등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가치로는 '정화정신'을 꼽았다. 설정 스님은 "청정승가와 수행정진을 위한 정화정신을 되살리겠다. 이는 스님이 스님다운 것, 여법한 것을 의미한다"며 "스님들이 진실하고 청정하다면 사부대중이 신의하고 따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종단 문제를 하나하나 종도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선인 기자회견에 이어 설정 스님은 4층 접견실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소임자 스님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서 자승 스님은 "35대 총무원장에 당선되신 걸 축하드린다. 종단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설정 스님은 "8년간 종단을 잘 이끌어주시고 많은 업적을 남기신 데 대해 종도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수고하셨다"고 화답했다.

한편 제35대 총무원장을 인준하는 원로회의는 10월 18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의 총무원장 인준이 확정되면 10월 31일부터 4년간의 임기가 시작된다.

〈관련 기사 A2 · 3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다운 불교' 만들겠습니다

설정 스님 당선소감문

삼보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정례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종정 예하와 원로 대덕 큰스님, 그리고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원만하게 회향되기까지 신심과 정성을 다하신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에게 '총무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종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교단 안팎으로 매우 위중한 시기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권은 협치보다는 분열의 모습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도 지속적 불교개혁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뜻을 거울삼아 저는 신심과 원력을 다해 종단 발전에 쉼 없이 진력할 것입니다. 또한 하심하고 조고각하하며 종도들의 뜻을 살피고 헤아리겠습니다. 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공심으로 일로매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종도 여러분들의 발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다운 불교, 존경받는 불교, 신심나는 불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은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기꺼이 그 길에 나설 것이며, 종도 여러분들과 도반이 되어 함께 걷고자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저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거대책위원회 스님들 이하 모든 스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함께 경쟁했던 수불스님과 혜총스님, 원학스님께도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8년간 안정과 화합을 통해 종단 발전을 이끌어 오신 총무원장 자승스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곳곳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시며 종단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했고, 대중공사를 통한 종단쇄신에 박차를 가했으며, 승가복지의 뿌리를 내리는 등 불교와 종단 중흥의 결실과 노고는 실로 크다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같이 지니고, 소견을 같이 나누며,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고, 언제나 남의 뜻을 존중하고 화합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불제자로서 원융무애의 화합으로 새로운 한국불교를 열어 나가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석탄일 아닌 '부처님오신날'

10월 10일 개정안 의결
조계종 환영논평 발표

내년부터 석가탄신일 명칭이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된다.

정부는 10월 10일 오전 국무회의서 공휴일 석가탄신일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불교계 등에서 석가탄신일 공식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사용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했다"며 "법령 용어를 한글화하는 취지도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개정에 불교계는 즉각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대변인 기획실장 정문 스님 명의로 논평을 내고 "내년부터 공식적인 부처님오신날로 맞이하게 됐다. 종단은 이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현 정부에서 실천적 조치로 진행해줬다. 공식 명칭이 된 부처님오신날 의미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도시공원 전통사찰 불사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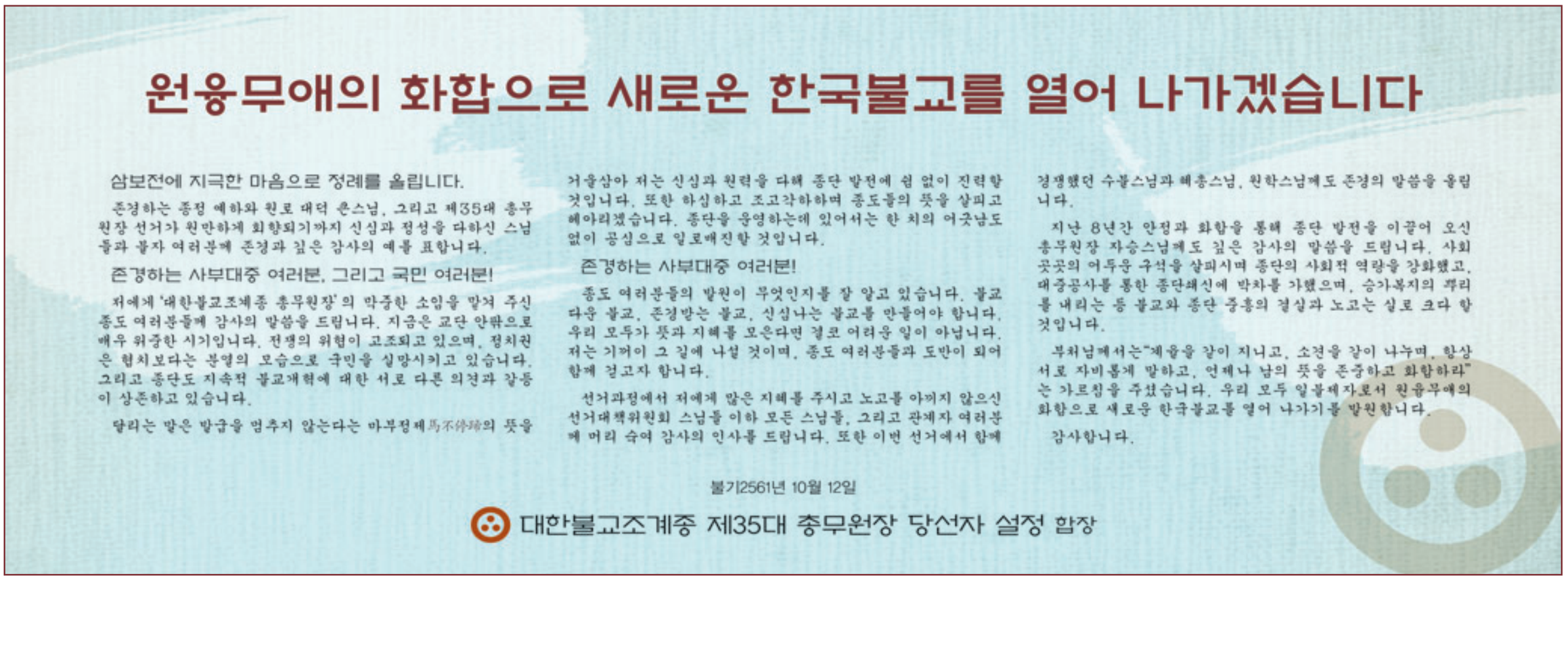
10일 관련 시행령 개정

도시공원 내 소규모 전통사찰 불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조계종은 "그동안 개선 및 정비가 필요했던 소규모 전통사찰의 문제가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고 10월 11일 환영문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10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앞으로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 이내인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조계종은 "개정 전에는 건축물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소규모 전통사찰이 오히려 증축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 종단은 전통사찰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법령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원융무애의 화합으로 새로운 한국불교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삼보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정례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종정 예하와 원로 대덕 큰스님, 그리고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원만하게 회향되기까지 신심과 정성을 다하신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에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종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교단 안팎으로 매우 위중한 시기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권은 협치보다는 분열의 모습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도 지속적 불교개혁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뜻을 거울삼아 저는 신심과 원력을 다해 종단 발전에 쉼 없이 진력할 것입니다. 또한 하심하고 조고각하하며 종도들의 뜻을 살피고 헤아리겠습니다. 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공심으로 일로매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종도 여러분들의 발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다운 불교, 존경받는 불교, 신심나는 불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은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기꺼이 그 길에 나설 것이며, 종도 여러분들과 도반이 되어 함께 걷고자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저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거대책위원회 스님들 이하 모든 스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함께 경쟁했던 수불스님과 혜총스님, 원학스님께도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8년간 안정과 화합을 통해 종단 발전을 이끌어 오신 총무원장 자승스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곳곳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시며 종단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했고, 대중공사를 통한 종단쇄신에 박차를 가했으며, 승가복지의 뿌리를 내리는 등 불교와 종단 중흥의 결실과 노고는 실로 크다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계율을 같이 지니고, 소견을 같이 나누며,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고, 언제나 남의 뜻을 존중하고 화합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불제자로서 원융무애의 화합으로 새로운 한국불교를 열어 나가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1년 10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당선자 설정 합장



慧刀亂麻 혜도난마
正法實現 정법실현

"부조리들 지혜의 칼로 모두 잘라
세상에 바른 법을 실현하라"

본지 지령 1000호 특집에 당시 덕숭총림 방장이던 설정 스님이 내린 휘호다. 감로수 같은 맑고 향기로운 글들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려 세상에 목탁같은 존재가 되라는 큰 가르침이었다.

'신심 · 원력 · 공심' 강조한 올곧은 수행자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 리더십
쉼 없이 수행한 선승이면서
종회의장 등 행정력도 '탁월'

선승은 잠시 좌복을 물리고
불교 발전 위해 거리로 나왔다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당선인 설정 스님은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한 선승의 풍모가 강하다. 스님의 은사는 덕숭총림 수덕사 제3대 방장인 원담 스님이었고, 제자인 자신도 뒤를 이어 방장이 될 정도로 수행력을 총림 대중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종단이 어려울 때면 앞에 나서 수습한 후 돌아보지 않고 걸망을 메고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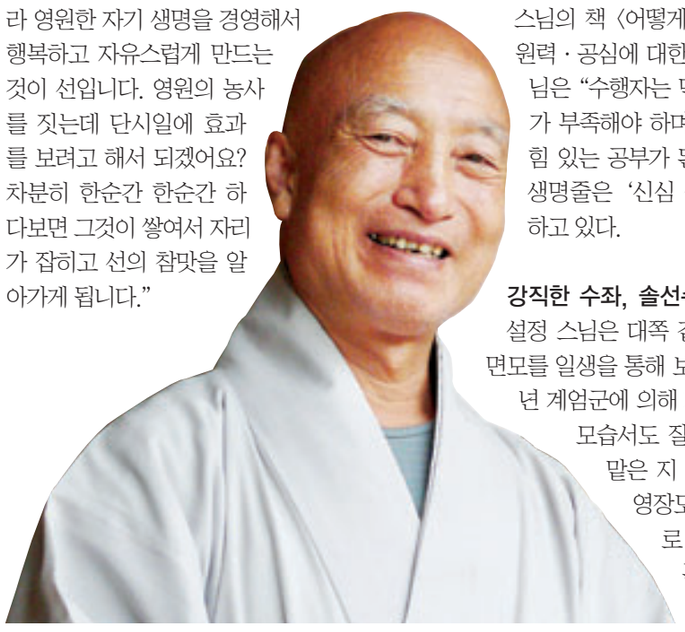
사문의 길에 나서다

설정 스님은 1941년 충남 예산 덕산면서 태어났다. 주역의 대가였던 아버지는 만공 스님에게 계를 받을 정도로 돈독한 불심을 가졌다. 14살에 신심 깊은 아버지의 생신불공을 위해 수덕사에 들렀던 스님은 그대로 사문의 길로 나섰다.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설정 스님은 1955년 수덕사에서 혜원 스님 계사로 사미계를, 1961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강원을 마친 후에는 수덕사 · 봉암사 · 상원사 등 제방선원서 간화선 수행에만 전념했다.

이렇듯 간화선 수행은 설정 스님의 63년 출가 노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다. 2011년 4월 본지 인터뷰 '선지식을 찾아서'에서 설정 스님은 간화선 수행의 접근 방법과 중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있다.

"선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철학은 하루를 경영하고, 사상은 내일을 경영하고, 선은 영원을 경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기 생명을 경영해서 행복하고 자유스럽게 만드는 것이 선입니다. 영원의 농사를 짓는데 단시일에 효과를 보려고 해서 되겠어요? 차분히 한순간 한순간 하다보면 그것이 쌓여서 자리가 잡히고 선의 참맛을 알아가게 됩니다."



'신심 · 원력 · 공심' 스님의 기본

설정 스님의 이번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신심 · 원력 · 공심- 새로운 한국불교, 교구에서 시작됩니다'다. 이 역시 설정 스님의 삶에서 고스란히 묻어난다. 2012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진행된 인터뷰에서 바른 수행자상에 대해 설명하며 '신심 · 원력 · 공심'을 강조했다.

당시 스님은 "스님은 부처님 진리에 대한 신심과 중생제도의 원력, 그리고 공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서 "공심이 결여되면 부정부패가 온다. 신심 · 원력 · 공심을 가지는 스님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의 책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도 신심 · 원력 · 공심에 대한 강조는 나타난다. 설정 스님은 "수행자는 먹을 것, 입을 것, 잠, 3가지가 부족해야 하며 공부와 노동이 함께 해야 힘 있는 공부가 된다"면서 수행자가 지녀할 생명줄은 '신심 · 원력 · 공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직한 수좌, 솔선수범하는 어른

설정 스님은 대쪽 같이 올곧고 강직한 수좌의 면모를 일생을 통해 보였다. 엄혹했던 시절, 1980년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에 대처한 모습서도 잘 드러난다. 수덕사 주지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법난이 일어나 영장도 없이 대전 보안대 지하실로 잡혀간 스님은 사흘 동안 독방서 잠을 자지 않은 채 단식하며 좌선했다. 매일 같이 조서를 쓰라는 강요에도 한 줄도 쓰지 않고 버텼고, 그곳서 있던 일을 나가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요구 역시 단호히 거절했다.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당시 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하며 청와대 불교 지도자 조찬모임을 단박에 거절한 일화도 잘 알려져 있다.

'솔선수범의 리더십' 역시 설정 스님을 설명하는 수사(修辭)다. 2011년 1월 설정 스님과 맏상좌 주경 스님이 함께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경 스님이 밝힌 일화들은 이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언젠가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를 마친 다음날 아침 도량에 걸렸던 등이 모두 걷어져 있어 깜짝 놀랐는데 이는 모두 설정 스님이 직접 거뒀다. 눈 많던 어느 겨울날, 도량의 눈이 모두 치워져 있었다. 참배객들은 모두 "이 절 스님은 참 부지런하다"고 칭찬했다. 이 역시 이른 새벽부터 나와 설정 스님이 눈을 치웠기에 가능했다.

이에 대해 주경 스님은 "스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 아랫사람도 대충할 수 없다"면서 "산중에 어울리는 어른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스님"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깨달음의 과정을 묘사한 심우도의 마지막은 '입전수수(立廛垂手)'다. 깨달음을 얻고 난 후 거리로 돌아가 중생을 제도하는 경지를 의미한다. 이는 불교의 궁극적 뜻이 중생제도에 있음을 상징화한 것이기도 하다.

선승은 잠시 좌복을 물리고, 거리로 나왔다. '신심 · 원력 · 공심'으로 '불교다운 불교'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신성민 기자

의혹 돌파 · 종책 홍보… 숨가빴던 35일

설정 스님 총무원장 당선까지의 기록

"종단이 처한 어려움을 종도들과 어떻게 헤쳐나가고,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교단을 만들어 가는 데 여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8일 수덕사 취송당서 열린 교계 기자간담회. 설정 스님은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밝혔다.

스님은 "뜻있는 사부대중과 더불어 연구하고 계획해 종단 발전을 위한 인생의 마지막 불사를 하는 것이 내 바람"이라고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서울대 졸업 문제에 대해 정면돌파하는 자리기도 했다. 스님은 "학력과 관련해 국민과 불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해 오해가 생긴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학력 논란은 승려로서 저의 불찰이고 부덕"이라고 참회했다.

이후 10월 12일 총무원장 당선까지 35일 동안 설정 스님은 종도들을 만나고 의견과 경책을 들으며 바쁜 일정을 보냈다.

9월 18일 설정 스님은 총무원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호 1번을 배정받았다. 첫 일정은 서울 돈암동 흥천사의 '느티나무어린이집' 방문이었다. 설정 스님은 어린이들을 일일이 안아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줄 것을 당부했다. 흥천사 주지 금곡 스님과 선거대책본부 스님들에게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린이 포교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후보자 자격심사 마친 9월 2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설정 스님을 비롯한 후보들은 종책발표 기자회견 등 선거운동에 본격 들어갔다.

설정 스님은 9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종책설명회 및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행종풍을 진작하고, 시대에 필요한 교육과 포교시스템 확립을 통해 한국불교와 종단의 저력을 열어 보일 것"이라고 밝힌 스님은 10대 정책 기조를 공약으로 내놨다.

10대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한 공약들을 종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정 스님은 24개 교구본사 등을 다니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10일 가량의 연휴가 겹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설정 스님 당선까지 35일 일지

9월 8일 수덕사 취송당서 기자간담회
– "종단 발전 위한 인생 마지막 불사" 출사표

9월 18일 후보자 등록, 기호 1번 배정
– 서울 흥천사 느티나무어린이집서 첫 일정

9월 26일 선거운동 시작, 종책 기자회견
– 10대 종책 기조 등 공약 발표

10월 11일 선거 호소문 발표
– "종도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일 것" 다짐

10월 12일 234표로 총무원장 당선

진짜 어려움은 적폐청산연대와 불교계 인터넷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이었다. 선거대책본부에서 선거운동과 해명 작업을 병행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

선거대책본부 홍보기획단장 정만 스님은 "무작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근거없는 비방과 공격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선거운동이 마무리되는 10월 11일 저녁 6시 설정 스님은 그간의 소회를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스님은 "짧은 기간이지만, 원로 스님과 본사 주지 · 중진 스님들을 비롯한 선거인의 소중한 고견과 경책을 마음으로 듣고 새겼다"며 "저는 앞으로 조고각하하고 하심하며, 종도들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10월 12일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일. 설정 스님은 234표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9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35일 동안의 노정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신성민 기자



종단 화합·선거제 등 해결 지혜 필요

제35대 총무원장 당선인 설정 스님 과제는?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당선인으로 前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선출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일 뿐 앞으로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으로서 헤쳐 나가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선거기간 동안 후보들을 향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터져 나온 종도들 간의 파열음. 오랫동안 한쪽에서는 적폐청산을 부르짖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로 인한 종단 분열을 우려했다.

설정 스님은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학력 논란과 재산 및 은처자 의혹에 대해 종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물론 이미 "유전자검사까지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에 이에 관한 논란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전자검사 또는 소송결과 외에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건 전후관계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분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후보 기자회견서 종단화합을 위해 "대중과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힌 설정 스님은 누차 '정화정신'을 강조했다. 스님이 스님답고 여법할 때 대중으로부터 신망 받는 교단이 된다고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설정 스님은 수행가풍과 승풍 진작을 통한 종단의 본래면목 회복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부적인 계획은 알리지 않았지만 총림과 본사단위 수행결사를 바탕으로 수행가풍을 되살린다는 복안이다. 대중이 70년 전 봉암사 결사와 불교정화운동처럼 역사에 획을 긋는 수행결사는 바라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대안이 도출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총무원장 선출제도 향방은

앞서 설정 스님은 조계종 선거법을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상대를 이기려는 승부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는 파화합, 장로정신 붕괴, 삼보정재 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제를 비판하면서도 선거제를 통해 수장으로 선출된 만큼 설정 스님은 총무원장 선출제도 변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거 종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를 개선하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기에 이번만큼은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선거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직선제나 준직선제 등 투표를 통한 선출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중앙종회 활동을 통해 종도 81%가 직선제를 희망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관계로 설정 스님이 이를 저버린 채 선출제도에 변화를 주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종회는 직선제와 염화미소법 등 다양한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논의하는 중이다. 여기에 대중공사에 기초한 종단 쇄신을 예고한 설정 스님이 대중을 아우를 수 있는 선출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모색할지 기대를 모은다.

선학원 관계개선 가능할까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는 2014년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법인관리법)' 제정 이후 급격하게 악화됐다. 조계종은 "법인의 종단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고하고, 전법교화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 법을 제정했지만 법인정관 변경에 종단 승인이 필요하고, 선학원의 경우 이사 4분의1 이상을 총무원장 복수추천으로 이사회서 선출하게 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게다가 미등록법인의 경우 각종 권리제한을 받게 돼 선학원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법"이라며 정관에서 '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 '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사실상 탈종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조계종은 선학원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화에 나섰으나 별 소득 없이 현재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설정 스님은 1981년 수덕사 주지 시절,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혜사를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제7교구본사수덕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선학원은 2015년 수덕사를 상대로 정혜사 소유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진행돼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이 문제에서 설정 스님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에 설정 스님은 "강경책으로 선학원을 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선학원은 불교정화가 시작된 순수한 곳이기에 한 덩어리가 돼야 한다"면서 "화합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생애주기별 승려복지 기대

종단차원의 승려복지시스템 구축은 제33·34대 집행부의 가장 큰 성과로 손꼽힌다. 2011년 승려복지법이 중앙종회서 통과되면서 요양비와 입원치료비 등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스님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구족계 수지 후 결계신고를 필한 모든 종단 스님들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승려복지기금을 조성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추세다. 하지만 정작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저조한 편으로 집계돼 인식 개선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떠올랐다.

설정 스님은 이와 관련해 생애주기별 승려복지 모델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4대 중증질환 의료지원 확대와 교구별 노스님 수행관 건립 지원도 눈여겨볼만하다. 치료가 아닌 예방으로 복지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공약에 대중은 호응을 보내지만 이에 따르는 과제는 재정 확충이다. 구체적인 재정 마련 대책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설정 스님은 승보공양운동 확대를 통한 기금 모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설정 스님은 "출가부터 열반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 스님들이 노후에 대한걱정에서 벗어나 수행에만 진력하실 수 있도록 승려복지를 최우선 종책과제로 선정해 안정적인 승가공동체를 구현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0월 12일 35대 총무원장 선거 당선 직후 설정 스님이 조계사 대웅전서 고불을 올리는 모습.

대중과 충분한 대화·이해 필요

대중공사 기반 둔 쇄신 약속

"선학원 관계도 대화가 먼저"

승려복지 최우선 과제로 선정

설정 스님의 종단 운영 10대 기조

1. 수행가풍과 승풍을 진작해 종단의 본래면목을 회복하겠습니다.
2. 교구의 경쟁력은 곧 한국불교의 경쟁력입니다.
3. 대중공사에 입각한 종단 쇄신 추진하겠습니다.
4. 시대변화에 맞는 종무행정과 재정 안정은 종단 발전의 초석입니다.
5. 불교·전통문화에 대한 획기적인 국가정책 변화로 종단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6. 종단의 백년대계 승려복지시스템을 완성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하겠습니다.
7. 승가교육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승가전문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8.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으로 포교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9. 우리 종단과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계 속에 고취시키겠습니다.
10. 종단의 사회적 역할 확대, 그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새 총무원장에게 바란다

"철저한 수행교육 토대 이루길"

불조의 혜명을 이은 청정한 수행 가풍의 기치로 출범한 정화 종단의 사명을 이어 제2 정화를 실천수행하는 서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현 종단은 위계가 철저히 서야 합니다. 교단사의 전통인 계단법을 우선하여 위계질서를 철저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또 정화종단의 3대 목표인 교육, 역경, 포교 사업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가 성직자로서의 청정한 수행교육으로 철저한 교육체계를 확립하면, 역경과 포교는 자연히 성숙되어 사회복지, 문화, 예술의 사회 정토화가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비구니 권익향상 기대"

어른스님께서 총무원장이 되셨습니다. 종도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른스님의 수행력과 무게감처럼 우리들도 자존감을 갖춰 사회적으로 신망 받는 종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갈등은 하루빨리 정리되고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조계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약으로 세우신 비구니 권익향상은 꼭 이뤄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래 전부터 비구니부 신설 등은 말로만 나왔을 뿐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의지를 갖고 총무원장에 선출되신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껏 공약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일진 스님

"신도 자긍심 회복에 관심을"

저희 신도대중은 신심(信心)·원력(願力)·공심(公心)의 자세로 삼보 외호에 앞장서 스님께서 그리신 화엄의 세계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질시와 반목을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어 종단과 종도들이 하나가 되어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과 더불어 조계종 신도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신도들이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스님의 많은 관심과 종책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총무원장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이 더욱 안정되고 화합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성평등한 종단 운영 부탁"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법률 제·개정, 국가 중장기여성정책계획의 수립·이행, 각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 국회여성위원회 설치, 젠더폭력 관련 법제정 등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법과 장치들을 구축하였습니다.

불교계도 부처님법에 기반한 절대적인 삶의 가치를 제시하면서도 기존의 관습이나 전통적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평등,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중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성평등한 종단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

"사부대중 역량 총동원해야"

선교를 겸비한 설정 스님이 이끌어 갈 제35대 총무원은 내외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제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종단 내적으로는 출가자의 위의와 수행력을 바탕으로 정신적 지도력을 확립해야 하고, 외적으로는 불자 감소에 대응하여 전법교화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종단이 처한 현실은 종단 내부에서 자초한 바가 매우 큽니다. 때문에 종단의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전법교화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단 사부대중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은 10월 8일 안양본원서 4000여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주지 혜원 스님 49재를 봉행했다.

“스님의 뜨거운 원력 언제나 빛날 것”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49재 10월 8일 봉행

안양본원서 4천여 사부대중 참석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0월 8일 안양본원에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의 49재를 봉행했다. 이날 49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 및 김난희 서울시장 부인, 서강호 안양시 부시장, 최대호 전 안양시장, 김선화 안양시의원 등 재가내빈, 안양본원 및 부산 · 광명 등 전국지원 신도 등 4000여 명이 동참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포교원에서는 한국불교 기로에서 낡은 신행 형식과 포교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한마음선원에서 전개하는 ‘주인공으로 살자’는 뜻과 다르지 않다. 내 자신이 주인공임을 믿고 이웃과 더불어 공생하며 살자는 것”이라며 “비우고 나누며 한마음 불국정토를 이루는 것은 혜원 스님이 평소 강조한 ‘생활 속에서 한마음을 실천하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49재에서는 혜원 스님에 대한 참석자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혜원 스님은 대행 스님을 모시고 수행을 여실히 하시고, 불사 현장에서 하나하나 맑은 마음으로 낱낱이 챙겼다. 특히 지혜로 사제들과 신도들을 보듬었다. 항상 노함이 없으셨던 스님은 공심으로 사신 분”이라고 혜원 스님과의 인연을 회고했다.

노덕현 기자

韓 · 中 · 日 밀교의식 한 자리서 만난다

진각종, 26~27일 창종 70주년 밀교의식 시연회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이 창종 70주년을 맞아 창종정신 계승과 밀교의식 대중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진각종은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월곡동 진각문화전승원 대강에서 ‘창종 70주년 학술대회 및 밀교의식 시연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밀교의식을 만날 수 있는 27일 ‘밀교의식의 전통과 전개양상’ 주제의 시연회 행사다.

시연회에서는 법경 정사의 ‘진각종 불사의식의 내용과 의미’ 발제에 이은 진각종 시연팀의 불사의식을 비롯해 △허범일 교수의 ‘범자진언의 원류와 활용’ 주제발표 △시즈카 고옌 일본 고야산대학 명예교수 외 1명의 ‘범자진언의 세계’ 시연 △잠양 카이쵸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교수의 ‘십일면천수천안관음수지법’ 발표와 시연 △가토 고야산 금강봉사 법회과장의 ‘진언밀교 고야산 성명의 역사’ 발표와 시연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진각종 창종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주제로 26일 열리는 학술대회는 진각종이 현대 한국사회에서 나아갈 역할들을 모색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효명 정사의 ‘진각종 창종정신의 현대적 적용’ △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의 ‘현대불교에서 진각종의 의의와 역할’ △김경집 진각대 교수의 ‘응화성전의 교의적 특색’ △김치온 진각대 교수의 ‘이참(理懺)과 마음공부에 대한 고찰’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1045일 도난 聖寶 환수 모든 것을 담다

조계종 문화부,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 백서〉 발간

2014년 5월 26일, 한 경매회사에서 불교미술을 주제로 경매가 열린다는 소식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로 접수된다. 모니터링 결과 한 불상이 2004년 도난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후 경매 도록을 확인한 결과 이밖에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대전사 신중도, 영은사 영산회상도 등 3점의 도난 성보도 발견됐다.

이후 조계종 문화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문화재전담팀,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와 합동으로 5월 29일 옥션 프리뷰 현장으로 출동해 장물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확인된 불상 1점과 불화 3점을 불교중앙박물관에 임시보관했다. 이것이 3년여의 도난 성보 환수 사업의 시작이었다.

2014년 5월 26일 시작된 조계종 문화부와 도난불교문화재피해사찰협의회의 1045일 간의 고군분투 여정이 담긴 백서가 발간된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정현)와 도난불교문화재피해사찰협의회(회장 지거)는 10월 중순 중으로 2014년 5월 26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도난 성보 환수 경과 등이 망라된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백서〉를 발간한다.

백서에는 경매회사에서 도난문화재가 확인된 후 관계기관들의 공조와 피해 사찰들과의 협력을 통해 31건 48점의 성보를 찾고, ‘다시 찾은 성보 이운고불식’을 열기까지 1045일 간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백서는 크게 △도난문화재 발견에서 회수까지, 성과와 과제 △1045일의 기록 △도난불교문화재 31건 48점 개관(불교조각 · 불교회화 · 불교공예) △관련 자료 등 4부분으로 구성된다.

개괄에 해당하는 ‘도난문화재 발견에서 회수까지, 성과와 과제’에서는 조계종 문화국장 용주 스님이 소논문이 수록됐다. 스님의 논문에 그간의 성보 환수 시작과 도난불교문화재피해사찰협의회 창립, 문화재청 · 경찰청과의 공조, 도난문화재 은닉 사범 검거 및 처벌 등의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선의취득 조항으로 장물 취득 부분이 죄를 인정받지 못한 것과 사건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주 스님은 “다수의 문화재 장물 유통은, 이러한 선의취득 조항을 일부 거래자가 악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면서 “예방을 위해서는 선의취득 배제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거나, 아니라면 거래 시에 취득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17년 3년 간 기록 망라
31건 48점 성보 환수 과정부터
문화재 해설 · 문서자료도 담겨
백서 오는 10월 중순 발간 예정

‘1045일 간의 기록’ 챕터에는 성보 환수 과정에 대한 사진과 간략한 설명들이 시기별로 정리돼 있다. 문화재 개관 챕터서는 31건 48점의 각 성보별 특징과 해설들이 수록됐다. 관련 자료에는 보도자료부터 유물공개전시회 행사 도면 · 콘티 · 법적 대응 자료와 일지까지 모두 담겼다.

이번 백서 발간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장 정현 스님은 “3년 이상이 소요된 도난불교문화재 환수 사업은 말 그대로 전례가 없었던 사업”이라며 “그런 만큼 회수를 성료하기까지는 지난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 이 과정을 면밀히 기록해 남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백서가 훗날 발생할지도 모를 도난문화재 회수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면서 “종단은 앞으로도 모든 성보가 제자리에서 종교적 가치를 올곧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법 포교 대상 파악, 인력양성 시급”

태고종 중흥 신호탄
전법 포교 세미나 눈길

제26대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종단 중흥을 기치로 내건 태고종이 ‘전법과 포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총동문회(회장 탄해)는 10월 1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한국불교태고종의 전법과 포교 활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백원기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의 사회로 △심준보 동국대 교수의 ‘불이성 법륜사와 현대포교’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의 ‘정보화 사회와 불교의 현대적 포교방법론’ △중앙승가강원총동문회 교육위원장 성철 스님의 ‘덕암전득 스님의 생애와 사상’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가 ‘정보사회 전개와 불교의 현대적 포교전략’을 주제로 태고종의 포교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수호 교수는 “2010년 이후 심화된 불교인구 감소현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포교 대상인 불교신자와 불교를 접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욕구파악이 안 된 점이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태고종 스님들이 전법포교를 통한 종단 중흥을 서원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어 “태고종은 포교 대상이 어떤 종교적 개인적 욕구를 갖고 있는지, 인구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첫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보통신의 발달을 이용해 종단 유무형 자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활용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 정보통신 분야 변화에 맞춰 인력을 양성하고 포교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준보 금강대 교수는 ‘법륜사와 현대포교’를 주제로 “1920년대 유점사 경성포교원으로 시작한 불이성 법륜사는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포교도량이었다. 이는 현시점에서 태고종 포교의 지향점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말을 한 태고종 종회의장 설운 스님은 “태고종은 불자수 감소 국면에서 새로운 중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동안 위상 하락의 책임은 승단 모두에게 있다. 쇄신의 각오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승가교육 자기주도 학습으로 변화해야”

해인승가대학장 무애 스님 해인총림 50주년 세미나서

불교의 승가교육은 기존의 도제식 교육을 탈피해 토론 등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인사 승가대학장 무애 스님은 10월 10일 경내 보경당에서 열린 해인총림 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무애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의 회고와 전망’에서 해인사 승가대학의 역사와 교육적 담론, 향후 전망 등을 살폈다. 스님은 종래의 승가교육이 학인이 교육의 대상자가 돼 객체화 됐음을 지적하고 이를 탈피해 현대식 토론 수업으로 진화할 것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무애 스님은 “훈고학적 강사의 일방적 교육은 5%만 효과가 있으나 일반 토록 교육은 50%, 이스라엘 하브루타식 토론 교육은 80%에 육박하는 학습교과를 나타냈다”면서 “승가교육도 학인이 주인이 되고 교수는 질문을 통해 문제를 야기하고 스스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8 교구 본사 직 지 사

조 실 영허 녹원
회 주 열산 혜창
주 지 웅산 법등

부 주 지 현종 천불선원장 정진 박물관장 도신
교무국장 혜창 병 법 보천 재무국장 혜철
사회국장 덕현 호법국장 월담 연수국장 민성
도 감 도순 신도국장 묘각

사 부 대 중 일 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종무소 : 054)429-1700 FAX : 054)436-3174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가을엔 YOLO 오세요!"

불교문화사업단, 가을 주간 '2017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최대 10일의 '역대급' 황금연휴였다고 하지만 어쩐지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다. '놀멍 쉬멍 꼬닥꼬닥'(놀며 쉬며 천천히) 쉴 만큼 쉬었는데도 회사와 학교로 향하는 몸은 무겁기 그지없다. '아~ 또 놀고 싶다' '계속 놀고 싶다'란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렇다면 한탄만 하지 말고 가을을 즐기러 나서자. 전 국민이 'YOLO'(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번뿐)를 외치는 요즘이다. 8년 후에나 돌아온다는 황금연휴 기다리다 지치지 말고 당장 이번 주말이라도 떠나보자. 연휴 후유증에 깊이 빠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할 가을 산사 템플스테이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2017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를 10월 21일~11월 5일 실시한다. 가을 여행 주간 1박2일 휴식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행복만원 템플스테이'에는 전국 80여 개 사찰이 참여, 완연한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가는 내 · 외국인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체험거리와 쉼을 다채롭게 제공해 '혼여족'(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만하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참여인원이 지난 봄 여행주간의 2배인 1만 명으로 늘었지만, 빠르게 마감되는 인기 프로그램이니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신청은 11월 4일 오전 11시까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또는 현장 접수 가능하다. (02)2031-2000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가을 관광주간 템플스테이

*e 외국인 참가 가능 사찰

지역	사찰명	기 간	가능연령	비 고
서울	관문사	10월 21일 ~ 22일 / 10월 26일 ~ 27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국제선센터-e	10월 21일 ~ 22일 / 11월 4일 ~ 5일	성인만 가능	
	금선사-e	10월 21일 ~ 22일 / 10월 27일 ~ 29일 / 11월 3일 ~ 5일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묘각사-e	10월 21일 ~ 22일 / 10월 28일 ~ 29일 / 11월 4일 ~ 5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봉은사-e	11월 4일 ~ 5일	성인만 가능	
	조계사-e	10월 30일 ~ 31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진관사-e	10월 21일 ~ 22일 / 10월 24일 ~ 29일 / 10월 31일 ~ 11월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무료
	화계사	10월 26일 ~ 27일 / 11월 2일 ~ 3일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경기	금강정사	10월 21일 ~ 22일 / 10월 28일 ~ 10월 29일	성인만 가능	
	대광사(성남)	10월 28일 ~29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대원사(가평)	10월 21일 ~ 11월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묘적사	10월 21일 ~ 22일 / 10월 28일 ~ 29일 / 11월 4일 ~ 5일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백련사(가평)	10월 26일 ~ 27일	성인만 가능	
	법륜사	10월 24일 ~ 28 / 10월 31일 ~ 11월 3일 / 11월 4일 ~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무료
	봉선사	10월 21일 ~ 11월 3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봉인사	10월 29일 ~ 31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신륵사	10월 21일 ~ 11월 5일	성인만 가능	
	용문사(양평)	10월 30일 ~ 11월 3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용주사-e	10월 21일 ~ 22일 / 10월 28일~ 29일 / 11월 4일 ~ 5일	내국인 : 초등학생부터 외국인 : 성인만 가능	
	육지장사	10월 21일 ~ 22일 / 10월 26일 ~ 29일 / 11월 2일 ~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중흥사	11월 1일 ~ 2일 / 11월 4일 ~ 5일	성인만 가능	
	흥국사(고양)	11월 4일 ~ 5일	성인만 가능	
인천	연등국제선원	10월 29일 ~ 30일 / 11월 1일 ~ 2일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전등사-e	10월 24일 ~ 25일 / 10월 31일 ~ 11월 1일 / 11월 2일 ~ 3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부산	범어사-e	10월 26일 ~ 27일 / 10월 31일 ~ 11월 1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홍법사	10월 21일 ~ 29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대구	동화사-e	10월 25일 ~ 26일 / 10월 27일 ~ 28일 / 11월 3일 ~ 4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광주	무각사	10월 28일 ~ 29일 / 11월 4일 ~ 5일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증심사	10월 21일 ~ 11월 5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강원	명주사	10월 21일 ~ 22일 / 11월 4일 ~ 5일	성인만 가능	
	백담사	11월 1일 ~ 5일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삼운사	10월 21일 ~ 25일 / 10월 28일 ~ 11월 5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삼화사	10월 23일 ~ 31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월정사-e	11월 4일 ~ 5일	성인만 가능	
충북	구인사-e	11월 4일 ~ 5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반야사	10월 26일 ~ 29일 / 11월 2일 ~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법주사-e	10월 25일 ~ 11월 1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석종사	10월 21일 ~ 22일	성인만 가능	
	영국사	10월 21일 ~ 11월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충남	갑사	10월 22일 ~ 28일 / 10월 29일 ~ 11월 3일	성인만 가능	
	부석사	10월 21일 ~ 22일 / 10월 28일 ~ 29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서광사	10월 21일 ~ 22일 / 10월 28일 ~ 29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수덕사	10월 27일 ~ 28일 / 11월 4일 ~ 5일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영랑사	10월 21일 ~ 22일 / 10월 28일 ~ 29일 / 11월 4일 ~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무료
	지장정사	10월 21일 ~ 11월 5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경북	고운사	10월 28일 ~ 29일 / 11월 4일 ~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골굴사-e	10월 21일 ~ 28일 / 10월 29일 ~ 11월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기림사	10월 21일 ~ 22일 / 10월 27일 ~ 29일 / 11월 3일 ~ 5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보경사	10월 21일 ~ 30일 / 11월 4일 ~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무료
	불국사-e	10월 21일 ~ 11월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심원사(성주)	10월 23일 ~ 11월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무료
	용문사(예천)	10월 21일 ~ 11월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무료
	은해사	10월 21일 ~ 11월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무료
	자비선사	10월 21일 ~ 22일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장육사	10월 21일 ~ 11월 5일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직지사-e	10월 21일 ~ 11월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무료
경남	대광사(창원)	10월 21일 ~ 11월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무료
	문수암	10월 21일 ~ 22일 / 10월 28일 ~ 29일 / 11월 4일 ~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무료
	성주사	10월 21일 ~ 22일 / 10월 24일 ~ 25일 / 10월 30일 ~ 31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쌍계사(하동)	10월 21일 ~ 11월 5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용문사(남해)	10월 27일 ~ 29일 / 11월 2일 ~ 5일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용화사(통영)	10월 21일 ~ 24일 / 10월 25일 ~ 31일 / 11월 1일 ~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통도사	10월 25일 ~ 26일	성인만 가능	
세종	영평사	11월 2일 ~ 3일 / 11월 4일 ~ 5일	성인만 가능	
전북	개암사	10월 21일 ~ 11월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금산사-e	10월 30일 ~ 11월 5일	5세이상부터 가능	
	내소사-e	10월 23일 ~ 27일 / 10월 30일 ~ 11월 3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선운사-e	10월 23일 ~ 27일 / 10월 30일 ~ 11월 3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실상사	10월 26일 ~ 27일 / 10월 28일 ~ 29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전남	대원사(보성)	10월 21일 ~ 22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대흥사(해남)	10월 31일 ~ 11월 1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도갑사	10월 21일 ~ 22일 / 10월 28일 ~ 29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미황사-e	10월 21일 ~ 23일 / 11월 1일 ~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5세 이상 아이)	미취학아동 무료
	백련사(강진)	10월 24일 ~ 25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불갑사	10월 23일 ~ 26일 / 10월 29일 ~ 11월 2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송광사(순천)	10월 31일 ~ 11월 1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무료
	신흥사(완도)	10월 21일 ~ 23일 / 10월 24일 ~ 30일 / 10월 31일 ~ 11월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쌍계사(진도)	11월 1일 ~ 2일	성인만 가능	
	쌍봉사	10월 21일 ~ 11월 5일	성인만 가능	
	연곡사	10월 26일 ~ 28일 / 11월 3일 ~ 4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천은사	10월 21일 ~ 11월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무료
	화엄사-e	10월 23일 ~ 27일 / 10월 30일 ~ 11월 4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무료
	흥국사(여수)	10월 21일 ~ 11월 5일	미취학아동부터 가능(모두)	미취학아동 1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회 주 중화 법타

관 장 송천 돈명

주 지 운곡 돈관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9 팩스 054)335-0293

홈페이지 : www.eunhae-sa.org

불교계 빈곤청소년 돕기 '활발발'

아름다운동행 등
지원 프로그램 이어져

동행 28일 기금모음 걷기대회
여성개발원 가정방문 교육 진행
자운영센터 대안가정 모델로



불교계의 빈곤청소년 돕기 활동이 활발하다. 빈곤 아동 ·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건강, 학습, 행동의 문제와 함께 학업부진, 낮은 자존감 등으로 인해 발달적 문제를 초래하며, 빈곤가정 부모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심리 및 신체적 피로는 자녀와의 올바른 상호작용과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불교계의 이러한 빈곤 아동 ·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심리 상담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생활지원 등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먼저 조계종 대표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10월 28일 '야행프로젝트-우리 함께 걸을까' 행사를 개최한다.

'우리 함께 걸을까' 행사는 야행 프로젝트로 빈곤 속에 성장하고 있는 아동 ·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마련 차원에서 진행된다. 빈곤 환경 속에 있는 아동 · 청소년들의 발달적 · 심리적 위기를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세상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는 취지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가을을 맞이하여, 각박해져가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주변의 이웃들을 돌이켜보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동 · 청소년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깊어지는 가을 저녁 가족들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행사취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번 '우리 함께 걸을까' 걷기행사는 조계사에서 출발하여, 청계천, 살곶이체육공원, 영동대교, 봉은사를 도착하는 코스로 총 18km로, 코스 중간 참가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28일까지 참가자 1,00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 혹은 정기후원 5,000원 이상이다. 참가비는 국내 · 외 아동 ·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접수는 9월 29일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www.dreaminus.org)의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02)737-9595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은 올해 서울시한부모센터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혼모 자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미혼모 가정의 사례를 센터 측에 제공하면 센터가 교육을, 여성개발원의 봉사단이 연계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미혼모 생활설계전문가 과정을 연데 이어 최근 미혼모 자녀 방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산 관해사가 운영하는 자운영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 대안가정의 롤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불교계 첫 대안가정으로 2010년 10월 설립된 이후 6개월간 소년들의 취업교육과 인성교육을 진행해 재범률을 30% 이하 낮추고 있다. 현재 10여 명의 아이들이 머무르며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있다.

조경숙 자운영청소년센터장은 "부모은중경 사경을 비롯해 다양한 불교 사상을 활용해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전북불교네트워크도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도보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순례는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1:1로 멘토링을 설정해 지역 문화유산을 순례하며 이들의 교육과 사회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예슬 서울시 한부모센터 팀장은 "사회 발달에 따라 다양한 가정 형태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빈곤 · 한부모 상황 등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다.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의 길 '창업' 생각한다면 서울형MC가 해법!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창업사례 ⑥ 김명주 미미쿡 대표



여성들은 결혼 후 임신 · 출산 · 육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종종 있다. 기혼 여성의 근로여건 보장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진 편이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 이에 생겨난 말이 '경력단절여성'이다.

이러한 경력단절여성들이 최근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창업이다. 경제생활은 유지하되 육아와 가족 돌봄을 위한 시간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문제는 창업 자금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교육은 빈번히 실시하지만, 자금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비한 편이다.

이 가운데 서울 노원구에서 동물 사료 제조업체 '미미쿡'을 운영하는 김명주 대표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이하 서울형MC)을 통해 사업 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눈길을 끈다.

김 대표는 경력여성단절이 1인 창업에 뛰어든 대표적 사례로, 창업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형MC를 통해 경영개선 자금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약 16년간 회사 생활을 했지만 잦은 야근과 업무 부담에 육아와 병행하기 힘들어 퇴직을 결정했다고. 반려견 시장의 가능성은 봤지만 자금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도 컸다고 한다.

"초기 자본금은 창업에 투자한 상황이라 운영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제품 제조를 위한 비용, 홍보비 등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이때 서울형MC의 경영개선 자금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저금리,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부담도 적었습니다."

더욱이 김 대표가 시작한 반려견 시장은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로, 기반마련이 더욱 힘들었다. "북부여성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업무공간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반려견 관련 사업은 생소해 수혜를 받기 어려웠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조계종복지재단이 서울형MC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 교육에서 사업 홍보 방법을 익혀 앞으로 '미미쿡'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홍보 방법 교육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미쿡'을 알리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애견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미 살롱펫'이라는 업체와 협력도 계획 중입니다." **박아름 기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이 율 : 고정금리 연 1.8%
대출기간 : 총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자금지원 : 창업자금(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신청절차 : 상담–신용정보조회–서류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현장실사–선정심의–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우리은행 자금지원(대출승인)
신청문의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02)723-5101

광진구 불자 가수왕 뽑는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개관14주년 기념 선발대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노인의날과 개관 14주년을 맞이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주민 가요제 '제7회 광진구 가수왕 선발대회'를 10월 18일 실시한다.

2017 행복나눔 희망광진 한마음대축제 '제7회 광진구 가수왕 선발대회'는 광진구 지역에 연고가 있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다.

대회서는 사전 접수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팀이 노래 경연을 벌이게 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타 지역 전문 심사위원 3명의 종합점수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 4팀을 선정하며, 식전 행사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팀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측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17 행복나눔 희망광진 한마음대축제를 통해 지역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건전한 문화로써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아동 돕기 '눈길'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일일카페 운영 수익으로 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 아동을 돕기 위해 나서 눈길을 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가섭)은 9월 30일 한솔직업체험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내 전문직업프로그램인 '디자인 아카데미'를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바리스타들이 일일카페 운영을 통해 모금한 것이다.

관장 가섭 스님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북한이탈주민의 전문교육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 지역사회에 따듯한 온정을 나누는 당당한 일원으로 거듭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김 모씨는 (성남시 정자동)은 "항상 도움을 받기만 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매우 기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사회복지 발전 이끈 유공자 찾습니다

조계종복지재단, 2017 불교사회복지 유공자 추천 접수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공헌한 실천가와 시설 · 단체를 포상하는 '2017 불교사회복지 유공자'를 추천받는다.

포상 영역은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 시설 및 단체 · 언론 · 사찰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단체운영부문'을 비롯해 실무 활동을 펼친 '사회복지발전공헌부문', '자원봉사활동부문' 총 3개로 구성된다.

접수는 10월 19일까지로, 제출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공자 시상식은 12월 7일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진행된다.

박아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조계종 원로의원 · 회주 성타

관 장 종상 주 지 종우
원 장 덕민 부주지 정문
총 무 종천 교 무 현학
재 무 성심 포 교 성요
호 법 성담 사 서 정빈
신도회장 이영숙

사부대중일동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진현동)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지계공덕 쌓는 순간부터 삶 바뀐다”

불광사 일요법회… 주제: 부처님 십대제자들이 걸어간 길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누구나 자신을 닮은 사람과 자연스레 어울린다. 악인은 악인끼리, 선인은 선인끼리 모이기 마련이다. 부처님에게도 부처님을 닮은 10대 제자가 있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두타제일, 다문제일, 지혜제일, 해공제일, 설법제일, 신통제일, 논의제일, 천안제일, 지계제일, 밀행제일이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10월 1일 서울 불광사 일요법회서 ‘부처님의 십대제자들이 걸어간 길’이라는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모두 복혜양족으로 집착 없고 해탈하신 분들이다. 우리는 지계제일 우바리 존자처럼 계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리=박진형 기자



지홍 스님은… 광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석암 스님을 계사로 1970년 범어사서 사미계, 1975년 쌍계사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2004년 서울 불광사 회주 소임을 맡아 불광사를 대표적인 도심포교도량으로 일궜고, 월간 〈불광〉 발간 등으로 문서포교에도 앞장섰다. 2014년에는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과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제11~16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증일아함경〉 속 십대 제자들

오늘은 부처님의 십대 제자들이 걸어간 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일아함경〉 목우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십대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사밧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그때 사리풋타는 많은 비구들을 데리고 산보를 하거나 담소를 하고 있었다. 마하목갈라나, 마하카사파, 아니룻다, 레바타, 카차야나, 푸루나, 우팔리, 수붓티, 라훌라, 아난다 등도 각각 그 무리들과 함께 산보하거나 담소하고 있었다. 또 데바닷타도 많은 비구들과 함께 있었다. 이를 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사람은 근기와 성정이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과 자주 어울린다. 마치 젖은 젖과 어울리고 소는 소와 어울리고, 똥은 똥과 어울리는 것과 같다.”

사람은 근기와 성격이 비슷한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악인끼리, 경전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경전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말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람끼리 많이 어울립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집니다. 열 명의 수행자들은 각각 개인들의 특징이 달랐습니다. 십대제자는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리풋타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지혜로운 수행자들이니라.” 사리풋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리불입니다. 지혜제일이죠.

“마하목갈라나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신통을 갖춘 수행자들이니라.” 목련존자를 말합니다.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입니다.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을 관하고 부처님께 가서 “내 능력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하고 물으니 부처님께서 “칠월 백중날 모든 스님들이 백중 기도를 들어가서 회향을 할 때, 그때 모든 스님들이 포살을 위해 한 곳에 모인다. 그때 스님들이 3개월간 정진한 법력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영가천도를 하면 너의 어머니가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안거 해제날 목련존자는 모든 스님들이 해제와 포살을 하기 위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자기 부모에게 축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모든 스님들의 법력이 함께 모이면 그 위신력은 지옥을 부숩니다. 그렇게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하카사파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열한 가지 두타행을 실천하는 수행자들이니라.” 마하카사파는 가섭존자를 말합니다. 두타행이라는 것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수행을 하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가는 것입니다.

“아니룻다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천안통을 갖춘 수행자들이니라.” 아나율입니다. 천안통이란 다 보는 것을 말하죠. 요즘은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카메라를 통해 다 알 수 있는데 천안통은 그런 정보통신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율은 맹인입니다. 늘 주변의 도움을 받았는데 법에 대한 간절한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결국은 육안으로 보지 않아도 심안으로 볼 수 있는 천안통을 얻게 됐습니다.

“레바타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선정에 잘 드는 수행자들이니라.” 레바타는 선정제일이었습니다.

“카차야나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의리를 잘 분별하는 수행자들이니라.” 의리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의 의지를 다졌으면 죽어도 같이 죽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푸루나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설법을 잘 하는 수행자들이니라.”

“우팔리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계율을 잘 지키는 수행자들이니라.” 바로 지계제일 우바리존자입니다.

“수붓티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공의 이치를 잘 아는 지혜로운 수행자들이니라.” 수보리입니다. 수보리는 금강경을 설합니다. 금강경이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이죠. 공의 이치를 설하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수보리가 공의 이치에 대해 제일 잘 아니까, 공에 대한 이치를 설할 때는 수보리가 나서서 부처님과 대화하게 됐습니다.

“라훌라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어려운 일을 잘 참는 수행자들이니라.” 라훌라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라훌라의 이름의 의미를 아시나요? 라훌라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려 할 때, 처음에는 부처님의 아버지가 출가를 막았습니다. 대를 이어줄 왕의 후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려면 애를 낳고 가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부처님은 할 수 없이 장가를 가서 애를 하나 낳고 출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고 라훌라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태어난 아들을 보고 ‘저 아들과의 인연은 끊을 수 없다. 이 인연과 끊을 수 없으면 집착을 끊을 수 없고, 애착을 끊을 수 없고, 도를 닦기 쉽지 않다. 저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 그 애착이 더 중첩이 됐다. 내 수행의 앞길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라훌라라고 지었습니다.

“아난다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많이 듣고 한번 들은 것은 잊지 않는 수행자들이니라.”

> 십대제자는 복혜양족으로
> 집착 없고 고통서 해탈해
> 지계제일 우바리 존자처럼
> 우리도 계를 지켜야 한다

〈불설계소재경〉 지계의 중요성

여기까지가 십대 제자입니다. 십대 제자는 복혜양족이라고 복과 지혜를 완전하게 다 갖춘 분들이었습니다. 이미 고통에서 해탈한 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십대 제자 중에서도 우바리존자의 이야기를 해 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합니다. 우바리존자는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계제일이었죠. 수계를 받고 계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계공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불설계소재경〉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삼자귀와 오계와 십선계를 받아 일심으로 정진하여 감히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죠. 거사인데, 삼귀의 계와 오계, 십선계를 받아서 열심히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부처님을 뵈러 가는데 역말을 지나게 되었다. 마침 해가 저물었으므로 하룻밤 머물고자 하였다. 거기에 한 여인이 단정하게 있었는데 그 여인은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의 부인이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의 부인이었던 것이죠. 산 사람의 따듯한 피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귀신이 나찰입니다.

여인은 거사에게 그냥 지나가라고 했으나 남자는 삼귀의와 오계 십선계를 받고 해태하지 않았으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머물겠다고 했다.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은 계의 위엄을 호위하는 신이 그 곁에 있는 것을 보고는 40리 떨어진 곳에서 묵고 돌아오지 않았다.

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항상 호법신장이 따라다니면서 접근경호를 합니다.

다음날 남자가 길을 가는데 해골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는 털이 곤두서고 마음이 두려워 후회하며 물러나 생각했다. ‘내가 본국에 있는 집에 있으면 의식이 매우 쾌적하고 풍부했을 텐데 공연히 부처님이 사위국에 계시다는 말에 감회되어, 아직 기묘한 것은 보지도 못했는데 도리어 해골이 널려 있는 것을 보았으니,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저 여인을 본토로 데리고 돌아가 함께 살면 어떨까, 또한 즐겁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겨서 마음이 확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감동적인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이때부터 어떨까요? 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음심이 동하고 두려움이 도래했습니다. 계를 버린 것이죠.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에서 나오는 인상과 냄새 모두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지키던 호법신장이 모두 떠났습니다. 혈혈단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길을 돌려 다시 역말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마음이 다시 미혹되어 음욕이 생기고 부처님의 삼자귀의 덕과 오계 십선의 마음을 다시 믿지 않으니 천신이 곧 가버리고 다시는 보호하지 않았다. 귀신이 돌아오자 여인은 남자를 항아리 안에 숨겨주었다. 귀신이 사람의 냄새를 맡고 아내에게 고기를 달라고 했다. 여인은 어젯밤에 왜 오지 않았냐고 묻자, 귀신은 부처님의 제자가 있어 천신이 나를 쫓아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인은 부처님 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귀신은 내가 감히 말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여인이 계를 설하여 주면 고기를 주겠다고 하며 재촉하자, 먹고 싶은 욕망을 그칠 수 없어 삼자귀와 오중계를 설했다. 귀신이 처음 하나의 계를 설할 때 아내가 문득 받았으니, 다섯가지 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입으로 외웠다. 남자도 항아리 안에서 따라서 받았다. 이때 하늘의 제석천왕이 두 사람이 마음으로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한 것을 알고, 곧 선신 50명을 뽑아 두 사람을 옹호하니 귀신이 마침내 달아나 버렸다.

계를 받아 지내면 선신이 지켜준다는 이야기로 〈불설계소재경〉에 나옵니다. 선신이 와서 귀신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계를 받는 즉시 우리 마음속에 악을 물리치는 힘이 생긴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계를 통해 죽을 상황에서 살아납니다. 귀신의 부인도 계를 통해 귀신에게서 벗어나고 인간으로 사는 계기가 됐습니다. 계를 지키면 그 즉시 지계공덕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법을 어기면 바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생을 하면 살생에 대한 처벌도 사실은 그 즉시 받습니다. 음행을 하면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그 즉시 변화가 생기고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계를 지키면 내 삶이 그 즉시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에 따라 우리 삶에 공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 속에 계율의 지계공덕과 수계공덕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十萬佛’ 상존하는 계곡 속 숨겨진 사원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⑲ 황하의 길목과 병령사 석굴



벽령사 석굴로 가기 위해서는 유가협을 배를 타고 넘어야 한다. 주위 경관이 절경이다.

하서주랑(河西走廊). 황하의 서쪽으로 이어진 협곡. 서역에서 출발하여 당나라의 장안(현재 서안)으로 가는 길, 협곡과 같은 좁은 길목에 황하가 지나간다. ‘물 반, 흙 반’이라는 탁류가 흘러간다. 고대 동서문화를 연결해 주던 길, 바로 실크로드의 중간 거점도시 난주(蘭州)이다. 이 도시는 황하를 끼고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S자로 돌아가는 황하의 꼬리부분에 위치한 도시 난주. 이곳 황하에 거대한 물레방아가 돌고, 또 강을 건너는 양가죽 보트도 있다. 양의 머리와 다리 그리고 속의 내용물을 모두 떼어내고 풍선처럼 만든 것, 이들 열댓 마리를 이어 뗏목 같은 모습으로 만든 배이다. 지금은 관광객용으로 강가에 세워놓았다. 원시성의 길, 거기에 ‘깨달음의 길’이 있다.

병령사(炳靈寺) 석굴 가는 길. 고만고만한 산능선, 그렇다고 우거진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황토고원을 끼고 달리는 길. 황토는 빗물에 휩쓸려 강으로 가고, 강은 흙탕물을 만들고, 그래서 황하는 맑지 않다. 중국은 흙의 문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리장성도 그렇고, 진시황 무덤의 병마용도 그렇고, 무엇보다 탑도 벽돌로 세운 전탑의 나라이다.

한국의 돌과 일본의 나무에 비하여 중국은 확실히 흙의 문화라는 특징을 들 수 있다. 난주지역을 여행하다보면 흙더미를 인상 깊게 볼 수 있다. 민둥산의 흙은 빗물에 쓸려 탁류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병령사 가는 길은 호수를 가로 질러가야 한다. 거대한 인공호수의 선착장에 내려 쾌속선을 타야 한다. 바로 유가협 댐 때문에 의외의 ‘뱃놀이’도 해야 한다. 50km 정도 선유(船遊)를 마무리 할 때, 호수를 감싸고 있는 병풍, 절경은 감탄사를 유감없이 쏟아내게 한다. 호수의 수면에 비친 바위산의 자유분방한 모습은 절경 그 자체이다. 배에서 내려 계곡 안으로 들어서면, 정말 놀라운 바위산이 기다리고 있다. 높낮이나 형태가 제각각인 바위산은 바로 기암괴석의 집적이다. 하늘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바위 작품을 만들었다. 그 바위에 사람은 붓다의 세계를 만들었다. 바로 병령사 석굴이다.

병령사는 티베트 언어로 ‘십만불’이라는 뜻이다. 만불이든 십만불이든 불국토를 의미한다. 숨겨진 계곡에 석굴사원을 경영했다는 사실. 비록 이 지역이 실크로드의 중요한 길목이라 해도 이렇듯 숨어 있을 수 있을까. 그만큼 수행을 위해서 최고의 자리였는지 모른다.

병령사는 1951년 10월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숨어 있던 존재가 세상으로 나와 절경과 함께 대중의 발길을 이끌기 시작했다. 석굴은 절벽 위 10m 내지 30m 높이에 남북으로 길게 190m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현지에서 배부하는 안내문에 의하면, 세 분야로 분포된 석굴은 216군데로 조상(造像) 8백여 점(일반 책자의 기록은 석조상 694구, 니소(泥塑) 82구) 그리고 석굴 안의 벽화 면적은 1천 평방미터를 이루고 있다.

개창시기는 서진시대 즉 4~5세기로 본다. 1962년 제169굴에서 ‘건흥(建弘) 원년(420년)’이라는 기록을 발견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병령사 제169굴은 중국 석굴 가운데 최고로 오래된 석굴이라는 의미이다. 최고(最古) 석굴이어서 그럴까, 제169굴은 인공 조성이 아니고 천연동굴에 격식을 따지지 않고 자유스럽게 조성했다.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시설물을 추가했다는 의미이다.

석굴의 시대적 분포는 북조시대의 석굴은 1/3이고, 당 시대의 석굴은 2/3 이상이다. 당나라 이후에 더욱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병령사 석굴은 무슨 이유로 이렇듯 각광을 받았을까. 무엇보다 이 지역은 실크로드의 길목이라는 점, 게다가 지역의 통치자들은 모두 불교신자였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역경승이 머물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 때 병령사는 하나의 거점이었다. 오늘의 병령사는 쇠락하여 좀 썰렁하기는 하다. 조각도 투박하여 세련미와 거리가 있고, 게다가 색채까지 퇴색하여 화사하지 않다. 세월의 흔적은 석굴을 빈곤스럽게 만들었다.

돈황 막고굴은 석굴 자체가 깊어 벽화 보존 등에 도움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병령사는 석굴 자체의 공간이 좁다. 내부가 쉽게 노출되는 구조라면 세월의 상처를 쉽게 입을 수 있다. 병령사 벽화 가운데 특이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한마디로 불보살상은 1:6.5~7이나 공양자상은 1:4.5~5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불보살상은 7등신이나, 공양자상은 키가 작은 5등신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이런 특성을 만들었을까. 어쩌면 불보살은 서역 형식을 따른 것이라면, 공양자상은 전통적 대륙형식을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병령사 석굴의 중심은 제171굴의 대불이다. 당나라 803년에 만들었고, 높이 27m의 대작이다. 대작이어서 그럴까, 친근미와 다소 거리가 있다. 깎아내린 듯 판판한 단애(斷崖) 한 가운데 불상 형태대로 윤곽선을 파고들어 여래좌상을 조성했다.



벽령사 석굴의 모습. 제171굴에 조성된 대불의 모습이 먼저 눈에 띈다. 당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27m 높이의 대작이다.

유가협 넘어야 만나는 석굴 사원

실크로드 길목 역경승 거처 활용

216곳 석굴에 800여 불상 조성

높이 27m 제171굴 여래상 ‘압권’

169굴 6감의 여래삼존상 주목해야

420년 제작… 중국 최초 석굴 조상

상체는 바위를 깎았고, 하체는 흙으로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로 보아 병령사의 대표적 상징 이미지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세련미와 거리가 있어, 특히 돈황의 석굴미술과 비교되어 아쉽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크다고 무조건 최고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중국 석굴사원 답사에서 쉽게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다.

특히 토함산 석굴암과 비교한다면, 더욱 그렇다. 물리적 입장에서만 최고 최대 운운의 자랑은 촌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글쎄, 왜 병령사 대불 앞에서 이런 생각이 더 들까. 어쩌면 이 계곡 앞에 서기까지 아름다운 풍광 즉 호수가의 병풍 형식 바위산과 기기묘묘의 형태에 먼저 익숙해져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석굴을 보자. 제171굴 대불 옆에 169굴이 위치해 있다. 병령사 보물 가운데 보물로 이름 난 석굴이다. 이는 천연석굴을 활용하여 바닥 면적이 반듯하지 않다. 그래도 대형이어서 넓이 약 27m, 깊이 약 9m, 높이 약 15m 정도의 규모이다. 석굴 내부의 조상은 일반적 불교도상학이나 가람배치 방법과 어긋나 있다.

제169굴 안에 천불도, 불전도, 이불병좌상, 석가상, 유마힐상, 아쇼카왕상 등 다양한 상들이 있다. 초기 석굴양식을 염두에 두게 한다. 이들의 시선은 모두 제각각 다르다. 이들 가운데 6감의 여래삼존상은 주목을 요한다. 무량수불상, 대세지보살상, 관세음보살상의 삼존상, 여기에 420년 제작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 불상은 현존하는 중국 최초의 석굴 조상이 된다. 이 불상은 중앙아시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 콧등, 턱 등 얼굴의 중요 부분을 하얗게 칠하는 이른바 하이라이트 기법 즉 오백법(五白法) 혹은 삼백법(三白法)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얼굴 데생에서 힘을 주기 위해, 혹은 그림의 액센트를 주기 위해, 콧등을 하얗게 칠하는 경우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기법이다. 이런 기법을 병령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유마상은 중국의 초기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유마거사는 붓다시대의 재가불자로 유명하다. 병상의 유마를 위해 붓다는 문수보살을 문병 보냈다. 병령사 벽화는 문병 장면을 남겼다. 병상에서 비스듬히 상체를 든 유마와 의자에 앉은 문수, 이들은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불이(不二), 둘이 아니고 하나다. 바로 차별을 경계한 것이다. 유마의 유명한 명언, 그것은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현존 최고(最古)의 유마경 변상도는 제169굴에서 볼 수 있다.

제169굴에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조각상이 있다. 바로 고행상이다. 일찍이 간다라 지역의 산물로 나는 라호르뮤지엄에서 고행상을 음미한 바 있다. 세계조각의 역사에서 단연 최고수준에서 언급되어야 할 걸작 중의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수준이야 비교할 수 없지만 병령사 석굴에서도 고행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높이 53m 정도, 판판한 석벽 위에 높은 부조형식으로 조각했다. 높은 육계와 머리는 하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고, 두 눈은 지긋이 내려뜨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선정인에 들어 있다. 신체는 말라 수척하나 얼굴에 미소가 스며 있다. 크게 보아 간다라 양식과 연결되어 있다. 북위시대 초기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병령사 이외 막고굴 제240굴이나 260굴, 운강석굴 12굴 그리고 몇몇 석굴에서 고행상을 볼 수 있다. 간다라는 물론이고 중국 석굴사원에서도 볼 수 있는 고행상, 왜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을까. 고행을 외면한 미술 현장,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사 부 대 중 일 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0 TEL 031-470-3100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NEW 임해 탑 죽순 식물성 탑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7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2,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폴리페놀은 항산화 능력(활성산소 제거)이
6년근 홍삼보다 65배, 블루베리보다 44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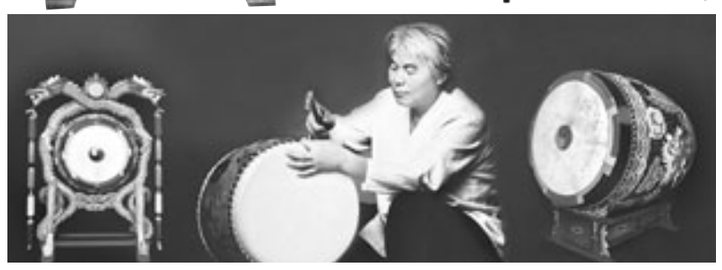
임해 탑 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6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 임해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임해]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참 불교방송" 출연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본 "참불교 방송"은 케이블 방송국인 현대미디어 에서 운영 하는 모바일 케이블 방송인 "에브리 온TV" 어플 을 통해서 채널을 런칭 하여 시험방송을 마치고 샘플링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pc로만 사용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휴대폰(모바일)로 대부분 사용하듯 방송도 케이블 티비로 가정의 TV에서 보던 방식이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방송인 "에브리 온" 방송은 케이블에서 시청하는 대부분의 채널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청 할 수 있고 불교 채널도 기존 2개의 채널에 "참불교 방송"이 추가되어 총 3개의 불교채널이 방송되며 약 260개의 기존 케이블 채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출연 하실 관심 있는 스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좋은 법문과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재의 방송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된 프로그램은 신도들께 유튜브 와 카카오톡 이나 밴드 또는 문자로 동영상 보낼 수 있게 제작 해 드립니다.

방송시청 방법 :

휴대폰 Play 스토어 에서 "에브리 온 TV" 어플 설치 (EVERY ON TV)
방송 분류에서 종교 선택 "참불교 방송" 선택시청
채널 : 300번
ON 에브리온 TV

방송문의: 070-7766-6360(代)
010-4058-7553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 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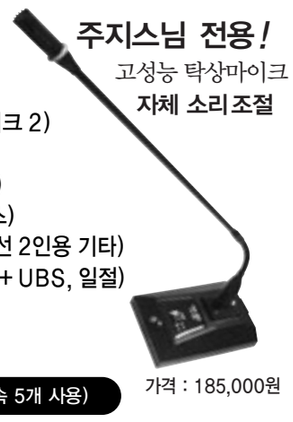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법당 앰프설치비 가격표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 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 1셋)
C형 : 158만원 (B형 + CD 5개용)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스)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기타)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믹싱800 + UBS, 일절)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조절


가격 : 185,000원

무선마이크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떤 회고록

나는 어린 나이에 출가(出家)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중학교 진학은 꿈의 눈물방울 같은 바람이었다. 1960년대 초 당시엔 백양사는 대처승들의 요람이었다. 49재를 밤새워 지내는데 염불하는 스님들이 휴식시간에는 뒷방에서 신도들 몰래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실망과 분노는 마침내 백양사를 떠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여, 통도사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백양사에서 받은 사미계는 힘을 잃고 다시 고된 행자 수업을 하게 된다. 밥 짓는 공양주, 국 끓이는 갱두, 반찬 장만하는 채공에 이르기까지 몇 년을 두고 후원의 길고긴 행자생활이 이어진다.

대학 나오고 허우대 멀쩡한 행자들은 행자 수업 기간과는 상관없이 어른 스님들로부터 선택되어 스님이 되기 때문이다.

나의 얼굴은 검다. 블랙보이가 행자 시절 별명이다. 늦게 철이 들어 해외에 머문 15년 동안에도 미얀마나 태국사람으로 받아들일 만큼 피부가 검고 수상쩍은 이목구비를 지니고 있다.

인도·중국 등서 정진하며 깨달음
이제 행복 누리며 자유로이 산다

통도사 뒷방에는 노승 한 분이 뒤뜰 잡초마냥 별 볼일 없이 살고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몇 번이나 그 광경을 지켜보며 울분을 삭이지 못하는 실망감으로 정신적 방황을 겪게 된다. 통도사의 승가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뜻한바 있어 해인사 선원으로 오게 된다.

해인사에는 고암스님, 성철스님, 지월스님, 자운스님, 영암스님, 일타스님, 혜암스님, 법전스님이 선원의 지도자이자 정진 대중이었다. 고암, 성철, 혜암, 법전스님은 종정을 역임하시게 된다. 일타스님과 지월스님은 한국불교계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수행의 교과서이자 교훈적 전설을 남기신 스승님이다. 동사섭(同事攝)을 몸으로 실천하신 올곧은 참스승이 일타스님이요, 청빈(淸貧)의 실천가이자 하심을 생활화 하신분이 보살의 상징 지월선사이기 때문이다.

해인사 선원에 머물 때 3개월간 후원의 공양주를 자청해 하루 세끼 밥 짓는 일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이른 새벽인데 지월스님은 수채 구멍에서 밥알을 찾아내 깨끗한 물로 헹구고 있었다. 그 헹궈낸 밥알을 냄비에 넣어 끓여 드시는 스님이 당시 해인사 주지 지월선사였다.

당시의 해인사 선원에서는 법거량(法擧量)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는 고암스님, 성철스님, 향곡스님, 서옹스님, 월산스님 등이 함께 하셨고 혜암, 법전, 지월, 일타스님이 소임자로 정진대중과 함께 묻고 답하는 진리의 광장이 열기로 가득하였다. 가끔씩 청담스님도 참석하시는 자리였다.

요즘은 법거량이 사라진 빈터의 적막감이 예전의 큰 스님들을 더욱 그립게 하고 있다. 그 뒤 대한민국의 남자로 군복무를 마치고 불교신문사의 심부름꾼이 된다.

하루는 조계사 뜰에서 벌어지는 진풍경을 보게 된다. 그때가 윤달이라서 생전예수재의 회향일 이었다. 전생(前生)의 빚을 갚고 내생(來生)의 길을 밝히는 행사로 일인당 3천 원을 받고 꽃가마에 신도를 태우고 스님 둘이서 앞뒤로 가마를 매고 줄달음질쳐 대웅전을 한 바퀴 돌아오는 민망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건 대낮에 조계종 총무원의 법당 뜰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동대문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버스요금이 8백 원인데 법당 한 바퀴 꽃가마 타는 요금이 3천 원이라니. 더욱 못마땅한 것은 부모 형제를 마다하고 출가(出家)한 젊은 스님들이 자존심도 팽개치고 3천원 받고 가마 매고 뜀박질 하는 꼴 이라니.

나는 늦게야 철이 든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인도로 날아간다. 미치고 환장할 만큼 한국이 그리워도 피눈물 나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인도에서 3년을 간절함 하나로 머물게 된다. 어느 날 천지개벽 하듯 일체의 의혹이 일시에 풀리는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 착한 벗이 되는 순간을 체험하게 된다.

그 뒤, 네팔과 티베트를 거쳐 중국에서 7년 동안 머물며 중국어도 익히고 중국 고어를 배우며 불교의 경전과 선어록을 살피게 된다. 해외생활 15년도 마무리한다. 누가 무엇을 물어도 속이지 않고 속지 않으며 머뭇거리나 망설이지 않는다. 요즘은 할 일없는 늙은이로 행복과 자유 누리며 법거량을 즐기며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살고 있다.

눈으로 보았다면 다시 귀로 듣자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남송 때 임제종 양기파 스님 가운데 동선사악(東禪思嶽) 선사가 있었다. 생몰연대는 밝혀지지 않고 다만 그가 바로 간화선의 완성자로 알려진 대혜종고(大慧宗 ṗ1089~1163)의 제자였다고 알려졌다. 복주(福州)의 동선사(東禪寺)에 오래 머물었으므로 동선(東禪)이라 불리었으며 몽암(夢菴)이라는 호가 따로 있었다. 동선사는 북송 때 와서 대장경을 조조한 절로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다. 송 휘종(徽宗)이 하사한 이름으로 불린 숭녕만수대장이 바로 동선사판이다.

뇌암정수(雷庵正受:1146~1208)가 지은 〈가태보등록(嘉泰普燈錄)〉의 〈동선몽암장(東禪夢庵章)〉에 참선납자를 격려하는 좋은 법문이 수록되어 있다.

"대지는 드넓게 펼쳐져 이렇게 광활하고, 험한 산은 아득하여 가는 곳마다 그윽하고 깊으니 여기가 납승들의 법을 위해 싸우는 전쟁터니 부처님과 조사의 원수를 갚을 곳이다. 힘을 다하여 제대로 말할지라도 몽둥이 한 방에 한 줄기 흔적이 남고 힘을 다했으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더라도 따귀 한 대에 피멍이 남는다. 만약 눈으로 보았다면 다시 그것을 귀로 들어야 하며 만약 마음으로 알았다면 다시 지혜로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증삼매(智證三昧)라 하고 또한 문수 · 보현과 같은 대인(大人)의 경계라 한다. 만약 이에 대한 뜻을 자세히 다 안다면 삼천대천의 무수한 세계가 하나의 가는 털에 모두 거두어지고, 백억 개의 머리털이 한 개 털공이 되어 구르며 온몸 곳곳에 눈이 생기게 되고 풍경이 없는 곳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大地茫茫 恁 廣濶 窮山莫漕 隨分幽深 爲衲僧法戰之場 報佛祖冤讐之處 盡力道得 一棒一條痕 盡力道不得 一掌一手血 如以眼見 則復耳聞 如以心知 則復智證 是故 謂之智證三昧 亦是文殊普賢大人境界 若也於此共相委悉 大千沙界一毫收 百億毛頭 輥繡毬 直是通身還有眼 不風流處 也風流)

흔히 선불장(選佛場)이라고 하는 수행도량을 몽암은 '법을 위해 싸우는 전쟁터(法戰之場)'라 하고 수행 정진하는 곳을 '불조의 원수를 갚는 곳'이라는 색다른 표현을 하였다. 은혜를 갚는다는 뜻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수행 정진하는 것을 부처가 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라 하여 선불장이라 불렀다. 과거 시험장에 비유해 한 말이다.

규봉종밀(圭蜂宗密:780~841)은 출가 전에 과거에 응시하러 장안으로 길을 떠났다. 도중에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나 동행을 하게 되었다. 스님이 말을 걸었다. "젊은 선비는 어디를 가시오?" "예 스님, 장안으로 과거를 보러 갑니다." 그 말은 들은 스님이 잠시 말이 없다 중얼거리며 말했다.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부처에 합격하는 것만 못할 것이야." 이 말은 들은 규봉이 곧장 스님을 따라 절로가 출가를 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또 『전등록』 〈단하천연전(丹霞天然傳)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벼슬에 뽑히는 게 부처에 뽑히는 것만 하겠는가?(選官何如選佛)"라는 구절이 있다. 방(龐)거사의 게송에도 선불장 이야기가 나온다.

"시방으로부터 와 함께 모여 저마다 무위(無爲)의 도를 배우니 여기가 부처 뽑는 장소라 마음이 비워지면 급제해 돌아간다네."(十方同聚會 箇箇學無爲 此是選佛場 心空及第歸)라고 하였다. 또 『선요(禪要)』의 저자 고봉원묘(高峰原妙:1238~1295)가 개당보설(開堂普說)의 법문에는 "와! 원래 온 세상이 바로 부처를 뽑는 과거장이요, 세상 전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로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무슨 방거사의 선불장 이야기를 하겠는가? 설사 삼승과 십지의 모든 보살일지라도 간이 떨어지고 혼이 놀라며, 달마대사나 부처님도 몸을 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가태보등록』은 『경덕전등록』, 『천성광등록(天聖廣燈錄)』, 『건중정국속등록(建中靖國續燈錄)』 등을 이어 나온 선종사서(禪宗史書)로 먼저 나온 사서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충 증보한 책이다. 이 책의 특징은 출가한 스님들에 관한 것만 수록하지 않고 왕공(王公), 거사, 비구니 등에 관한 것도 수록하여 놓았다. 내용을 구분하여 시중기어(示衆機語), 성군현시(聖君賢臣), 응화성현(應化聖賢), 광어(廣語), 염고(拈古), 송고(頌古), 게찬(偈贊), 잡저(雜著)의 여덟 부분으로 항목을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남을 위하는 일이 자신 위한 일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⑭ 정녕 깨달은 장부란

覺悟幀丈夫品第二十一
悲心極　富 利他已生樂/ 貧窮悲心人 不能貪此樂/ ᴇ 愚愛自在 悲心則背去/ 悲心已背去 眾苦皆來集
愛自在者。處生死中欲分苦與他共ø流生死。悲心者。於世間眾生分寂滅樂共之而去。有愛心者樂於三有。知愛過者則樂涅槃。作利益他者則樂悲心。愛自在者常樂世間。受身為己樂故。悲自在者常樂受身。為樂他故。愛自在者常樂己樂以為自縛。悲心者恒為欲與他樂而為自縛。愛自在者常為己樂無有疲厭。悲心者為與他樂而無疲厭。愚愛小者不愛自己亦不愛他。菩薩亦愛自己。愚癡眾生常為我者。實是為他˚

번역 | 각오녕장부품 제21
자비심이 지극히 풍부하여 남을 이롭게 하면 이미 즐거움이 생기고
자비심에 가난한 이는 탐하여도 여기에 즐거울 수 없다네.
어리고, 어리석고, 애착함으로 멋대로 하면 자비심은 떠나가나니
자비심이 이미 떠나갔으니 뭇 괴로움이 다 모여든다네.
애착이 자재한 이는 생사(生死)에 머물며 타인과 더불어 괴로움을 나누고자 하나 모두 생사에 윤회합니다. 자비심 있는 이는 세상의 중생에게 적멸락(寂滅樂)을 나누며 함께 떠나갑니다. 애착심 있는 이는 삼계(心界)를 즐거워하지만 애착을 벗어난 이는 열반의 즐거움을 압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이는 자비심으로 즐겁고 애착이 자재한 이는 늘 세간을 좋아하는데, 몸 받는 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자비심이 자재한 이도 몸 받는 것이 늘 즐겁지만 타인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애착이 자재한 이는 늘 자신의 즐거움을 좋아하기에 스스로 얽히고, 자비심 있는 이는 늘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얽맵니다. 애착이 자재한 이는 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피로하며, 자비심 있는 이는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려고하기에 피로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애착하는 소인배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지만 보살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어리석은 중생이 늘 자신만을 위하지만 실제로 남을 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해설 | 제21품의 제목인 '각오녕장부(覺悟幀丈夫)'란 '깨달아야 정녕 장부'라는 뜻이다. 본 논서가 제바 보살의 〈대장부론〉인데, 대장부란 바로 깨달은 사람을 뜻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깨달음'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은 조사어록에 넘쳐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는 견성성불(見性成佛) 사상이다. 그러데 제바 보살이 말하는 '각오(覺悟)', 즉 깨달음은 좀 다르다. 깨달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접근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누군가가 인가해 주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스스로 알고 남들도 보아서 알 수 있는 깨달음을 강조한다. 바로, 남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생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괴로움에 얽히는 이들이라고 말하며, 보살은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 번뇌에 얽히는 이라고 말한다. 소인배인 중생은 그 번뇌에 얽힘을 통해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고 남도 사랑할 줄 모르지만, 보살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 바로 자신을 위하는 삶임을 실제로 믿는 이라고 말한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싶다. 진정한 자신의 즐거움이 타인의 즐거움 속에 있었음을 알 리 없었으니 말이다.



비구니 스님 위한 '수행복지공간' 열린다

신흥사 운암 비구니 수행관 개소 준비

비구니 스님을 위한 복지, 수행 그리고 다비로 임종까지 책임지는 수행복지공간이 탄생한다.

조계종 신흥사(주지 성범)는 '신흥사 운암 비구니 수행관'(이하 수행관)을 불사 중이다. 신흥사 운암 수행관은 비구니 스님의 노후 복지를 개선하고 안전한 수행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신흥사는 비구니 노스님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수행관을 설계했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며 전문의료기관 협약으로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및 응급 처치 그리고 수술 등을 제공해 건강을 관리한다. 아울러 방 마다 센서를 부착해 30분 이상 수면 시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리자 호출 기능이 작동해 돌연사를 예방한다.

화장실과 방에는 긴급호출 버튼을 설치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 외 수행을 위한 선원과 학림을 운영하고 다도, 서예, 운동시설 등 문화생활까지 담당하는 최고급 시설을 준비했다.

수행관은 특히 노스님들의 생활 편의뿐 아니라 일반 비구니 스님의 학업과 수행에도 도움을 줘 눈길을 끈다. 신흥사는 수행관에 거주하는 비구니 스님이 하·동안거 결제 기간에 다른 선원에 방부시 해제 보시금 100만원을 지급해 수행을 독려한다. 수행관 내 에서는 법사스님을 초청해 특별 법문 및 경전 공부도 이어간다.

신흥사는 수행관 위치가 도심 속 공원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는 호텔형 현대식 건물 및 시설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주지 성범 스님은 "도반이었던 비구니 스님의 암투병과 열반을 지켜보며 불사를 결심했다"고 불사 동기를 설명했다.

수행·복지 그리고 다비까지
안전 위한 현대 장치 '눈길'
12월 완공, 내년 1월 입주
"비구니 스님 복지 개선되길"


신흥사가 불사 중인 비구니 운암수행관 모델하우스 모습. 올해 12월 완공돼 내년 1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성범 스님은 "수덕사에서 수행하던 중 만난 비구니 스님이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후 갈 곳을 찾아 전전하고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 복지와 환경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히 알았다"며 "이후 비구니 스님의 처소를 마련해 수행에 도움을 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불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 스님은 비구니 스님의 노후 복지 문제 가운데 시급한 것은 다비와 건강관리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큰 사찰에 유나, 주지 혹은 어른 스님들은 다비식으로 삶을 정리하지만 그 외 비구스님과 비구니 스님들은 일반 화장터로 가게 된다. 저희 수행관에서는 별도로 덕유산에 현대식 다비장을 마련해 마지막 열반까지 안전하게 모신다"며 "비구니 스님들의 열악한 복지 상황이 해소되고 이번 불사를 계기로 많은 사찰에서 수행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흥사는 수행관 불사 후 인근에 요양원을 건립해 전문요양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흥사 운암 수행관 완공은 올해 12월이며 입주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지하 2층 지상 4층규모로, 옥상에는 정원과 게이트볼장이 마련된다. 지하에는 공예실, 헬스장 등 운동시설과 식당 및 강당 등 대중생활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방은 총 85실이며, 각 크기는 89.1㎡(일반 81실)와 178.2㎡(특실 4실)가 있다. 입주금은 1억2000만원이며 도반이 함께 방을 이용하면 분할해 입주 보증금을 내도된다. 입주금은 주거 이동시 100% 환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운암원.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성미 기자

승시, 지역 넘어 전 국민의 축제로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효광)는 10월 6~9일 스님들의 옛 산중 장터를 재현한 '제8회 승시축제'를 열었다.〈사진〉

옛 초가집과 기와집 모양으로 꾸며진 부스에서는 다양한 불교용품들이 선보였다. 올해는 특히 사찰에서 생산한 먹거리와 공예품, 생활용품, 전통등과 전통문양, 불화 등 다채로운 불교전통 문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경내를 장엄한 국화와 다양한 조형물들이 볼거리를 제공했다.

주지 효광 스님은 "승시는 그야말로 '진선미'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장이다. 우리 삶을 이상의 세계로 인하는 스님들의 산중장터요, 야단법석의 도량과 다름없다"고 했다.



앞으로 동화사와 대구시는 승시축제를 지역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운문사승가대학 제46차 총동문회

청도 운문사승가대학 제46차 총동문회가 10월 9일 경내 선열당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운문사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 동문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주 명성스님은 "운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불교와 모교발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동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천태종 대성사 창립 50주년 기념법회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김영제)는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10월 1일 경내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봉행했다.〈사진〉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대성사 신도회의 지난 50년은 묘법연화의 밝은 이치로 세상을 이롭게 한 시간이었다"며 "신심과 원력으로 앞으로의 50년도 세상 모든 이들의 이익과 복락을 돕는 자비광명이 온 법계에 두루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후손들의 정신적인 안식처가 될 대성사 대작불사가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국불교조계종 백혈병 환아 돕기

대한국불교조계종 나눔실천승가회는 9월 25일 총본산 불광사에서 백혈병 어린이 돕기 후원금을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 전달했다.〈사진〉 나눔실천승가회는 매년 설·추석명절을 맞아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행을 펼치고 있다.

회장 호산 성보 스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함으로써 부처님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숭고한 불교 사상을 실천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연말에는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 종도 스님들께서 따뜻한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창원 구룡사, 창건 90주년 기념법회

구룡사(주지 신공)가 창건 90주년을 기념하는 창건법회를 10월 21일 오전 10시 구룡사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창건 법회 법사 스님으로 구룡사는 지안 스님을 초청했다. 지안 스님은 한문 불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역경의 선각자였던 운허 스님의 강맥을 잇고 있으며, 통도사 불교전문강원 강주·조계종 고시위원·조계종교육원 역경위원장·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찬불 음악회는 10월 24일 오후 7시 30분 창원 성산 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린다. 무대에는 구룡사 산하 신행단체인 우담바라 합창단 등이 오른다.

구룡사는 "행사를 구룡사 신도 모두가 직접 나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준비한다"며 "합창단과 함께 창건 기념법회에서는 신행단체인 바라밀 선다회가 두리차회를 열어 손님을 맞는다"고 관심을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팔관회, "호국의 기틀은 부처님 戒"

〈계〉

부산불교然, 10월 21~22일 팔관회 개최

부산불교연합회가 팔관회를 개최하고 부처님 계(戒)를 기본으로 삼아 호국을 기원한 불교 전통문화를 널리 알린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0월 21~22일 범어사 경내에서 '2017년 팔관회'를 개최한다. 팔관회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551년에 처음 진행돼 고려시대에서는 연등회와 함께 국가 2대 중요의식 중 하나였다. 과거 팔관회가 진행된 10월과 11월에는 부처님의 팔계를 근본으로 생활하고 호국을 기원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 정신을 알리기 위해 △호국기원법회 △백희가무 △호국영령위령재 △팔관재계수계법회를 재현한다. 시민과 함께 하는 부대행사는 △팔관회 닥종이공예전시 △팔관회 사진전 △팔관회 소원등 △문화체험(탁본·연꽃 만들기·다도) 등이 있다.

행사는 21일 오후 2시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호국기원법회로 시작한다. 호국기원법회는 범어사 개산대재를 함께 기념하며 방장 지유 스님이 법문한다. 참석 사부대중은 호국기도문(인왕반야경 호국품)을 낭독하며 호국불교 정신을 기린다.

법회에는 방장 지유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효원정사 등 주요 승가 내빈 및 서병수 시장,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 범어사 문화광장에서 전통문화공연인 백희가무가 열린다. 백희가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효원관현악단이 협연한다.

22일 일정은 오후 2시 호국영령위령재가 범어사 문화광장에서 열린다. 호국영령위령재는 부산무형문화재 9호 부산영산재보존회가 주관하며 고려팔관회를 근거로 개최된다. 고려시대 팔관회에서는 순국장병의 넋을 기리고 왕생극락을 발원했다. 이어 오후 3시에는 팔관재계수계법회를 재현한다.

부대행사인 팔관회 닥종이공예전시와 팔관회 사진전은 20~22일 3일간 범어사 보제루와 일주문 사이에서 진행되며 문화체험은 21~22일 2일간 범어사 문화광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

한편 팔관회 전통문화가치를 연구하는 '2017년 전통문화보전 학술대회'는 10월 31일 오후3시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개최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팔관회가 지닌 전통문화 가치를 증명하고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 노력중이다. (051)867-0501

하성미 기자



“검단선사는 진감국사 혜소 스님”

고창 선운사 보은염 학술세미나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선운사를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검단선사와 보은염’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9월 30일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1500년의 값진 인연, 선운사의 보은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재영 정읍역사문화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송화섭 전주대 교수가 ‘선운사 검단선사 설화의 문화사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안후상 고창북고 교사가 논평자로 나섰다. 또 김방룡 충남대 교수가 ‘선운사 역사 속에 나타난 검단선사와 보은염의 위상과 의의’에 대해 발표하고 이창구 전북불교대학 학장이 논평자로 나섰다.

학술대회에서 송화섭 교수는 그동안 고창 선운사를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검단선사가 진감국사 혜소 스님(774~850)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송 교수는 그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검단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사찰은 경기도 파주 검단사와 선운사 단 2곳뿐인 점을 들었다. 파주 검단사는 신라 문성왕9년(서기 847년)에 혜소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선운사와 검단사 창건시기가 약 270년 차이나지만 검단선사 명칭은 두 사찰의 창건연대를 밝혀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치원이 기록한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문에 진감선사는 얼굴이 검어 흑두타로 불렸고, 흑두타는 검단으로 불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고창 출신인 조선조 이수광이 저술한 〈지봉유설〉에 ‘속칭 검단선사는 진감선사’라고 기술된 점을 들었다.



고창 선운사는 9월 30일 경내에서 ‘검단선사와 보은염’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검단’ 명칭 선운사 등 2곳뿐
‘진감선사=흑두타=검단’ 불려
“과학적 · 합리적 연구 기대”

송 교수는 “선운사 검단선사 설화는 구전설화가 아닌 실제 검단리, 검당포, 염정 등 진감선사 행적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일 수 있다”며 “검단선사와 선운사의 연관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평에 나선 안후상 교사는 이 같은 송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며 진감국사대공탑비에 선운사를 창건했다는 내용이 없는 점과 검단선사가 소금 굽는 기술을 어디에서 체득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선운사가 백제시대 사찰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방룡 충남대 교수도 ‘선운사 역사 속에 나타난 검단선사 및 보은염의 위상과 의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송 교수의 검단선사가 진감선사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선운산과 포구너머 능가산이 모두 선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동국여지승람〉에 ‘무장 선운사에 침향이 많이 나는데 검단선사가 묻어놓은 것으로 후손에게 남겨 불사에 사용하게 했다’는 서술 등을 근거로 검단선사가 진감선사 혜소 스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송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검단선사가 도적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알려줘 양민으로 교화했다는 보은염 설화에 대해 유교사회가 정착되기 이전시기인 고대 종교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보은염 설화는 단순히 물질적 이익에 대한 보답차원이 아니라 보은의 실천이 반야의 지혜를 알고 스스로 부처되는 길이라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향후 신앙적으로 미륵사상과 지장신앙, 관음신앙이 화엄사상과 계율사상의 유기적 상관성을 통해 선운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평에 나선 이창구 학장은 검단선사가 진감선사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진감국사 혜소 스님의 자료에서 선운사와 관련된 기록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논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혜소 스님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범패의 선구자로 칭송받고 있다는 점에서 범패와 선운사의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검단선사가 곧 혜소 스님이라는 주장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중흥, 6대 실천과제로 잇는다

화엄문도회, 사찰운영 비전 과제 채택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10월 11일 화엄문도회를 열고 향후 화엄사 운영에 비전을 논의했다. 화엄사 문장 명선 스님, 도철 스님, 덕문 스님을 비롯해 50여 스님이 참여한 문도회에서는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복지, 소외된 스님이 우선시 되는 복지, 교구스님 모두와 함께하는 복지’라는 주제로 6대 과제를 채택했다.

6대 과제는 △교구의 원융화합 △본 · 말사 상생 실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후 수행환경 마련 △세대 · 지역별 포교 전략 수립 △불교문화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수행문화 공동체 실현 등이다.

교구 원융화합 · 본말사 상생
수행환경 개선 · 포교 전략 등

교구의 원융화합을 위한 방안으로는 ‘문중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공평한 인재등용 보장’이 추진되며, 원로스님이 참여하는 교구운영위원회 정기 개최와 권한 확대가 제시됐다. 본말사 상생 실현은 교구제정살림 안정화, 도심포교 거점사찰 선정 육성, 교구차원의 말사 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한 수익사업 다각화, 교구 내 주요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 수도권 거점 사찰 육성, 광주전남지역 도심포교 도량 설치, 교구 사무분화 및 행정 사무처 확보, 말사 종무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을 실천한다.

최근 불교계의 가장 큰 화두인 노후 수행환경 마련에 대해서는 화엄사 공동수행처 조성, 교구 대중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교구 전담 의료기관 지정 도입 ·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 연금 지원(원로스님 특별 연금 지급 · 복지법인 설립 · 지급대상자 확대), 다비장 시설 마련(기존 연화장 규모 확충 · 다비장 신설), 복지제정 안정(자체 수익사업 통한 연금 보유고 확대 · 전국단위 재가 후원회 결성) 등이 실천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세대 · 지역별 포교 전략 수립에 대해서는 포교거점인 화엄불교타운 조성, 차별화된 템플스테이 운영, 화엄사경원 설립, 농촌 특화형 포교 전개 등을 실천한다. 불교문화 부흥과 지역사회 발전은 문화재 복원 및 보존 육성,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수행문화 공동체 실현은 도광 · 도천 스님 추모 및 선양사업, 승려수행 교육 교구책임제 실현(선원 지원금 확대 · 강원 및 대학 등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 승가교육연수 프로그램 강화) 등을 진행한다.

6대 과제의 추진에는 정확한 예산 책정과 재원마련이 뒤따른다. 이에 대해 화엄사 측은 “수행연금과 노령연금 1억2천만원, 선원수좌연금 1억8천만원, 학인스님 지원 5800만원, 의료지원 1억원 등 총 3억7천만원 정도가 매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승려복지분담금 부과, 문중차원의 기금 마련, 화엄사 수 · 말사 특별 분담금 배정, 자체수익사업, 재가후원회 결성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18대 전북종무원장에 진성 스님

단독 입후보… 영산작법 발전 등 11개 공약 세워



한국불교태고종 제18대 전북종무원장에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주지 · 사진)이 선출됐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도광)은 10월 12일 종무원청사에서 제57차 전북교구지방종회를 개최하고, 제18대 종무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진성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전북교구 종회부의장 종헌 스님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교구종회는 총 14명의 종회의원 중 9명이 참석했으며 4명의 종회의원이 위임하고 1명이 불참했다.

진성 스님은 당선 인사를 통해 “학연, 지연, 문도연 등 모든 관행을 타파하고 전북 태고종도가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전국 최고 종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성 스님은 선출에 앞서 △자문위원회 구성 △종무기관 확대 △태고불교문화대학 교육기관 운영 △영산작법 전시관 운영 △영산작법 시연회 및 체험실 운영 △영산작법 해외공연 추진 △연 3회 이상 종도사찰 순례 △연 1회 종도 나눔 화합축제 개최 △전북교구 홈페이지 구축 △신도 조직화 활성 △태고진묵장학회 설립 등 11개 공약을 발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웃 겨울나기, 사찰이 책임져요”

진안지역 사찰, 취약계층 연탄 나눔



진안 마이산 탑사, 쌍봉사, 광명사, 고림사 등 진안지역의 사찰들이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자비의 연탄을 전달했다.

진안지역 사찰들은 9월 28일 진안자원봉사센터와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총 51가구에 1만5300장의 연탄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사진〉

이날 연탄 나눔행사에는 탑사 총무국장 정해스님, 광명사 주지 송운 스님,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 등 스님들과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봉사단, 쌍봉사 섬김봉사단 등 불자 20여 명이 릴레이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일찍 추위가 찾아오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환절기를 맞아 난방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각 가구당 300장씩의 연탄이 전달됐다.

마이사 탑사(주지 진성)는 진안읍 양현자 씨 등 저소득 가정과 독거어르신 15가구에 4,5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쌍봉사(주지 보경)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불자들의 힘을 모았다. 쌍봉사 섬김봉사단 불자들은 진안읍 박영순 어르신 등 독거어르신 가정에 총 1,6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고림사(주지 성목)도 이날 연탄나눔 행사에 동참해 1,500장의 연탄을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교도소 교정協, 수용자 위한 송편 나눠

형편 어려운 수용자 자녀 위한 장학금도 전달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재소자들의 추석 명절나기를 위해 송편을 나눴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승천 스님(정읍 일광사 주지)을 비롯해 불교 · 원불교 · 천주교 · 개신교 일반교화분과위원들은 9월 26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구지서 소장에게 1,500명분의 송편을 전달했다.

승천 스님은 “수용자들을 위한 송편 나눔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각 종교분과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자신의 죄과를 깊이 참회하며 고향의 향취와 가족을 생각해 열심히 수용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지서 소장은 “수용자들이 명절에 조상의 은덕을 기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교정위원회 관계자분들께 수용자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원과 임원들은 모범 수용수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임모 씨 등 8명의 수용자에게 각 30만원씩 총 2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전주교도소 수용자 중 뼈저린 자아반성과 솔선수범해서 봉사활동에 나서는 수용자를 선발해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것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중생은 사악한 마음을 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한다. 중생은 그것을 조금도 수치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혹 속에 빠져서 끝없는 고뇌를 받고 있는 것이다.

– 화엄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 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재의식, 상용예불
해설 및 소리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지도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불음원 강주 법일 자운 합장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부처님 모셔가서 기도하실 분
· 불상 : 아미타불,관세음보살,지장보살,소불
· 탱화 :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칠성탱화,산신탱화
· 기타 : 각단촛대,향로,다기,종,북,불전함, 인등,연등,원목수미단,운각,방석, 제기그릇, 각종 공양그릇, 기타일체
보시금 1000만원, 포교원을 인수하셔도 됨
경남 통영시
070-8860-0011

신묘 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법당 철거 조성
정성을 다 해드립니다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인연 맺어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이원해드립니다. 연락바랍니다.
010-2395-3333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58

불교 각종의식 및 재의식
실전교육 학인모집
각단 불공및 재의식에 따른 작법,사물 (목탁, 정근북 송주북, 태징, 요령) 등을 빠른 시일내에 여법하게 집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휴심사 수복원
010-8588-2816

최면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면,우리들의 내면에 빙의(신들림)나 우울증, 어깨통증 환자를 비롯해 수많은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여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 최면 치료는 재발이 없습니다. 새로운 심리치료로 재발이 없습니다.
최면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의 : 3개월
(일주일 3시간 / 목요일 오후 2 ~ 5시)
한국임상최면학회 회장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 교수
052)227-7044. 010-4484-7002
홈페이지 www.hypnosis.or.kr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 재의식, 각 예불, 천수바라, 나비무, 송주북, 정근북, 법고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사찰행사, 회심곡 (화청), 바라춤, 염불, 49구재, 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6246-6672

종도모집
가족처럼 종단을 선도할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경남 합천군 삼가면 금리3길 6-4
불교승가여래종 동경사(도연)
입종서류 : 입종신청서1부/반명함판사진3매 /주민등록증앞뒤복사1부/승려증 발급
010-6562-1577
팩스 055-933-1576

60대 비구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사찰
인연기다립니다
(명리학 능통)
010-8687-8544

부전스님
(비구, 비구니)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421-0730

철학, 경전, 49, 천도, 예수재 배우면서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35-45세, 차후 사찰을 무료로 양도 해줍니다.
010-6536-0120

비구 비구니 사찰
관리 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부산)
010-3518-94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초보자 환영)
55세 이하
041-673-8385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스님과 돌맹이로 만든 방편이 필요한 스님은 전화 하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근교 양산)
010-3647-00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
아침 죽 공양 : 오전 8시
점심 공양 : 정오 12시
저녁 간식(떡,감자) : 오후 5시 30분
010-4206-364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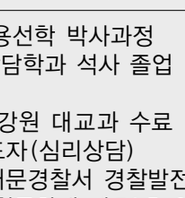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경북지역 천년고찰
기도도량입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559-9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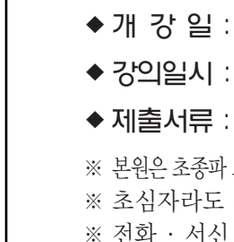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8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진각스님의 명리학교실 · 단기속성과정 프로그램



● 제도권 학문이 된 命理學을 수학하여, 방편으로 삼고자 큰 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제1기 초급입문반과정.
● 한자(漢字)를 몰라도 가능하며 명리상담법, 작명법을 주 1회(월요일)로 하여 짧은 속성단기과정 프로그램을 개설.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0월 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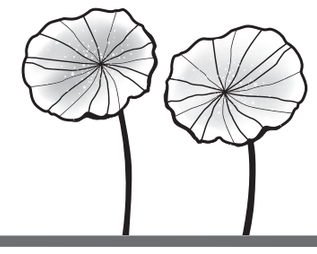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잘 길들인 말처럼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자만과 번뇌를 끊어 버린 사람은
신들까지도 그를 부러워한다.

- 법구경 -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인접
- 토지 137㎡(약41평) 건물 2층 1층 요사 2층 법당
- 방4개, 주방, 공양간, 화장실3개 등 • 가액 : 7억5천만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인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2층 단청 법당. 1층 요사채 • 토지 1,300㎡
- 조용하고 위치 좋음. 뒷편이 산. 운영 잘 됨.
- 양도가액 : 15억 8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군산 사찰을 소개합니다.
- 부지 총면적 : 397.5㎡(120평) • 건물 총면적 : 287㎡(87평)
- 가액 : 5억 5천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 (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도, 수도권
◎ 부지 : 55평 ◎ 면적 : 150평
◎ 인법당 : 4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산밑 청정함 ◎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 ◎ 양도가 : 10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내
- 대지 200평, 1,2층 7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 (가격조정)

010-4561-214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상가 건물 5층건물에 반지하 대형사찰 198평
- 시설A급 현재 법회 하고 있고, 몸만오시면 됨
- 관리비등은 걱정 무!, 부동산 사절!
- 은행융자 9,000 안고, 1억 8천만원!

010-6717-6826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전철에서 5분
- 대지 200평, 법당 20평,
- 산신각 10평, 요사채 40평
- 몽땅 1억 4천(조정가능)

010-8861-1785

인천사찰(급)안내
- 도심 현대식 건물 사찰
- 토지 340㎡, 3층 법당,요사채,공양간
- 대로변사찰. 깨끗하고 웅장한 사찰
- 스님노환으로 양도
- 양도가액 : 13억 5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경기도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지하철역 인접
- 토지 1,296㎡ (약390평)
- 건물 3동 법당 공양간 상담실 등
- 방 많고 돌탑등 조경이 잘되어있고 주차장이 넓음
- 가액 : 보 2000만, 월150만원 시설비 8000만원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토지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한우산 (합천 삼가면 10분거리)
- 절터 570평, 녹차밭(8년생) 480평 = 1050평
- 특징 : 조립식 건물 1동 (주방 1, 방 1, 욕실, 에어콘, 높은 다락)

010-6239-316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소재
- 부지 : 58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단청)
- 요사채 40평, 산신각 5평
- 가액 : 3억3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의 조용한사찰로 기도와 포교지로 좋습니다

- 위치 : 경북 영천시 소재
- 부지 : 200평(종교용지)
- 법당 : 25평(목조)
- 요사채:30평, 기타:산신각,석등
- 가액 : 이억삼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의 조용한사찰로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참좋습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농가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 해발 500, 지방도 국유림 내 남향
- 한적한곳 대지 220평 1번 건물
- 40평 2번 건물, 12평 다용도 적합
- 급매물로 시세의 반값
- 전화문의 환영

010-8899-889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1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주택, 대지 37평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벌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2억 1,500백만원 (대출 7,500백 안고 1억 4천)

010-7188-7723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학동 3길10(2층)
- 총평수 63평, 법당 20평 접견실 10평, 서실 10평
- 큰방 2개, 공양간, 화장실 남 · 여 2개
- 가액 : 보증금 3천 월 5십만원 시설비 약간

010-5342-1459
061-662-5130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가락로길 30(중앙통)
- 3층 건물 중 2층 80평
- 삼존불 탱화 완비
- 관리비 및 난방비 무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보시고 결정

010-6208-5555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서구 화곡동 2500가구 아파트 상가
- 평수 30평, 2층건물중 2층
- 시설: 원목수미단,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인등
- 시설완벽, 모든집기 포함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8779-9971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161-3번지(구, 용암리 49-4번지)
- 종교용지 570평, 터밭 278평 주차장 44평, 원주-제천 중간 지점 임법당 32평, 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17평, 청룡 백호 2겹 쌓인 도량 정남향
- 사정상 급 양도 : 3억 5천만원

033-744-3859
011-369-3859 (스님직통)
장난전화 사절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IC 15분 거리
- 면적 : 부지 55,000㎡, 건물 270㎡
- 법당, 삼성각, 용왕당, 요사채2동, 황토방 연못, 채전밭, 각종 유실수 산과 계곡, 마을 가깝고 포장도로
- 법당방6, 심야전기, 화목보일러
- 가액 : 5억 5천만

010-5346-4138
051-861-2233
금호부동산 연사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연산동)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찰 안내
- 위치 : 예산 수덕사 IC에서 10분 거리
- 천혜의 요지 예당 저수지위에 위치한 150년된 조그만 암자
- 평수 : 약 2만평
- 산수 물 좋은곳, 예당 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5097-3468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특징 : 대지 약 80평 (종교부지)
- 법당 : 약 26평 (주지실, 삼성각 포함)
- 요사채 : 약 24평 단독종교법인 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626-508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3분거리,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정류장앞,옥상 사용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재송동
- 2층, 30여평 전층.
- 법당, 스님방, 종무실, 주방.
- 13년 포교하고 있음
- 가액 : 보증금 1,800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절충가능

010-5036-4380

전망좋은 암자 안내 및 전세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 삼존불,각단탱화,스님방사,산신각
- 가액 : 1억
- 전세 1000만원 월 30만원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643-5235
010-7475-047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5-2 지리산 750고지
- 빈집 방2개, 응접실1개 부엌 1개, 욕실 1개
- 지리산 인연 있으면 함께 합시다
- 가액 : 보증금 2백만 월세 20만

011-759-018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3층 부산대병원 인접
- 평수 : 6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010-9459-947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언양권 교동리
- 2층 건물 5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세탁실. 창고
- 시설비 2천만원
- 보증금1천만원.월세50만원

상담전화 010-7752-1026

사찰안내 및 전세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소재
- 총면적 : 530평
- 법당. 종무소,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창고
- 가액: 7억 전세: 2억

연락처 010-2702-0303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아산
- 종교부지 : 전답 1,300평
- 건물 : 건평 60평
- 1층 법당 방4개, 주방, 욕조, 화장실
- 가액 : 3억 9천만원 (융자없음)

02-2675-6581~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1140평. 주차장 완비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방 7칸 스님 친견실,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3천 500만원

010-2498-7899

사찰(급)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시 인접)
- 건물 : 32평 독채, 사찰 등기필(등기부 등재)
- 법당(약사여래불), 주방, 방2, 실내화장실
- 면 중심가(상가지역) 포교사찰(남향)
- 대지: 약 100평(2집사용), 사용도지료 1년 35만원 (지주가의 땅으로 상가일대가 도지료를 냄.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자기집) 임)
- 가액 : 4천 8백 50만원

010-7295-1259

사찰터 및 주택지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46번지
- 답 970평
- 평사리뜰이 아름답게 보이는 좋은 터
- 사찰 터 및 팬션, 전원 주택지로 적합
- 가액 : 평당 30만원

010-3119-1697

사찰 안내
- 위치 : 밀양IC에서 얼음골 방향 15분거리
- 잣나무 숲과 계곡의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 대지 328평에 2층 건물
- 1층 명상홀과 요사채 60평 2층 대웅전 24평, 나무 숲속에 삼성각 4.5평 별도 요사채 30평과 창고 20평
- 석물 원통문 수월관음 연화탑 포대화상
- 농지에 사과나무 220주 호두나무 40주
- 가액 : 6억 5천

010-4895-2050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내
- 5층 40평 EV 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40만원
- 시설시 절충
- 몸만 오시면 됨

010-9985-8475

큰사찰 및 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경치 좋은곳
- 1만평 33,000㎡, 평당 10만원 1만평 개인분할 등기 진행중
- 답사 후 결정 주인 직접. 현재 사찰 운영 중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조립식 건물, 주차장 넓음
- 양산시내 및 고속도로 지하철 25분거리 부산, 울산, 김해 1시간 거리

010-3879-2544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 중앙동, 시장 초입에 있음
- 원불 : 아미타, 관세음, 산신
- 탱화 : 부처님 후불 금신중 칠성. 2층 34평
- 보증금 1천만원 월35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육백, 판넬바닥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9906-9668

청주 도심사찰 안내
- 위치 : 청주시 도심포교 15년 사찰
- 대지: 60평. 건평: 60여평(2층)
- 법당.나한전.요사채2동(방사 5개)
- 2M아미타 삼존불. 지장탱화(문화재급) 원불. 불기일체 양도
- 비영리 사업자등록으로 양도양수함
- 양도가액 : 4억 3천만원

010-6372-8968

암자 안내
- 위치 :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4-6번지 천호동굴 앞
- 삼존불. 각종탱화 있음
- 대지 125평
- 산좋고.물좋고.공기 좋은곳
- 동네에서 500미터 떨어진 산 밑
- 가액 : 6천만원

010-9288-688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3층
- 평수 : 6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010-9459-9477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 1동, 칠성각 1동, 산산각1동, 요사체 약40평1동
- 가액 : 3억 2천(5천만원 빼드림)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찰 안내
《격암 남사고선생 십승지지》
- 위치 :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 부지 : 대지 136평
- 건물 : 46.42평 1층 법당 2층 거실방 3개
- 특징 : 심야전기시설
- 가액 : 3억8천만원

010-2480-2918

암자터(펜션.전원주택)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소재
- 대지 300평. 건물 25평 (조립식). 전답 921평
-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명당터. 토목 조경 완료
- 가액 : 5억

010-3518-3958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산 돗대땅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의료관광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1억 6천) 안고

010-9906-3631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포교원 안내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 건평 40평 4층(엘리베이트)
- 상단, 석가,문수, 보현, 관세음, 약사보살, 칠성단, 신중단, 산신단
- 6년째 하고 있는 곳 (은사스님 호출로)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 74만원(관리비 포함) 시설비 3천만원 (절충가능)

010-5277-2388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 대지 : 152평
- 한옥한채(법당), 부속건물 2동, 텃밭 있으며 교통이 편리함
- 가액 : 1억 8천만원

자세한 내용은
010-9338-1755 로
문의바랍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동부곡로 11
- 부곡시장 상가 2층 35평
- 보증금 2000만, 월세 40만 (조정가능)
- 시설비는 현장 보시고 결정

010-9421-936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동부곡로 11
- 부곡시장 상가 2층 35평
- 보증금 2000만, 월세 40만 (조정가능)
- 시설비는 현장 보시고 결정

010-5522-6677

사찰 안내
《격암 남사고선생 십승지지》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 법당 27평, 구 건물 11동
- 산사에 대지 660평, 현재사용부지 2,000평
- 매실 350그루 외 다수 유실수
- 현재시세 4-5억정도 형성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

010-9203-1165

사찰 안내
《격암 남사고선생 십승지지》
- 위치 : 소백산 국립공원내 달발골
- 부지 : 10필지 3,036평
- 용도: 대지 3필지 469평 전 7필지 2,567평

법당: 38평, 창고: 15평
- 특징 : 심야전기시설
- 가액 : 12억

010-2480-2918

비구니스님 요사채 분양 안내
- 위치:경북 울진군 온정면 원덕산길 392 (백암온천 부근)

300여년전에 방장스님이 계셨던 참선도량 기도 영험도량 광흥사에서 요사채를 지어 분양하고자 합니다. 대중스님이 모여 수행, 정진하는 도량이 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주지 합장

054-788-7672
010-8573-6353

"불교 알았다면 라스베이거스 참사 없었다"

美 언론 릴리전뉴스, 참사 현장서 불교계 추모기도 '주목'

라스베이거스 참사로 인해 서양사회에서는 신(God)과 종교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만약 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 가운데 무신론으로 알려진 불교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59명의 사망자, 527명의 부상자를 낳은 라스베이거스 테러 참사 때문에 미국 내 신을 믿는 종교에 대한 불신이 퍼지고 있다고 미국 종교지 '릴리전뉴스'가 10월 7일 보도했다. "신이 어디에 있나" "신이 있기는 한가" 등을 외치며 라스베이거스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만약 신이 있다면 이런 일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종교 자체에 대한 많은 이들의 불신이 커져, 유신론의 종교인 기독교 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 상황이다. 추모 현장 인근에 기독교와 유대교는 부스를 설치하고 희생자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추모 광장에 가장 많이 모인 단체는 기독교였다. 기독교 복음 전도회는 라스베이거스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찬송가를 전자 음악으로 연주하며 희생자를 위해 노래했다. 성경구절을 소리 높여 읽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는 유대교였다. 유대인들은 시내 건너편 임시 유대교 회당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그야말로 '비극'이라며 희생자를 추모했다. 추모의 노래 역시 빠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불교는 조금 다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 종교들과 달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

라오스 · 버마 · 태국 · 스리랑카 출신 40여명의 스님들은 추모현장으로 모였다. 이들은 라스베이거스에 임시 법당을 만들었다. 스님들은 이곳에서 총격으로

기독교 추모 부스 최다 설치 불구
시민사회 신에 대한 불신 커져
유신론 종교 타격 입어 '울상'
깨달음 강조하는 불교에 관심
현장 임시법당도 사람들 관심↑

세상을 떠난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미얀마 출신 틴 타임즈 스님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뿐이기에 열심히 기도하고자 나왔다"며 "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며 같은 한 공동체의 일원이다. 언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인생은 이렇게 덧없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간 그들이 안타깝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충격적인 참사에 많은 종교계가 추모를 위해 라스베이거스로 모였다. 불교계서도 40여 명의 스님들이 임시 제단을 만들어 기도했다. 사진출처=릴리전뉴스

태국 불교 스님들은 법회를 위해 미국 오그던 402번가를 개방하기도 했다.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은 법회에는 불교문외한들도 많았다. 하지만 스님들이 불교에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상냥하고 따듯하게 대해줘 의구심을 갖고 다가왔던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법회를 주최한 친가득 스님은 △화내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스스로 편안하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등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스님은 "몇몇 사람들은 분노를 조절하기 힘들어한다. 스스로 항상 살피고 오로지 스스로를 바라보라"고 당부했다.

'스탠다드'는 "불교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태와 극명히 대비된다. 불교를 알았더라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평화를 증진코자 노력하는 승려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402번가를 방문한 미국 '스탠다드'지 취재기자는 "불교는 홀로 고고함을 외치거나 무력하게 신을 찾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불교, 스코틀랜드 교도소서 '선풍적 인기'

5년 새 급성장… "감옥에서 명상 도움 돼"

불교가 스코틀랜드 교도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로 거듭나고 있다.

스코틀랜드 매체인 '데일리레코드'는 10월 9일(현지시간) "최근 스코틀랜드 교도소 내에서 20명의 수감자들이 불자로 등록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2명의 수감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불교로 등록했다.

스코틀랜드 담당 교도관은 "2014년 전까지는 불교를 믿는 수감자들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 이후부터 불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불교는 스코틀랜드뿐 아니라 영국의 교도소에서도 10년간 8배나 불자가 늘어날 정도로 급성장 하고 있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됐다.

영국 교도소 관계자는 "많은 재소자들이 그들이 따르는 종교를 불교라 말하고 카르마와 자비에 대해 말한다. 이는 실로 놀라운 현상"이라며 "과거 수감자들은 더 좋은 음식을 얻기 위해 유대교나 이슬람교도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불교도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에는 재소자들에게 부처님 진리를 알리고 이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1985년 웨일즈에 설립된 '앙굴리말라'가 유명하다. 영국 출신 아잔 케마 담모 스님이 영국 내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에게 불교교육을 시작하면서 교도서 법당 설립에 적극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1985년 3월 단체를 설립하고 에든버러, 킬마너크, 피터헤드 등에 있는 교도소 안에 법당을 만들었다.

영국 교도소 관계자는 "재소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후 불교에 귀의 했고, 수감기간 동안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를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앙굴리말라' 감옥 지도법사인 로드 에브버리씨는 이와 관련 "명상은 수감자들이 좁은 감옥에서 힘든 수감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며 "불교는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종교다. 어쨌든 수감자들은 욕망이 일어나도 갇혀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불교는 그들에게 적합한 종교"라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불교와 함께하면 일터에서도 행복"

영국 워익 경영대학원 연구 결과
호주 언론 '프로보노' 보도

이윤창출, 사기진작 효과
창의력 · 통찰력 증진해
개인 간 관계 개선하기도


영국서 불교가 일자리의 행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보고가 발표됐다. 사진출처=프로보노

영국서 불교와 일자리에 관한 연구조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영국 워익 경영대학원서 이윤창출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불교가 끼치는 영향을 연구, 결과 발표했다고 호주 언론 '프로보노'가 10월 9일 전했다. 불교를 모토로 일하게 되면 직원들의 다양한 창의력과 통찰력이 발현될 수 있고, 개인 간 관계가 개선돼 실질적 사업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연구는 불교가 직원들의 능률을 신장한다고 밝혔다. 연구의 수석 책임자이자 워익 경영대학원 교수인 할리 비어 박사는 "심리적 안정감이 직원들에게 창의력 · 통찰력을 준다. 많은 회사원들은 개인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며 물질 만능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는 과도하게 이윤만을 추구하는 회사의 영향일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회의 핵심이자 불교의 핵심인 '자비'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 자비정신으로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면 창의성과 통찰력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연구는 불교가 사업적 성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할리 비어 박사는 "불교서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와 불교 철학 등이 개인 간 관계를 개선하며 더 나은 행동으로 발전시킨다"며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과정서 불교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다. 거래를 맺는 과정, 협업하는 과정서 훨씬 좋은 결과물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박진형 기자


일본 전통 요괴 '누에'와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싸우는 모습은 이번 전시의 백미로 꼽힌다. 사진출처=다이카쿠지 홈페이지

日 사찰서 '만화 원피스' 20주년 특별전

교토 다이카쿠지 사원서 대규모의 다양한 전시 지속 개최

일본의 문화아이콘으로 불리는 다이카쿠지 사원에 특별한 전시가 진행된다.

일본 진언종 다이카쿠지파 총본산 교토 다이카쿠지 사원서 인기 만화 '원피스'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개최했다. 절 회랑과 전각 3개를 거치는 규모로 그 규모도 매우 크다.

일본 전통예술방식으로 원피스의 내용을 표현했다는 평가다. 특히 다이카쿠지의 정원을 활용한 800㎡의 정원화가 백미로 꼽힌다. '원피스'의 주인공인 '루피'와 일본 전통 괴물 '누에'가 싸우는 모습으로, 색이 있는 돌을 사용해 정원 전체에 그림을 그린 형식이다. 이 원피스 전시는 10월 2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다이카쿠지는 8세기 사가천황의 별궁이었다. 당시 일본과 당의 교류가 늘어났고 서사화에 능한 천황 덕에 문화 · 예술이 이 궁전에 모이게 됐다. 이때부터 다이카쿠지는 현대 일본서 빼놀 수 없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 사원은 전시회나 공연도 종종 개최한다. 작년에는 구마모토 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공연을 열기도 했다.

박진형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조실 현봉근일
회주 송암혜승
동당 원조각성
주지 남전호성
대학원장 등현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성공
호법국장 정우 사회국장 등안
교무국장 명인 재무국장 두현
포교국장 동우

고운노인요양원원장 석우
의성노인복지관관장 선주
영주장애인복지관관장 도선
사찰음식체험관관장 원해
연화마을관장 구견
안동청소년문화센터관장 최유형
안동장애인복지관관장 전만호

사부대중일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구계리116) ☎ 054)833-2324
• 사찰음식체험관 ☎ 054)834-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마음기부 하세요"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장기 ·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환자후원사업
◆자살예방교육사업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 면
TEL. 02-734-8050
www.lisa.or.kr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

샤론 샐즈버그(미국 수행지도자)

〈9〉 대지와 같은 빛나는 평온함으로

우주는 붙들기보다 놓기에 완벽한 크기



온 세상에 깔려 있는 변화

메따 수행을 처음 소개할 때 학생들에게 그들의 가장 깊은 포부, 즉 인생에서 자신을 위해 꼭 원하는 일을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라고 권합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알기란 때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기를 원할까요? 흥미로운 일을 원할까요? 이 삶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을 조절하려 노력하면서 그 일을 성취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는 법을 배워서 성취해야 할까요? 평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두기'의 의미를 깊이 배워야 합니다.

네 가지 한계가 없는 마음(四無量心), 즉 범천의 상태이자 천신들의 상태로 불리는 마음은 네 번째 덕목인 평온에 의해 완성됩니다. 빨리어 경전에서 평온을 의미하는 말은 우뻬카인데 이는 '균형을 이룬 상태'를 뜻합니다. 평온의 특징은 극단으로 치우치려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평온이란,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이며 이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우리 인생을 이루는 온갖 종류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완전하게 현재에 있도록 해주는 밝은 고요를 말합니다. 내적이거나 외적인 경험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때,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의 근저에 깔려 있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으로 시선을 옮겨와 보면, 우리는 독특한 흐름과 운동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바로 이 특정한 장소에서, 바로 이 책을 읽게 되기까지 영향을 미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고서 이 순간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과거에 불행하다고 느꼈던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며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은 안정되지 못하고 혼돈스러운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삶은 모자이크와 같고 어떤 일정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경험은 전체를 만들어 내는 부분이며, 우리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전체의 조화로움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즐겁고 안락하고 행복했을 때의 느낌과 힘들었을 때의 느낌을 연결 짓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 고대의 도가(道家)에서는 천 번의 즐거움과 만 번의 슬픔이 끊임없이 오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붓다는 즐거움과 괴로움, 이익과 손실, 칭찬과 비난, 명성과 악평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비난이 따른다

나와 같이 아시아의 관습을 존중하면서 집중수행을 지도했던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좌선을 하기 위해서 선실(禪室)에 들어가서 중앙에 모셔진 불상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좌선이 끝나고 나서 그는 선실에서 함께 수행했던 학생 두 명으로부터 메모를 받았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부처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절을 하는 것은 계급에 대한 미신입니다. 이곳에는 그런 미신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다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부처님께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절하는 모습은 내가 이곳에서 경험했던 일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수행을 전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에 정말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세상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어떤 때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자 사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처음 만난 스님은 깊은 선정 삼매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걸어도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자는 화가 나서 투덜거리며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절을 찾았고, 총명하고 박식한 붓다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질문을 들은 제자는 길고 복잡한 경전의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다시 몹시 화를 내며 가 버렸습니다. 그다음 날, 그는 다시 붓다의 시자인 아난존자를 만났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변화의 삶
행복한 때와 힘든 때 공존
판단 대신 균형감각 길러내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첫날 선정에 든 스님이 아무 말도 해 주지 않았고, 다음 날 만난 스님은 너무 긴 설명을 해 주었다는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아난존자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중간 길이의 가르침을 조심스럽게 전해주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자는 또다시 화를 내며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스님은 그런 신중한 문제를 어떻게 그처럼 개략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결국 떠나 버렸습니다.

비구들이 붓다에게 다가가서 삼 일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붓다의 현명한 답은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비난이 있다.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면 누군가 비난할 것이다. 말을 적게 해도 누군가 비난할 것이다. 또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비난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삶의 자연스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괴로움 없이 즐거움만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손해 없이 이익만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에 눈을 뜨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집착하거나 밀쳐 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마주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존재의 신비로움을 고려한 가르침입니다.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 무엇이든 현재 존재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전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덕목의 인내심 기르는 평온

내가 인도에서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나를 지도해 준 스승 가운데 한 분은 반응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기적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독백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고무적인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내가 받은 가르침 가운데 가장 훌륭해. 한순간에 너는 정말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지. 이 무릎의 통증을 없애 버릴 수만 있다면 말이야. 그래, 이 수행을 하면 정말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

스승은 더 상세히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스승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계속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야. 내 인생에서 이렇게 고무된 일은 없었어. 이 가르침을 이토록 좋아하는 것을 보니 나는 전생에 틀림없이 불교신자였을 거야. 이 무릎 통증을 없앨 수만 있다면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인도 남부에 있는 요가 아쉬람(Yoga ashram)에 가볼까. 그곳에 가면 내 몸을 풀어 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더 이상 통증은 없을 거야. 그리고 여섯 달 후에 다시 돌아와 수행하면 그때 나는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의식의 물살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붓다가 가르치고 또 내 스승이 말했던 내용이 바로 내 무릎의 통증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불현 듯 깨달았습니다. 분명 나는 내 무릎 때문에 불쾌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동안 그 통증을 어떻게 해석했던 걸까요? 집착하고 혐오하고 현혹당했던 걸까요? 아니면 받아들이고 놓아 버렸던 걸까요? 그 통증에 묶여 있었던 걸까요, 자유로웠던 걸까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미래에 더 나은 경험으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대신, 나는 통증에 대해 지금의 상태 그대로 마음을 열어 놓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벗어버릴 짐이라거나, 저주로 생각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 순간의 진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멀리 있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좌선할 때 느끼는) 우리의 무릎 통증에 대한 것이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 통증에 반응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평온은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을, 연민과 증오심을 가려냅니다. 평온은 '자애'나 '연민'과 '함께 기뻐함'이라는 이 덕목들의 인내심을 길러 줍니다. 비록 그 덕목들에 대한 마음에 아무 보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런 덕목들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처럼 세 가지 고귀한 마음은 평온 덕분에 모든 존재를 한없이 공평하게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평온이 주는 또 다른 고마운 선물 가운데 하나는, 괴로움에 마음을 열어 놓을 용기를 향상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슬프다거나 비참하다는 생각에 빠지지도 않고, 분개하지도 않고, 그 괴로움을 깨어버리거나 밀쳐 내려고 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는 거듭해서 괴로움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내 집처럼 편안한 상태입니다. 이 우주는 우리가 붙들고 있기에는 너무나 크지만, 놓아 버리기에는 아주 완벽한 크기입니다. 우리는 가슴과 마음을 그만큼 크게 만들고, 모든 것을 놓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온이 우리 삶에 선사하는 선물입니다.

이 글은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조계종 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시방세계 부처님 통도사에 나투시다'

천년도량 영축산의 하늘이 드높습니다.
영축총림통도사에서는 개산 1372주년을 맞아
개산조 자장율사를 기리는 영고재와 함께 여러분들을 축제의 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영축문화축제 일정표

일 자	시 간	장 소	주 요 내 용
9월 30일 ~ 11월 6일		보행로(일원)	괘불대전
		박물관 앞길	괘불조성체험(모자이크 바느질 체험)
			양산축제(귀면)
		도량	국화장엄
		하노전 일대	천진불 전시(오채현 작가) : 붓다의 미소
		감로당 앞막이	스님들의 사진전 '나도 작가다'
10월 22일	오후 1시~5시	해장보각(도서관)	학술 세미나

개산대재 일정표

일 자	시 간	장 소	주 요 내 용
10월 28일	오전 10시	해장보각(세존비각 옆)	영고재
	오전 11시	설법전	개산대재 법요식
	오후 1시	성보박물관	괘불탱특별전
	오후 2시	부도전	부도 헌다례
10월 29일	오전 9시	산문주차장	괘불이운
	오전 10시 30분	괘불대 앞	괘불헌공
	오전 11시	설선당 잔디밭	만발공양 / 문화공연
	오후 1시	설선당 잔디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 날씨에 따라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Tel.(055)382.7182, 381.1442 Fax.(055)382-7196



대행 스님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오늘에 그대로 지금 계십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 소리 내가 아마 몇 번 했을 거예요. 지구가 버스라면 버스 안에서 내다보지도 못하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버스 안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이게 내 의자다, 저것이 내 의자다' 하고 서로 뺏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버스가 어떻게 시공을 초월해서 도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찰나찰나 걸림이 없이 돌아가는지 이것을 이 버스 안에서 우리가 상세히 증득한다면, 나를 증득해서 내가 벗어난다면 그런 데서도 모두 속박 안 받고 자유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한다면, 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도깨비장난 하는 것과 같고 어떻게 보면 즐겁고 어떻게 보면 환희스럽고…. 미생물에서부터 천차만별로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생물들이 모두 암, 수컷이 되어서 자식을 낳고, 그래 놓고도 뭐 사람들처럼 질투를 하고 그러는 게 없이, 수컷이라면 암컷을 많이 두어도 그저 순간순간만 하곤 지나가면서 그냥 착을 두지 않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왜 그렇게 착을 두느냐는 얘기죠. 그까짓 거 찰나에 살다가 찰나에 가고, 한 철 살다가 가고 또 한 철 오고 가고 그저 그러는 거뿐인데 그렇게 야단들이거든요. 요만한 거 가지고도 그냥 불편하게 싸우고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하고 싸우고, 또 그런가 하면 그것뿐입니까? 자식이 가출했다가 들어오면 "요놈의 새끼, 깡통을 찰 놈의 새끼!" 그러고선 욕을 하고 말입니다. 여차하면 때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속에서 그 업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의식이 자기 마음을 통해서 자꾸 나와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마음에서 고장 난 건 마음으로 고쳐야지 어떻게 때리고 욕을 해서 고칩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한마음은 둘이 아니니까 벌써 자식과 부모 사이다 이런다면 가설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주인공에다가 '둘이 아닌데, 저 애가 저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 아니냐.' 하고 모두 맡긴다면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통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이 됨으로써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이 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 싫어야 되는 건데, 자기 마음이 자꾸 나가니까 몸도 따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그 도리를 여러분이 잘 알아서 행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사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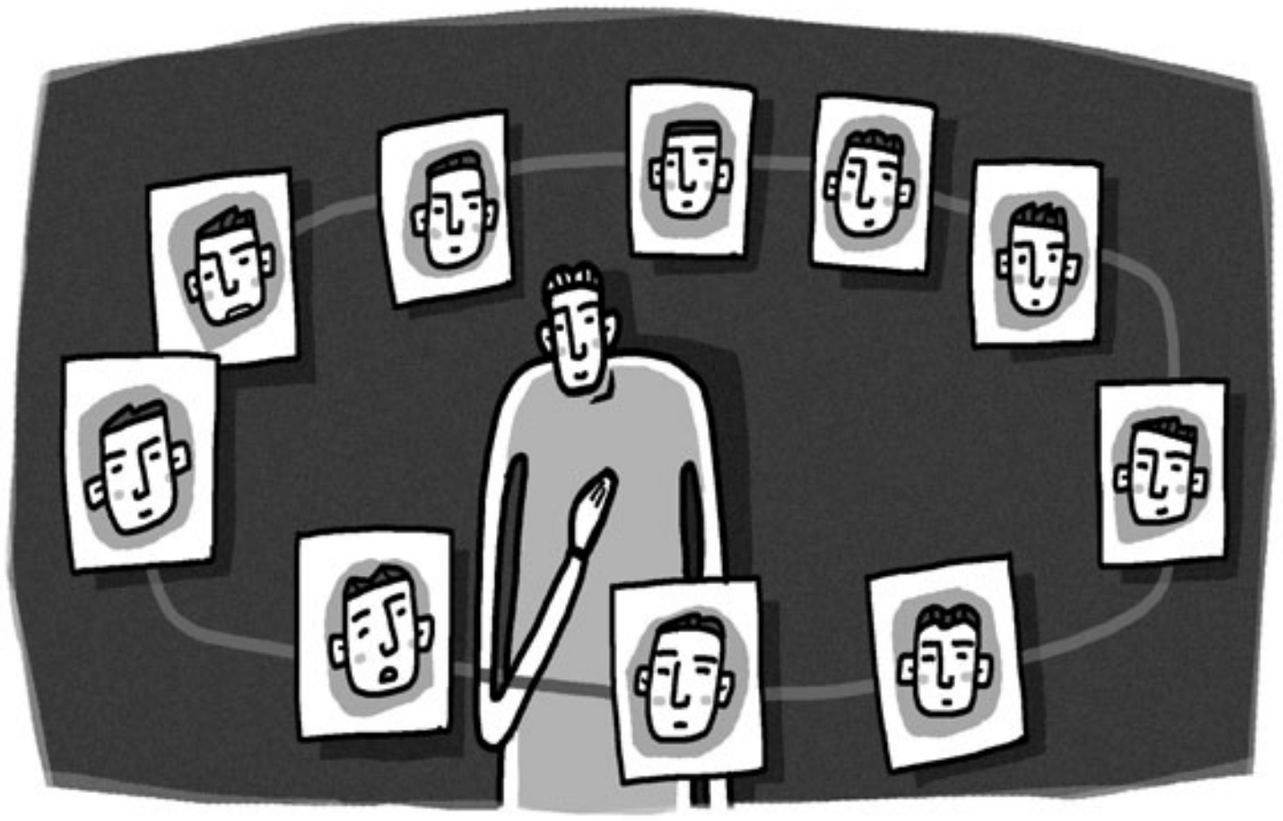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금 모두 볼 때에, 영계성으로 인해서 바깥에서 영계들이 들어와 집을 차지하고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내 집이라고 들어와서 살거든요. 내 집이 비었으니까, 모르니까, 주장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아까 얘기한 다섯 가지가 모두 주둔해서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은 잘 아셔서, 그저 욕으로 다스리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 주고 거기에 맡기세요. 아무리 나가서 자고 오더라도 "너, 나가서 춥지나 않았니?" 또 더울 땐 "덥지나 않았니? 밥이나 먹었니?" 아, 이렇게 따뜻하게 좀 해 주고 "아이, 시원하게 집에서 먹고 집에서 하지 왜 그랬니?" 하고 이렇게 인의롭고 부드럽게 대해 준다면, 그러고 거기다가 맡긴다면 거기서 그쪽으로 불이, 통신이 갈 수 있죠. 그러나 욕을 하고 말로 한다면 통신은커녕 오히려 마음이 천리만리 달아나가죠.

그러니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데 조심해서 잘 실천해 보십시오.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지간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금방 찰나에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고 "얘, 아무개야!" 하면 아들이 되고 "여보게!" 하면 사위가 되고 아, 이렇게 하고들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면서 살아나가는데 내가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고 나투어 가는 거니까 나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모든 걸 한 아름으로 안아서 둥글게 둥굴려 보십시오. 그렇게 넓게 오신통이라는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둥글려서 굴린다면 그게 바로 통 속에서 벗어나서 만사를 다 부끄럽지 않고 자유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모두를 다 함께 해서 도리천에 이르러 고요한 적멸궁에 든다면 다시금 이 세상에 소임을 맡고 나올 때는 별성으로 화해서 이 세상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도 별성이 있고 여기도 별성이 항상 자기한테 같이해 주기 때문에 항상 자기 소임을 그대로 잘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분들은 가시는 것도 오시는 것도 없습니다. 오신 것이 없기 때문에 가신 것도 없고, 그냥 과거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니까 영원한 오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오늘에 그대로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자체 깊은 속을 안다면, 부처님의 그 마음 깊은 속도 같이 둘 아니게 알아서 부처님이 계신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자1(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빌 공(空)' 자와 '없을 무(無)' 자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공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불교사전에 보면 '진공묘유 진여실상' 등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풀이하신 "뜻으로 푼 반야심경"에는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마음은 모든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나니" 하여 공을 마음으로 풀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문집에 "모든 것이 다 공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공에다가 다 맡겨라." 하고 자주 거론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공에 빠지면 안 되죠. 빌 공에 빠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공이라 하면 용무(用無)를 말하죠. 용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움죽거린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여기가 그대로, 지금 공이라는 자체 그대로입니다.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니 그대로 그냥 비었단 얘깁니다. 아까 얘기해 드렸죠? 한 가정으로 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됐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이랬으니 그거는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없으면서 그대로 용무가 되죠. 그냥 그대로죠. 그래서 아마 여래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여래 속에서 여래의 행동을 하면서, 법이 그냥 그대로 용이면서 무다 이겁니다. 이 모두가 다 그냥 비었습니다. 우리가 '비었습니다' 이래도 빈 줄로만 알지 마시고 '꽉 찼다' 이러더라도 꽉 찬 줄로만 알지 마세요.

전 엊그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에 에너지가 다 없어진다면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이 허공에 생명들이 꽉 찼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이 꽉 찬 데는 에너지도 꽉 찼단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용무를 그대로 알아서 진실하게 함이 없이 할 줄 안다면 에너지를 얼마든지 끌어 쓸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죄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요! 해골을 놓고도 그 해골과 자기와 둘이 아닐 때 비로소 자기를 아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너 저기에 묘지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아비 거고 하나는 자식 거니라. 그런데 양쪽에 구멍이 뚫렸느니라. 그런데 아비

☞ A18면으로 계속

www.eunhae-sa.org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08주년 개산대재

보살계 · 만등불사 · 스마트경북음악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미타도량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809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지 1208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스님들의 선맥(禪脈)을 이어온 은해사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와 보살계 및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한한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1(2017)년 10월

개산대재 대법회

· 10월 28일 (토요일 음 9.9)

오전 9시30분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
11시 개산법요식
오전 12시 중악은빛작은음악회
오후 1시 보살계 수계식
3시 도·시민이 함께하는 스마트경북음악회
6시 만등불사 점등식

· 동 참 금 : 보살계 – 1인 2만원,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보 살 계

자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니는 수행덕목인 보살계(菩薩戒)는 불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중요한 의식이며, 이미 받았더라도 다시 보살계를 받으므로서 다시 한번 자리이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크나 큰 공덕입니다.

도·시민이 함께하는 스마트경북음악회

· 일시 : 10월 28일 토요일 오후3시
· 출연 : 현숙, 김국환, 조항조, 민요 박애리, 김정교수 외
※ 개산법요식이 끝난후 국악공연과 선화여고 댄스공연도 있습니다.

■ 동대구역 지하도(오전9시)→하양→은해사
남부정류장(오전9시)→경산→하양→은해사
포항역(오전8시30분)→영천→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 문의 : 종무소 (054)335-3318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은해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본·말사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푸르르게 살 수 있다!

☞ A17면에서 계속

가 자식한테로 가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아비한테로 가면 아비로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연고인가?' 하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스물 몇 살인데 말입니다. 알 게 뭡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아, 발이 떼어 놓아져야죠. 그래서 삼 일을 그냥 그것 때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하!' 이럭하고선 일어났죠. 생각을 해 보세요. 영에다 영을 넣어도 둘이 아니요, 이쪽 영을 이쪽에다 넣어도 둘이 아니요, 하하하…, 만 불을 하나에다 넣어도 둘이 아니요. 이랬으니 어찌 공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이 묘한 법을 말입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큰스님께 질문을 준비해 오면 법문하시면서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해 왔으니까 여기에 모이신 여러 불자님들을 위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 진리의 법을 모두 설하셨지만 미혹한 저희들이 실천하는 것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불성이, 주인공이라는 나의 근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주 전체를 싸고 있는 근본처라고 항상 저희들에게 간곡히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이 근본처를 알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재가 불자들 가운데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해 놓고 남의 사주를 봐 주며, 사찰에서도 부처님의 진리 공부는 뒤로 미루고 세간과 중생들이 즐겨 찾는 각종 행사에만 치중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 가고 있으며 그 수효가 점차 증가하여 대부분의 불자들이 이러한 것이 부처님의 법인 것처럼 알고 생활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가자나 출가자가 부처님의 진리를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첫째, 금강과 같은 흔들림 없는 공부 방법과 둘째, 이분들을 제도할 때의 주의 사항, 그리고 이분들과 자손들이 받는 과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법을 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하여튼 그냥 간단히 대답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또 조금 붙어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영원히 자기는 자기대로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과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의 과보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눈이 떠지질 않고 보질 못하고 듣질 못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짝 짓는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거나 짝 짓는 데로 들어가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닭이다, 토끼다, 뱀이다, 두꺼비다, 올챙이다 뭐 갖가지 짐승들이 짝을 짓는 데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천 년이 가도 그 모습을 벗고 인도환생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항상 우리 스님네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도들한테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한 철 날 때에, 먹고살기 위해서 온통 마음으로 밟아 뭉그러뜨리고 내치고, 기를 쓰고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남의 거를 뺏어먹고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간다면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닭으로도 태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이건 칼산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산 거를 칼로 턱 턱 쳐서 넣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탕지옥이다 하면 이건 물에다가 그냥 텀벙텀벙 넣어 가지고 그냥 끓여서 털을 뽑습니다, 모가지 이렇게 해서. 닭뿐이 아니에요. 생선도 그렇고요. 살아서 펄펄 뛰는 걸 그냥 도마에다 놓고 탁 탁 하고 자르니 칼산지옥이 아니고 뭡니까?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아무리 음매음매 하소연을 모두가 해도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소연을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이 졸려서 죽는다거나 칼로 찔려서 죽는다거나 도끼로 머리를 맞아서 죽는다거나 해도 옴패부득 자기는 그 모습을 타고 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수명이 짧고 길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몇 번 알을 낳고 몇 번 자기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옥이 따로 있어서 받는 줄 알지 마세요.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지옥, 천당입니다.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아래로 내려간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둘 아니게 생각을 해야죠. 어떤 때는 산 거를 놓고선 칼로 탁 칠 때에 고개를 홱 돌립니다. 너무나 아휴, 보기가 귀찮아서 그래요. 그렇더라도 그 본 것만은 '아! 잘됐구나. 네 모습이 그게 뭐냐. 내 이 물방울 하나로 들어온다면 그냥 찰나에 내가 되는 거고, 찰나에 또 블랙홀에서 별들을 출생시키듯이 그냥 나가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못한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 양면을 다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의연하게 그대로 닥치는 대로, 가는 거 잡을 것도 없지만 또 마다할 것도 없고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아주 여여하게, 즐겁게, 하늘이 딱딱 그냥 비벼져서 곤죽이 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자3(남) 큰스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의 근본은 전지전능한 한마음이라는데 어째서 미생물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윤회에 빠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업식에 가려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업식이 있기 이전에는 그대로 밝은 한마음 자리였을 텐데, 어떻게 하여 무명에 빠지고 업식이 생기게 되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지(地), 수(水), 풍(風) 세 가지가 한데 합쳐져서 그냥 그 암흑을 돌다가 부딪치고, 부딪치니까 화(火)가 일어난 거야. 안 그래? 일어나서 그것들도 다 생명이 돼 버렸어. 생명이 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집을 지어 놓고 자기네들이 그 미생물로 화한 거야. 연방연방 그냥. 그러면 그 미생물로 태어나서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해, 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리도 터지고 지혜도 생기고 천체를 다 헤아리고 나갈 수 있고 대치할 수 있고 안아 들일 수 있고, 이렇게 지혜가 터져야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뱀으로 태어났다 하면 뱀으로 살던 습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살던 데로 놀러 가려고 그러지 자기하고 맞지 않는 데는 가려고 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물을 벗지 못하는 거야. 모두가 다 그래. 사람이 법도를 못 지키고 사람답지 못한 데로 빠져나가는 것도 자기가 좋으니까 가는 거야. 잘하라고, 잘 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는 데는 싫거든. 그건 싫으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가고, 만약에 독사나 짐승으로 태어나서 그 모습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마음의 차원 때문이야.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아직 확실히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큰스님 왜 알질 못해? 내가 대답을 해 줬는데…. 하하하. 너로만 있는 게 아니야. 너로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나중에 청년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자꾸 뒤바뀌어 가면서 요다음에 또 어린애가 되고, 여자가 될는지 남자가 될는지 그것도 모르고,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어. 이제 알아듣겠니?

질문자3(남) 스님, 그 과정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윤회하게 되는 시작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지.

큰스님 아이고, 시작은 너한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하하하….

질문자3(남)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우지만, 주인공에게 관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답을 얻은 경우가 드문 것 같고, 잘 안되는 것도 법, 잘되는 것도 법이라지만 제가 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스님 바로 가든지 외로 가든지 뭐, 아래로 내려가든지 무조건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네놈한테다 놔 버려. '너만이 일체를 다, 잘못하는 것도 너니까 잘하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이놈아!' 이렇게 해 버려,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승가대학 기금 마련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둘이 아니라고요. 영원히 둘이 아니라고요. 스님네들이 따로 있고 여러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부모형제 다 버리고 스님이라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모두 응신이 돼 주시는 그 스님네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배출돼야 여러분께서 아마 다 승천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여러분이 하신 거는,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 만약에 비싼 물건을 사려면 돈을 많이 가져가야 하고, 싼 물건을 사려면 돈을 조금 가져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 형편껏 어떠한 문제가 닥쳤는지, 큰 건지 작은 건지 그거를 생각하셔서 큰 거라면 크게 놓으시고 작은 거라면 작게 놓으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도, 내가 돈을 주고 내 물건을 사 왔으니 돈을 준 사이도 없고 그쪽에서 물건을 준 사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스님네들이 "나는 너한테 받은 사이도 없고 내가 너 준 사이도 없느니라. 그러나 부처님한테서는 너에게 그런 공덕이 갈 수 있고 선물이 갈 수 있고 복덕을 이룰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승가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스님네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는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그 대가는 거짓말 없이 꼭 갈 겁니다, 내놓은 대로. 일억이 걷히든지 몇 천이 걷히든지 여러분이 내놓으면 내놓는 대로 그 대가는 거짓 없이 증명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이 없거든요. 아주 보증 수표거든요. 하하하…. 그러니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다고 건방지다고 하지 마시고요. 조그만큼 도와주신다 해도 여러분의 그 애로는 풀리실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 일체 만물과도 다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우주의 별성들하고도 모두 직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요다음에 한번 그 자리에 가서 혼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럿이 뭉치면 이루어 내고 흩어지면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어느 사람도, 기독교인, 가톨릭교인이라 할지라도 한 불교 안에, 한 지구 안에서 지구를 몸뚱이 삼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구를 우리는 마음으로 벗어나서, 지구가 나중에 팽창되거나 타 버리는 일이 없이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지구라는 우리 집이 뚫어진 게 있으면 에너지를 다 갖다가 고치고 해서 쓸 수 있게끔 우리는 마음을 한마음으로 내서 해결합시다.

그러고도 스님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 여러분을 위해서 동참하신다면 아마 자손들 대까지도 세세생생 나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내려가도 됩니까?

(앞쪽에 앉아 있는 학생들을 보시며) 감사해요. 정말 어린 싹들이 앞으로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푸르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주 증명해야 돼요. 알았죠?

학생 일동 네.

큰스님 (합장하시며) 예.

여러분의 마음 자체 깊은 속을 안다면,
부처님의 그 마음 깊은 속도 같이 둘 아니게 알아서
부처님이 계신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위 법문은 1995년 10월 8일 부산대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승려연수

진화의 원동력인 자기 불성을 믿어라
불교 가치를 담은 인성교육
한나무인성교육 '꽃을 피우는 나무'

■일 정 : 2017년 11월 9일(목) ~ 11일(토), 2박 3일(숙박형)
■장 소 : 한국문화연수원(충남 공주 소재)
■정 원 : 30명
■교 육 비 : 20만원, (재)한마음선원과학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마 감 : 2017년 11월 2일(목)
■문의/신청 : 031-470-3196, 3200 (매주 화~토요일, 오전10시~오후5시)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 제 5기 개강

원순스님의 〈육조단경六祖壇經〉

경전어록 전문 강설도량인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에서는
2017년 가을을 맞아 육조단경 돈황본 강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전어록에 관심 있는 불자님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경전의 바다를 유영하는 값진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사 | 원순스님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 해인사 · 송광사 ·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 조계종 교재편찬위원 역임,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서 안거중

개강일시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저녁 7시 묘광선원-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강의기간 2017년 11월 6일 ~ 2018년 2월 26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수 강 료 월 5만원 (교재비 별도)
문 의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 051.244.0263 / 010.3564.3725 / www.open-buddhism.com

※ 주차는 건너편 성원주차빌딩에 유료주차 하실 수 있습니다.

| 불자 세상보기 |

국가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연휴기간 관람한 영화 '남한산성'
내내 답답함과 분노가 일렁였다

영화서 청나라 앞잡이의 한마디
"조선서 노비는 사람이 아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는 정치학 난제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서
저자는 정치적 마음 수행을 강조
수행을 통해 정치 바로 세워야

구름 사이로 기웃기웃 보이는 한가위 달이 밝고 크신 모습이 아니다. 열흘의 긴 휴일이 주어 졌지만 어떤 예비적 공포에 싸여 찜찜한 불안이 서린 연휴기간이었다. 마치 온 몸에 미열을 느끼는 기분이다.

북한은 또 다른 신형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고, 트럼프 미대통령은 '지금은 폭풍전야의 고요' 라고 하면서 대북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모두가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관계에서 나오는 고통들이다.

휴일 기간에 영화 '남한산성' 을 봤다. 관람 내내 답답한 마음과 분노가 일렁거렸다. 그 분노는 조선을 침략한 청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왕과 위정자에 대한 분노이다.

임진왜란 때 왕과 위정자에 느낀 분노가 새삼 기억난다. 그렇게 부끄럽게 왜란을 겪은 조선이 왜 지속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개국의 기운은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 국가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일어난다.

국가를 지킨다는 명분아래 만들어진 만리장성에 얼마나 많은 민중들의 슬픔과 비극이 쌓여 있을까. 그 만리장성이 지금은 사람들을 감탄케 하는 관광상품이 되어 있으니 이를 어쩌랴.

'국가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정치학의 제일 큰 난제이다. 국가의 문제는 우리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실천적인 물음이다. 국가가 도덕적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또한 국가 권력의 행사는 어떻게 정당하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물음이다. 그러나 오호 통재라. 역사상 도덕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한 국가가 얼마나 있었던가?

'남한산성' 에서 조선이라는 국가에서 제일 고통을 당한 사람이 대장장이 '날쇠' 이다. 명분과 절의를 강조하는 잘난 정승은 '날쇠' 에게 남한산성의 임금을 구하라는 칙명을 성 밖의 근왕군에게 전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긴다.

그러나 오히려 근왕병 지휘관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겪는다. '날쇠' 가 죽임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말했듯 벼슬아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나라 군의 통역을 맡고 있는 정명수는 조선 사람이 왜 청나라의 앞잡이가 됐느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조선에서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 글을 쓰면서 오래 전에 읽었던, 감동 받아 신입생의 '정치 교육론' 에 교재로 썼던 책 파커 파머(Parker Palmer)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의 내용이 생각난다. 민주주의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가 저자의 문제인식이다. 파머는 내면과 외면을 분리시키는 생각이 오늘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뿌리라고 보면서 일종의 정치적 마음수행을 강조한다.

그는 "우리가 자아와 세계라고 이해하는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불리는 중심부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자신이 아는 바에 따라 인간적으로 행동할 용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기백 이상의 것을 뜻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질 때 체념하지 않고 자아의 중심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당위와 현실 사이의 비극적 간극을 가슴에 품고 견디는 '비통한 자들(the broken hearted)' 이 되면서도 '부서져 열리는(broken open)' 마음이 요구된다. 그래서 선악의 구도가 명확하지 않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 풍경을 응시하면서 그 '애매함과 긴장' 을 끌어안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공공적 책임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나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리라.

파머는 붓다의 정치철학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공부를 하는 수행자가 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 마지막 영화 장면, 살아남은 '날쇠' 는 풍구를 돌리면서 쇠를 달구고 있다.



기자칼럼
윤호섭 취재부 기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선거

길고도 험했던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일단락됐다. 선거는 끝남과 동시에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누군가는 환희를, 또 다른 누군가는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항상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의 고유한 특성은 차치하고, 이번 선거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다. 조금 더 나아가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10월 12일 투표가 치러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일대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 후보를 비방하는 대중과 이를 제지하는 종무원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경찰병력. 이 모습만으로도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했지만 호법부 스님과 선원수좌회 스님이 한 차례 주먹을 주고받는 촌극도 빚어졌다. 수좌회 스님은 경찰벽을 뚫고 투표장 가까이 진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에게 연행될 뻔한 일도 겪었다. 현장에는 서로 주고받는 욕설도 난무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욕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너나 할 것 없이 '새끼' 를 외쳤다. 가만히 서있던 사람이 인신공격을 받기도 했고, 시비를 거는 일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어디 투표 현장만의 문제인가. 선거 전날까지 각 후보 선거대책위와 교계 단체들은 잇따른 고소고발과 비방 성명 등으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게다가 후보들은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불같은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대중이 그토록 바랐던 종책선거도 무산됐다. 각 후보 측은 여법한 종단운영을 위한 새로운 종책과제들을 앞다투어 홍보하면서 종책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서로 종책토론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명절 연휴로 인한 빠듯한 일정에도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후보간 합의가 결렬됐다.

여기에는 미흡한 선거법 개정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중앙종회의 잘못이 크다. 선거법상 종책토론회는 강제조항이 아닌 재량권으로 명시돼 열리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이미 몇 차례 총무원장 선거가 진행되며 드러났던 것들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법이 보완되지 않은 것은 선거 이후 종회의원들의 체감온도가 떨어져 뒷전으로 미뤄버린 게 아닐까. 94년 종단개혁 이후 현행 선거제도가 정착됐음에도 20년이 훌쩍 넘도록 종책토론회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선거과정을 지켜보며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었다. 특정 개인이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뜻은 아니다. 얽히고설킨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개개인 모두 때로는 엄석대이기도, 한병태이기도 했다. 기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옳다' '그르다' 모순 대립하는 명제가 무명(無明)에서 비롯된 사견이기에 둘 다 버리라고 중도를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과는 멀어져버린 것 같다.

선거는 끝났다. 다만 앞으로 풀어 나가야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을 뿐이다. 누군가의 숙제가 아닌 우리들의 숙제. 불제자들은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계율로, 바른 견해로, 이익으로 화합하라는 육화(六和) 정신을 되새겨 숙제를 풀어가는 공동체로 다시금 뭉칠 때다.

社 說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에 바란다

치열했던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끝났다. 10월 12일 진행된 선거 결과 前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 319표 중 234표를 획득해 73.4%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됐다.

설정 스님은 종단 안팎으로 존경 받는 지도자이다. 평생을 간화선 수행에 매진한 수좌이면서 제11대 중앙종회의장과 수덕사 주지 등을 역임했던 이(理)·사(事)를 두루 거친 선지식이기도 하다.

오는 10월 18일 열리는 원로회의에서 인준만 받게 되면 설정 스님은 10월 31일부터 신임 총무원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스님에게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선거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들이다. 스님 스스로도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는 빠르게 해소돼야 할 부분이다.

또한 종단 안팎의 불협화음 역시 어떻게 풀어갈지도 숙제다. 이미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지만, 모든 불교시민단체들과 반대 측 스님들을 부정할 수 없음을 인지한다면 어떤 지혜로운 포용책을 가질 지도 기대를 모은다.

종단 선거제도를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다. 매번 선거에서 비방과 금품살포 문제가 거론되는 만큼 직선제든 간선제든 선거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자인구 300만 명 감소와 탈종교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단 종책과 마스터플랜을 내놔야 한다는 점이다. 종단 안팎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계종을 발전시키는 지혜를 신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대중들에게 내려주길 기대한다.

'부처님오신날' 명칭 변경 환영한다

석가탄신일의 공식명칭이 '부처님오신날' 로 변경됐다. 정부는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42년간 불교계가 요구해 온 '부처님오신날' 명칭변경을 받아들였다.

'석가탄신일' 은 1975년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 이면에는 불교현대사의 아픔이 서려있다. 1949년 정부수립후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지정은 1960년대 이르러서야 이뤄졌다. 기독교 정권의 종교편향 속에서 한국전통 종교인 불교의 처지가 드러난 것이다. '성탄절' 의 물리적 균형성에 치우쳐 '석탄일' , 그리고 '석가탄신일' 로 불린 것이다.

여기에 '석가탄신일' 명칭 자체가 부처님오신날의 정확한 뜻을 반영하지 못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온 뜻을 '석가' 가 탄생한 날이란 의미로 국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불교계, 특히 불교언론에서 그동안 부처님오신날이란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것은 부처님오신날의 참 의미를 알리고자 함이었다.

부처님오신날의 공식 명칭 변경은 이제 불자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함이다.

부처님은 이 땅에서 인간 개개인이 부처답게 살 것을 강조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무명에 잠긴 자신을 스스로 깨우치고,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행복한 공동체의 삶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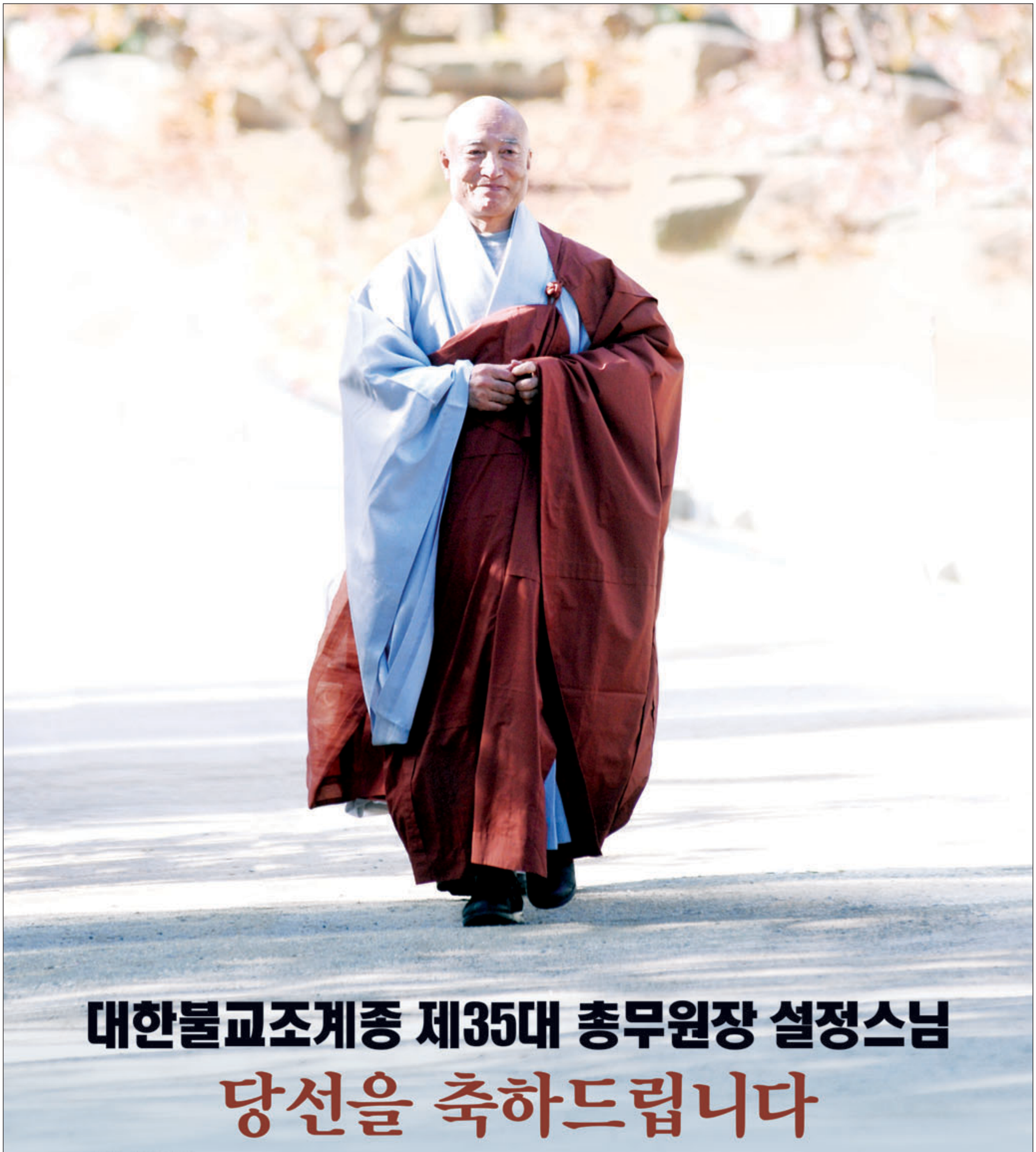
경쟁과 욕망추구의 현대사회에서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온 참 의미를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오신날의 공식 명칭을 기해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 행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
창종 4주년 기념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은 창종4주년기념법회 및 종정 이.취임식을 봉행함을 제방에 사룁니다.
종 정 : 예호당 법경
원로의장 : 정인 원 로 : 지선.혜원.월현.정광
총무원장 : 법성 종회의장 : 법륜
문화원장 : 혜관 포교원장 : 보덕 호법원장 : 도원
비구니원장 : 진언
고시위원 : 정인.혜관.정광.도원.법원
종회의원 : 법경.정인.월현.정광.법성.법륜.혜관.보덕.법원.도원.진언
종회임원 : 법정.정운.지산.법안.해운.도현.무상.향적.청담
법인.정인.해산.법일.성본.고산.도경.황산.청인
원경.법진.지호.도선.공태건.광명화
■ 일 시 : 2017년 10월 31일 (음력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32-13 성원사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10-4호 등기번호 001856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은 교육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설법하신 법문을 모아놓은 경장과 수행자가 지켜야할 율장과 부처님의 대를 이어 깨달음을 얻은 조사 스님들이 모아놓은 논장 경.율.논 삼장인 불.법.승 경전과 범음범패를 교육하는 종단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본 종단과 뜻을 함께 하고져하는 재방의 뜻있는 대덕 큰스님과 종도 여러분을 모시려고 하오니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반명함판, 사찰사진
■ 총 무 원 :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9 성불사
■ 문 의 : 전화 053)322-0567
H·P 010-6537-0567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 대구시 북구 작원길 9 전화 053)322-0567 / 010-6537-0567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본사 수덕사 정묵

말사

향천사 효성	화암사 동준	대련사 자명	청정사 서강	만월사 부연	영각사 청운	마하원 서원	녹야원 현행	탈해사 종학	관음암 선혜
보덕사 대웅	산혜암 덕원	고산사 석청	석련사 경보	내원사 낙운	용봉사 정준	정암사 법륭	영봉암 성우	용화암 범신	세심사 육통
용주사 원일	능인사 해전	서광사 도신	삼길사 청용	망일사 성화	부석사 원우	동 사 묘봉	일락사 경학	문수사 혜찬	천장사 용산
개심사 동덕	죽 사 무여	관음사 무영	미륵사 정호	연화사 현빈	금강사 혜은	보원사 정경	간월암 정암	수도사 수진	선암사 수완
옥천암 무구	태국사 봉만	태을암 홍법	홍주사 현우	공덕사 혜연	영탑사 초운	영랑사 도문	성당사 도윤	정토사 선오	서원사 수근
세원사 정운	성주정사 지현	대천사 능혜	길상사 지영	승천사 승우	대원선원 도영	운주사 청화	중광사 묘행	경원사 지철	송학사 명선
연화사 종실	정수사 영보	금동암 인덕	보훈병원 선명	구봉선원 성범	광제사 경원	극락사 범우	선암사 종식	수정사 국전	칠성사 륜홍
동 사 각우	지장사 정호	법륜사 현암	지장암 수법	보림사 묘정	서암사 인벽	용화사 지성	정법사 밀본	문수사 청안	장안사 상목
관동암 견신	구암사 현문	연화사 명업	법계사 지견	삼보사 혜성	운주사 청화	무량암 범신	봉화사		

산내암자 정혜사 능인선원 금산 견성암 현종 환희대 월송 선수암 세창 극락암 진우

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修德 수덕사노인요양원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예산군시니어클럽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덕숭총림 수덕사



2008년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은 연명순(60) 씨. 연 씨는 장애를 딛고 고려대구로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해 9년째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 씨가 한 손으로 직접 만든 연등이 그 어떤 연등보다 밝게 빛나는 듯하다.

한 손으로 만든 연등, 세상 밝히는 희망 되다

그대는 자비보살 — 고려대구로병원 봉사자 연명순 씨

장애 딛고 다른 환자 위해 봉사

유방암 판정 후 약물 부작용까지
우울증 찾아와 2008년 불의 사고
두 다리, 한 팔 잃는 고통 겪어
"지금 웃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

좌절 빠진 그에게 손내민 '불교'

병실 찾은 불교호스피스봉사단
"퇴원 후 봉사하겠다" 마음먹어
지현 스님 부탁에 법당 봉사
약물 끊고 의족·의수 착용해

'사지(四肢)가 찢기는 고통'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극한의 고통을 느낄 때 종종 하는 말이다.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고통은 차마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프다는 뜻이기도 할 터. 팔 하나는 차치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손가락 하나만 잃는다고 상상하면 어떨까.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대게는 슬픔과 좌절, 낙담, 포기에 가까워질 테다. 그런데 여기, 절망 속에 꽃을 피운 이가 있다.

장애의 몸으로 아픈 환자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불자가 있어 10월 10일 고려대구로병원을 찾았다. 본관 지하 통로 끝에 위치한 병원법당. 어딘가 음침한 느낌이 들지만, 문 앞에 내걸린 연등이 어둠을 내몬다. 이번 취재가 그의 아픔을 꺼내는 일은 아닐까 평소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7평 남짓한 법당, 그리고 법회가 막 끝나고 바삐 움직이는 봉사자 5명이 시야에 들어왔다. 무심코 '몸이 불편한 사람'을 찾았다. '아직 안 오셨나'라는 생각이 들 때 쯤 "이리 앉으세요"라며 손짓하는 이에게 시선이 멈췄다. 의수와 의족이었다.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다시 봤다. 분주한 발걸음과 연신 밝은 미소가 여느 봉사자들과 조금의 다름도 없다. 차이가 있다면 그의 움직임이 좀 더 바쁘다는 정도. 이토록 환히 웃는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마주앉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자비행에 '장애'는 '장애' 되지 않아

고려대구로병원 병원전법단 '자비회' 소속 연명순(60·법명 법왕심) 씨는 9년 동안 이곳에서 봉사 중이다. 정기법회가 열리는 매주 화요일, 기도하러 법당을 찾는 환자들을 위해 좌복과 법요집을 준비한다. 환자들과 다도를 나누며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일도 연 씨의 몫이다.

작은 법당 뒤편에 놓인 작은 의자가 연 씨의 자리다. 의족으로 인해 좌복에 앉지 못하는 연 씨는 이곳에 앉아 법회를 보고 환우들을 만난다. 이 의자를 제외하면 연 씨와 다른 봉사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함께하는 봉사자들조차도 가끔 연 씨가 몸이 불편하단 사실을 잊는다고. 그저 똑같이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도반일 뿐이다.

김명숙 봉사자는 연 씨를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표현한다. 스님이 아닌 재가불자들 두고, 또 다른 재가불자가 존경을 표한다는 것은 생소한 광경이었다.

"네?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요?" "암요. 법왕심 보살님이 몸이 불편하다는 걸 저희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병원 계단도 잘 오르고,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는지 몰라요. 저희가 배려를 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배려를 받는 입장이에요."(웃음)

연 씨는 '봉사자들을 위한 봉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사자들이 입는 분홍색 조끼를 소리 소문 없이 집으로 가져가 세탁하고, 풀을 먹여 다시 가져다둔다.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물도 손수 장을 봐 마련한다.

특히 연 씨가 한 손으로 만든 연꽃은 봉사자들 사이에서 1등 자랑거리다. "이 빨간색도, 저 노란색도 우리 법왕심 보살이 한 손으로 만든 것"이라면서 앞 다퉈 자랑한다.

이정옥 봉사자는 "한 손으로 어떻게 연꽃을 저토록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라면서 "힘든 일이 있다가도 법왕심 보살님을 생각하면 불만이 없어진다. 불편한 몸으로도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 내 삶의 불만도 사라진다"고 웃어보였다.

전상삼 지도법사도 연 씨의 행(行)은 자체만으로도 귀감이 된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환자분들이 법당에 내려와 연 보살님이 열심히 살고 계신 모습을 보면 희망을 얻고 갑니다. 도움을 받기에도 모자랄 분이 남을 위해 헌신하시니, 그야말로 살아있는 부처님이 따로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도반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 일색일까. 연 씨를 보자마자 '연등을 닮았다'는 생각이 든 것만으로도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있었지만, 그의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졌다.

두 다리, 한 팔 잃은 절망 속에서…

연 씨가 병원법당을 처음 찾았을 때는 봉사자가 아닌 환자였다. 유방암 판정을 받고 실의에 빠져있던 중,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이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겪고 두 다리와 한 손을 잃었다. 2008년 당시 경위와 심경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자 연 씨가 입을 열었다. "병원 치료 중에 약물 부작용으로 우울증을 겪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병원 치료 중 사고가 났어요.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때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세한 말은 아꼈지만, 담담한 어조였다. 차마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아물고 그 자리에 새 희망이 움트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터. 그는 무엇으로 다시 웃을 수 있었을까.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이 곁을 지킨 것은 다름 아닌 '불교'였다.

연 씨는 자신의 병실에 찾아왔던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의 모습을 회상하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고 했다. 세상 끝에 내몰린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은 분홍 조끼를 입고 연꽃을 건네는 불자들이었다.

"그들을 보면서 환희를 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나는 그동안 나와 가족들만을 위해 살았구나'란 사실을 순간 깨달으며 퇴원하면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퇴원하는 그를 다시 한 번 발심하게 한 것은 당시 고려대구로병원 법당을 개원하신 지현 스님이었다. "보살님, 저 좀 도와주세요"란 부탁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부탁이 연 씨를 휠체어에서 일어나 목발을 짚고, 마침내 두 발로 걷게 하는 힘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5
문화
허락 금사경 특별전

B6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 긴카쿠지·난젠지

“위로 보면 불행하지만, 아래로 보면 행복”



연명순 씨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고려대구로병원 병원전법단 ‘자비회’ 회원들은 연 씨가 “살아있는 보살”이라며 입모아 칭찬한다.



“남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연명순 씨.

연명순 씨는?

유방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약물 부작용으로 우울증을 앓았다. 이로 인해 불의의 사고까지 당해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었다. 하지만 연 씨는 투병 중 만난 불교호스피스 봉사단의 모습에서 환희를 느끼고 퇴원 후 봉사를 시작한다. 9년 가까이 고려대구로병원과 흑석동 중앙대병원 법당에서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다.



‘연명순 씨’ B1면에서 계속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란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계속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법당 봉사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스님의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나 스스로를 도와라’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 후 연 씨는 독한 약도 끊고 휠체어도 떨쳐버렸다. 대신 의족과 의수를 차고 봉사에 뛰어들었다. 환자들에게 깊이 있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공부에도 매진했다. 쉽지만은 않았지만, 힘에 부칠 때마다 교계 신문과 경전, 〈법공양〉 책자를 더욱 가까이 했다. 스스로를 “기복신앙 신도였다”고 말하는 연 씨가 진정한 불자로 거듭난 것이 바로 이쯤이다.

“어렸을 때부터 친정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긴 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는 부처님오신날이면 연등도 달았고, 자주는 아니었지만 법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기복신앙이었어요. 불교를 ‘공부한다’는 생각은 없었죠. 하지만 봉사하면서부터는 달라졌어요. 주옥같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1번 하기도 힘든 〈법화경〉 사경도 벌써 4번째 완료했다. 사고 전에는 아들의 대학입시 합격을 기원하며 1번 해본 것이 전부지만, 후에는 자신을 위한 사경에 임했다. 오른손잡이였던 그는 성한 왼손으로 사경에 임하며 왼손잡이로의 훈련도 함께했다.

“사고 전까지는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에 힘을 길러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경은 제게 수행과 기도인 동시에 훈련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제는 왼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현재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삶만 열심히 살아간다면 후회도 남지 않습니다.”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연 씨는 지금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표현한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 계속 행복하려고 노력해요.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요. 사소한 일이지만 제게 활력을 줍니다. 제가 행복함으로써 병원법당을 찾는 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라요.”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모습 ‘귀감’

법회 준비부터 공양물 마련 손수
봉사자 옷 세탁까지 솔선수범해
한 손으로 직접 연꽃도 만들어
도반들 “살아있는 부처님” 칭찬

“남 위한 것, 곧 나를 위한 일”

生死 공존하는 병원서 희망 전달
환자들과 차담하며 아픔 공감
타인 위해 과거 상처도 드러내
“아파봤기에 아픔 공감할 수 있어”

타인에 희망주려 내 아픔을 꺼내다

매에게 쫓기던 비둘기를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인도 남방 팔리 자타카의 시위왕 이야기. 시위왕은 “어찌 비둘기의 목숨만 귀히 여기는가. 나 역시 비둘기를 잡아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란 매의 말에 자신의 살점을 기꺼이 내놓았다. 사실 베풂으로 유명했던 시위왕의 본성을 시험하기 위해 불의 신 아그니와 제석천(帝釋天) 인드라가 각각 비둘기와 매로 변했던 것으로, 시위왕은 이들의 찬양을 받으며 목숨을 구했다. 이 설화는 대승불교가 발전하며 ‘보시바라밀’이란 개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다.

누군가를 대가 없이 돕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숭고한 희생’에 박수를 보낸다.

연명순 씨는 진정한 보시행을 위해 무엇을 내던졌을까. 바로 ‘자신의 아픔’이다. 나의 지우고 싶은 상처가 타인의 위안이 되는 것은 분명 씁쓸한 일이지만, 연 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꺼내 보인다. “남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며, 나를 통해 누군가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 없다.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마음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는 게 연 씨의 이유다.

특히 자신과 같은 유방암 환자들을 대할 때는 마음이 더욱 쓰인다. 여성으로서 느끼는 절망과 좌절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몇 해 전, 퉁퉁 부은 눈으로 연 씨의 품에 안기던 미혼의 유방암 환자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미혼의 딸이 유방암이 갑상선까지 전이돼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어느 날 그 부모님이 법당에 내려오셨어요. 저는 좀처럼 병동에 올라가는 일이 없지만, 그때는 그 환자분을 만나기 위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는 모습을 봤는데,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꼭 끌어안으며 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환자 역시 부모님께도 말 못했던 아픔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한참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 환자는 건강을 되찾아 퇴원했다. 문자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병원은 생(生)과 사(死)가 공존하는 곳이잖아요. 그 갈림길에선 환자들이 법당에 내려와 부처님께 기도하고 희망의 빛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돕고 싶습니다.”

자신이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연 씨. 힘든 점은 없냐는 질문에 “위로 보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내려 보면 행복할 일만 있다”는 가르침을 이른다. 불평과 불만, 불안으로 가득한 삶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였다. 연 씨에게서 어떤 어둠도 몰아낼 광명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글=박아름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천년고지 달빛 아래서의 절 수행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⑳ 봉정암 절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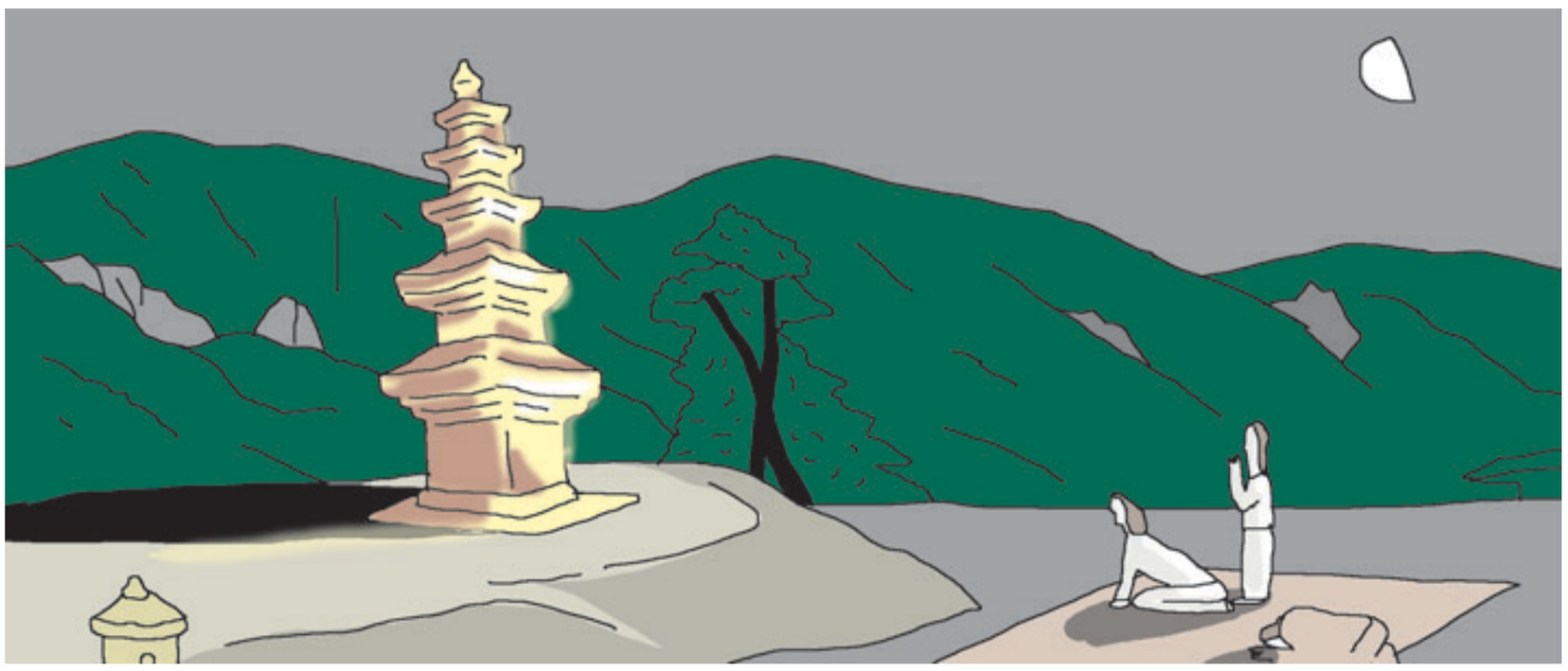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절하는 자세를 꼭 한번 돌아보라

청도 법왕정사에 계신 청견 스님을 만나 뵙고 난 후 절하는 것이 더 즐거워졌다. 스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자세 한 동작 한 동작에 집중하고 천천히 절을 하니 잡념 없이 몰입도 더 잘되고 위의를 갖춘 듯한 느낌마저 든다. 실제로 법왕정사 신도 7~80명이 법당에 모여 108배 하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학들이 우아하게 군무를 하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절을 하고 일어나 입 꼬리를 올리고 웃으면서 시선을 180도 통째로 둔 채 바라보며 털끝만큼도 움직임 없는 상태로 5초 동안 머물라."

절을 하고 일어나 바로 몸을 구부리지 않고 똑바로 선 채 합장하고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고 180도로 펴서 보는 자세는, 뭐랄까 마음이 훨씬 고요해지고 넓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 자세를 익힐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자세나 일을 처리하는 실생활에 있어서도 넓게 보고 통찰하는 것과 연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하루 300배, 길게는 몸이 허락할 때까지 100만 배는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적어도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다보니 나도 모르게 절을 할 때 서두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청견 스님께서 '저는 지금도 하루에 세 시간 절을 합니다' 하실 때, 내가 절을 하는 과정에 온전히 집중하기보다는 300배를 채우는 것에 마음이 더 가 있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횟수보다는 절하는 동안 집중해서 그 시간 자체가 수행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무슨 일을 하던 과정에 정성을 다해 집중할 때 그 일을 즐길 수 있듯, 절수행도 마찬가지다. 횟수에 목표를 두면 의무감이나 중압감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즐길 수 없게 된다. 절하는 동작에 깨어있는 것이 익숙해지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깨어있는 시간도 늘어나겠다 싶다. 수행을 통한 오랜 연습이 현실의 삶에 응용되어지는 것이다. 삶에 실천되어질 때 내가 변화한다.

긴 추석 연휴의 마지막 이틀, 도반 몇 사람과 함께 설악산 봉정암에 올랐다. 다섯 시간 걸은 끝에 올라간 봉정암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주최 측의 말을 빌면 그날 3400명이 와서 묵었다고!), 밤 11시쯤 되어서 사리탑에 올라갔더니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다 가고 스무 명쯤 되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거나 절을 하고 있었다.

절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봉정암행의 백미는 1,700미터 고지의 달빛 아래서 천여 년의 세월을 품은 채 단정히 서 있는 사리탑 아래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나는 봉정암 사리탑을 볼 때마다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느끼며, 그 앞에서 절하는 시간이 정말 좋다. 그 날도 세 시간 동안 조용히 절을 했는데 다른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한 시간에 108배를 했다는 것. 한 시간이면 삼사 백배는 할 시간이지만 천천히 절을 하고 일어나 시선을 180도로 편 채 합장하고 서 있으니 한 시간 동안 108배를 하게 되었다. 천천히 절을 하니까 내면이 더 고요해지고 밝아지는 느낌이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 여기까지 왔는데, 최소한 1080배는 하고 내려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서둘러 절을 했을 텐데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다보니 300배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절을 하고 숙소로 내려가기 전, 뒤에서 절하는 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자세가 천차만별인 것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였다. 내 곁에서 좌선과 절을 번갈아 하던 도반의 자세가 고두례를 할 때 손을 머리 위로 높이 올리는 것 말고는 가장 완벽했다. 남자 분들의 경우 거의 자세가 엉망이었다. 대부분 발을 많이 벌렸고, 엉덩이가 들려있었다. 손가락을 벌린 채 합장하고 합장한 손도의 위치도 각양각색이고 절을 한 후 허리를 쭉 펴지 않은 채 다시 구부리기에 바빴다.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니 산만해보이고 간절함도 덜해 보였다.

1700미터서의 108배 절수행
3400여명 도반이 함께 해
조석간 절수행이 행복 지름길

"불행한 사람은 더 불행해지게 절하고 병에 걸린 사람은 더 빨리 병이 진행되게 절한다. 화병에 걸린 사람은 가슴이 더 답답하고 화가 치밀게, 냉병에 걸린 사람은 순환이 더 안 되어 더 차가운 몸이 되게 ,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더 머리가 복잡해지게, 무릎 관절이 아픈 사람들은 백발백중 무릎을 철저히 고장 내는 절을 한다."

절하는 데 있어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청견 스님의 말씀이다. 청견 스님께서 처음 절수행을 알리면서 3년 안에 절하는 동작을 통일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생각이 났다. 지도자가 절수행할 때 자세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본인부터 자세가 올발라야 따라하는 사람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절에서의 지도자는 스님이다. 굳이 절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절에 오면 최소한 3배는 올리는데, 이때만이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많은 곳에서 기초교리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니, 최소한 그곳만이라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 같다.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 지으면서 절하라

청견 스님께서 절할 때의 자세 중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미소 짓기다. 내 경우 스님께 교정받은 자세 가운데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미소 짓기였는데, 정말 고난도 수행이 아닌가 싶다. 스님께서도 미소 짓는 것이 잘 안돼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수술을 받아볼까도 생각하셨다고 하니, 몹시 어려운 것만은 사실 인 것 같다.

웃어야 온 몸에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까지 유연해진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긴장하기 때문이다. 눈꼬리와 입 꼬리를 귀에 걸고 미소 지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할 때 뭉치고 굳은 근육이 풀리고 막힌 관절 차크라가 열리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입 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고 웃을 때 세토닌이라는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스님은 특히 많이 웃을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웃으면 마흔 가지나 되는 유익한 호르몬이 저절로 나와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웃는 연습을 실천하면 수행자가 저절로 된다는 것이다.

"입꼬리를 올리고 부처님처럼 아름답게 미소 지으며 절하라. 나는 지난 날 웃지 않았던 게 가장 후회스러운데, 지금이라도 웃게 된 것은 부처님의 가피라 여겨진다. 행복 호르몬이 솟고 건강해지고 부처님 가피가 빠르다고 말해주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많다. 완벽한 자세로 절을 해서 감사가 넘치는 대긍정의 자세로 부처님처럼 미소 띤 얼굴로 절할 때 업장이 녹는다."

그래서인지 청견 스님의 미소는 백만 불짜리다. 처음 뵙던 날, 기분 좋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남자의 미소도 이렇게 밝고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다. 그런데 스님뿐만 아니다. 법왕정사에서 절을 지도하고 있는 몇몇 분들의 늘 웃는 모습도 정말 아름답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오는 미소를 보면서 오랜 수행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와 미소가 절수행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일어나서, 자기 전에 몸을 덥게 하고 절하라

청견 스님은 절하기 좋은 시간으로 아침에는 5시에서 7시, 저녁에는 9시에서 10시 30분을 권한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얕게 숨을 쉬며 심장은 약하게 뛰어 혈액, 림프, 기 순환이 잘 안되고 특히 아랫배, 다리, 발, 팔, 손 등에 노폐물과 독소가 쌓여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막힌 곳을 풀고 뚫어주어야 우주의 새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절을 하면 단전 차크라가 열려 막히고 꼬이고 뒤틀린 것들이 풀리면서 노폐물이나 독소, 가스, 나쁜 기운 등이 빠져나간다고 한다.

저녁에 자기 전에 절을 하면 낮 동안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걱정이나 불안 등 부정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절을 해서 상중하 단전 차크라를 열고 자야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성장호르몬이 나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절을 하고 자면 밤새 악몽에 시달린다거나 실컷 잤는데도 피곤하고 생기가 나지 않은 일은 없다고 단언한다.

"절을 하고 땀을 흘리고 샤워한 뒤 반듯이 누어 아름답게 미소 지으며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보라. 저절로 깊은 잠에 빠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확 떠지고 정신이 맑아짐을 체험하게 된다."

청견 스님이 권하는 또 하나의 팁은 옷을 껴입고 목과 손목, 발목을 덥게 하고 절하라는 것이다. 세 곳의 센서를 덮어주면 땀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땀이 진짜 몸속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라고 한다. 옷을 껴입고 손목과 발목, 목 보호대를 하고 따뜻한 곳에서 땀이 잘 나오게 해야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 가스 등 나쁜 기운 등을 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놓고 절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땀을 흘리지 않고 절을 하면 노폐물이 피부와 몸에 꽉 차서 장기를 괴롭혀 얼굴을 새카매진다고 한다.

스님께서 낮에는 참선하고 밤에는 3천배를 하는 등 한창 절을 할 때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옷을 세탁하고 말리는 게 번거롭고 불편해서 땀이 나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 108배를 4분에 하고도 숨이 차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가락, 발가락 마디와 무릎 허리 목 얼굴 등이 검붉어지다가 검어졌고, 급기야 6백만 배 절을 마쳤을 때는 별명이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가 되었다고 한다. 누가 스님이 절하는 모습을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건네주어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성난 도깨비 같은 시커먼 얼굴로 미친 듯이 일어서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닌 공 굴러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절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절수행의 전문가인 스님께서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오늘날과 같은 바른 자세가 만들어진 것이다. 단 한 번의 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수백만 번의 절을 한 끝에 나온 것이다.

"천천히 완벽한 자세로 절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고맙습니다' 를 해보면 저절로 눈빛이 밝아지고 미소가 지어지며 힘이 솟는다. 부처가 되는 것이다."

천만 번의 절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았던 수행자, 청견 스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108배 한번 제대로 올려보시길 바란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 면

임 직 원 일 동

TEL. 02-734-8050

www.lisa.or.kr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0.11~2017.10.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자애롭고 맑은 스승 모습에 저절로 下心"



만화 희찬 스님 시봉이야기

원행 스님 지음
에세이스트사 펴냄
2만원

〈만화 희찬 스님 시봉 이야기〉는 상좌인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이 은사 스님의 행장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자 시도한 내용을 한데 묶은 책이다.

저자는 불교 경전과 염불 소리에 이끌려 약관의 나이에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해 한암 스님, 탄허 스님, 만화 스님의 법통을 이어받아 수행정진하다가 비구 대처 분규, 불교 종단 분규 등으로 10·27 불교 법난과 월정사 분규 사태로 몸과 마음을 크게 다친 수행자이다.

오대산의 큰 선지식인 탄허 스님과 은사 만화 스님의 열반 후 49재를 모신 다음, 제2의 출가지라 할 수 있는 가야산 해인사로 가서 성철스님 문하서 팔만대장경 장주 소임을 맡은 저자는 어느 날 꿈에 탄허 스님의 벼락같은 현몽을 접하고 대전 자광사로 간다. 이후 자광사를 중창불사하고, 다시 월정사로 돌아와 부주지 소임을 겸하며 삼화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을 때, 운명처럼 삼화사 원만보신 노사나철불을 친견하고 복원 완료한다. 그리고 원주 치악산 구룡사 주지로 부임해 원주불교대학을 개설하고, 경찰불자들을 위해 원주경찰서 경승실을 새롭게 장엄하는 등 대중 포교에 힘쓴 저자는 탄허 스님 법어집 출간 날에 구룡사 대웅전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다시 발심해 대웅전 중창 불사를 마치고 월정사 심검당으로 돌아와 수행승의 희비를 회고한다.

저자는 머리말서 "출가를 위해 월정사를 찾았을 때 만화 스님은 지금의 월정사 대웅전 법당을 중창하시느라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인부들과 같이 목도를 메고 나무기둥을 나르는 모습이 흡사 막일꾼처럼 보였지만, 범상치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와 자비불의 현신인 듯 자애롭고 맑은 모습에 저절로 하심하게 됐다"고 첫 만남을 설명했다.

이어 저자는 "은사스님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비구 대처 분규, 불교종단 분규, 월정사 분규, 10.27불교법난 등, 한국불교 현대 100년사와 오대산 불교 100년사서 가장 격동의 시간을 온몸으로 겪고 가셨다. 한국전쟁 당시 오대산내의 모든 사찰이 국군에 의해 불태워질 때 한암 스님을 시봉하며 상원사를 지켜내셨고, 탄허 스님이 화엄경 역경 불사를 하실 때 잿더미만 남은 월정사의 가난한 살림을 도맡아 위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셨다. 오랜 전통의 한국불교에 훌륭한 수행자들이 많지만, 만화 스님처럼 보살 정신과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욕과 헌신으로 족적을 남기신 스님은 많지 않다"고 회고했다.



1975년 월정사 8각9층탑 앞에서 만화스님과 함께.

萬化禪風 일으킨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만화 스님의 인연담, 서간문 등 소개해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선 제 1장 '만화 스님의 출가기' 서 만화 스님의 성장과정과 출가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한다. 제 2장 '전설의 도인 한암 회상' 편에서는 만화 스님이 한암 스님을 시봉한 과정을 세세히 소개한다. 제3장 '파란만장한 오대산의 역사' 와 제 4장 '암흑 속에서 옥을 캐다' 에서는 월정사 100년 역사와 그 뒤안길에서 일어난 어려움도 피력했다. 제 5장 '월정사 적광전 신축 대불사' 는 중창 불사를 통한 월정사의 변화 과정을 조명했고, 제 6장 '먹구름이 달을 가리다' 에서는 탄허 스님과 만화 스님의 열반과 그 이후 이야기를 담았다. 제 7~10장은 원행스님과 만화스님의 인연을 비롯해 만화스님의 친필 서간문, 친필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화 과정서 이름 없이 산화된 이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 불교계에서도 헌신적인 희생과 인욕을 구도로 삼던 만화 스님 같은 분들을 새롭게 조명해야 할 것이다. 모든 존재가치의 평등성 회복이 화엄세계인바, 진즉 그랬어야 했다. 진정한 선은 행선이다. 만화 스님은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일 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실천적 선구자로서 만화선풍(萬化禪風)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중국 불성사상의 기원은 어떠했을까?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지음
법지 편역
운주사 펴냄
3만 3천원

중국불교의 대표적 특징인 중국 불성사상의 기원과 역사적 변천과정, 사상체계를 방대한 원전에 입각해 연구, 중국 불성사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심도 있게 조명한 현대 중국불교계의 기념비적 역작으로 평가된다.

불성론이란 '모든 생명에게는 부처의 성품(佛性)이 있어, 그 불성을 드러내기만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는, 불교의 핵심 이론 가운데 하나이다. 불성론은 카스트제도가 엄존한 인도서 모든 존재의 평등을 드러낸,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사상이었다. 하지만 불성론이 불교사 안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대승불교에 이르러서이며,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구되기 시작했다. 이후 불성론은 중국불교의 모든 종파와 사상에서 기본적인 바탕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들을 꽃피워 중국불교만의 특징을 형성하게 된다.

이 책은 중국불교사에 있어서 불성론의 출현으로 시작해, 중국 불성론의 특징과 중국불교에서의 위치와 작용 등을 심도 있게 논술했다. 중국불교학계의 거장이자 세계적인 불교학자 라이용하이(賴永海) 교수의 저서로, 중국의 불교학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국불교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이다. 또한 학술서로는 드물게 중국에서만도 재발행을 거듭하며 6만 부 이상 꾸준히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하다.

현대 중국철학의 대가로 존중받는 장대년은 "중국 불성론은 중국불학 가운데 불성에 관한 학설을 천명했고, 그 원류와 연변을 상세히 논증했으며, 참고한 자료가 광범위하고 분석이 주도면밀하며, 독창적인 면이 많아 창조성을 갖추고 있다. 중국불교사에 있어 이와 같은, 하나의 전문문제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보기 드물다"고 극찬했다. 중국불교협회 설립에 참여한 저명 불교학자인 곽붕도 "이 책은 아주 풍부한 일차적 원전자료의 기초 위에서 독립적인 사고와 깊은 탐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 통용되는 학설에 연연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따르지도 않았다. 이런 다방면에 걸친 창조적인 안목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고 평였다. 또한 대만의 유명한 서양 철학자이자 불교학자이기도 한 부위훈 역시 "이 책은 …… 그 논증이 세밀할 뿐 아니라 수준 높고 엄격한 학술 논저이다. 불교경론을 넓게 인용하여 설명하고 논증하였으며, 토론의 순서는 논리성이 있고, 문장 또한 아주 시원하면서 뜻을 잘 나타내고 있어 최상의 책이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이 책이 지닌 학술적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중국불교 전개 과정서 '불성론' 의 작용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중국불교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를 '종파불교' 라고 표현하는데, 이 '종파' 가 바로 '불성론' 에 입각하여 형성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불성론' 이 지니는 사상사적인 역할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서론을 제외하고 전체 9장으로 구성된 본서는 불교가 중국에 전래돼 불성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사상사적인 입장서 방대한 원문을 인용하면서 논술한다. 중국불교 초기의 '본무설' 로부터 '법성론' , 그리고 '본유설' 과 '시유설' , 그 과정서 제시된 '돈오론' , 나아가 천태의 '성구설' 과 화엄의 '성기설' 등의 전개과정을 상세히 논증한 점만으로도 본서가 지니는 가치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책의 또 다른 가치는 바로 선사상 발전에 있어서 '유정유성' 과 '무정유성' 의 불성론에 입각해 논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中 불성사상 전체 모습 심도 있게 조명 불성론 특징과 위치와 작용 등 논술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제시라고 하겠다. 또한 선종에서는 천태의 '성구설' 과 화엄의 '성기설' 로 종합된 양대 불성론의 입장을 지양하고 제 3의 입장, 즉 명심견성, 즉심즉불이라는 새로운 불성론의 기치를 세웠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돈오에 입각한 조사선이 전개됐음을 밝힌다. 더불어 선종의 발전과정서, 특히 우두선서 '무정유성' 의 불성론에 입각한 선사상이 제시됐으며, 이것이 서서히 중국선의 본류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후기 조사선에서는 이른바 불성의 물성화를 이루어 불성을 간시궐 등으로 표현하며, 가불매조의 선풍이 전개됨을 논한다. 이러한 통찰은 연구의 참신성을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저자는 또한 유심정토와 서방정토, 난행도와 이행도 등을 불성론의 관점으로 논하고 있어, 가히 중국불교사 전체에 나타나는, 불성론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제를 다루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책은 중국불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중국 불성론' 을 방대한 원전 사료에 입각하여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서이다.

김주일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허락 作 '법화경 변상도'. 허락 작가는 금사경 계승을 서원하고, 현재까지 다수의 변상도를 비롯해 화엄경 절첩본 전81권 2번 사성, 법화경 전7권 7번 사성, 지장경 전2권 5회 사성, 금강경 약 5,200여자 60여회 사성 등을 마쳤다. 이번 전시에서는 허락 작가의 작품인생을 총망라해 선보인다.

화엄경 금자장경 100m 이르는 병풍으로…

현담 허락 특별전, 10월 26일부터 한국문화정품관갤러리서

금자장경 매료돼 오랜 연구해
순금분 · 접착제 황금비율 터득
독창적 기법 작품 총망라 전시
大作 화엄경 병풍 1틀도 공개

인쇄술이 출현하기 전,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널리 성행했던 사경(寫經). 대량인쇄술이 발달한 후에는 수행 정진의 한 방편으로 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행적을 찬탄하고 공덕을 기리며 그 길을 따르겠다는 서원으로 부처님 말씀을 옮겨 적는 사경을 행했다.

이러한 사경에 환희심과 전율을 느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가 있다. 현담 허락 작가다. 그는 우연히 통도사 소장 보물 제757호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제46권을 보고 한 순간에 금자장경에 매료됐다고 한다. 이후 금사경에 큰 뜻을 세우고 오랜 연구를 진행, 순금분과 접착제의 황금비율을 터득했다.

이후 허락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 문화재청장상 등 수상할 뿐 아니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대장경천년세계축제 등에 초대 출품할 만큼 금사경을 통해 널리 이름을 떨쳐왔다.

허락 작가만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제작된 금사경(金寫經) 작품들이 서울 운니동 한국문화정품관갤러리에서 10월 25일~11월 8일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화엄경 절첩본 전81권 2번 사성, 법화경 전7권 7번 사성, 지장경 전2권 5회 사성, 금강경 약 5,200여 자 60여회 사성 등 허락 작가의 작품을 총망라해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허락 작가는 매일 아침 6시 합장으로 시작해 하루 1,500여 자를 사경한다고 한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데 6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오탈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정신을 집중시키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모든 작품은 99% 순금분으로 제작되며,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일정한 크기와 간격을 유지해 놀라움을 자아낼 정도다. 이러한 노고 끝에 불교 4대 경전을 금자장경으로 모두 복원하고, 다수의 변상도 작품도 결실을 맺었다.



허락 작가는 현재 100m에 달하는 '대방광불화엄경 금자장경 병풍' 12틀을 제작 중이다. 사진은 현재까지 완성된 1틀로,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다.

그는 "먹과 달리 금가루는 종이에 두툼하게 묻어야 발색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접착 효과가 떨어져 쉽게 가루가 되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랜 실험과 연구 끝에 금가루와 접착제 비율을 비롯한 제작기법을 터득했다"면서 "특수 제작된 한지에 포수를 해 물에 적셔도 손상되지 않고 불에 닿지만 않으면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락 작가는 여태까지 화엄경(전81권 약 60만자)을 절첩본으로 2번 사성했는데, 현재 절첩본이 아닌 12틀 병풍으로 제작 중이다. 이름하여 '대방광불화엄경 금자장경 병풍' 대불사다. 약 100m에 이르는 12틀 병풍에 변상도 81점과 60만자의 사경을 담는 대작이다. 현재까지 완성된 1틀은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다.

한국문화정품관갤러리 측은 "예로부터 사경은 뛰어난 공덕이 있어 재앙을 물리치고 수복을 얻어 나아가 성불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행법이었다"면서 "화엄경 금자장경 병풍 조성에 함께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5일 오프닝 리셉션에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조교 김묘선(일본 시코쿠 천년고찰 대일사 주지)의 공연이 펼쳐진다. 박아름 기자

부처의 마음을 보다, 불일미술관 관심展

10월 28일까지 1 · 2부로 나뉘어 진행
정소영 작가 개인전 '전통의 맥을 잇다' 16~25일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은 아트플랫폼 주인공과 함께 2017 산사미술제 '관심전-일가일불(一家一佛), 우리 집 부처님'을 개최한다. 지난해 '달을 담다'를 주제로 처음 실시된 산사미술제는 사찰공간을 활용해 불교미술 작품을 전시, 문화 포교의 새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장이다.

이번 주제 '관심(觀心)'은 2가지 뜻으로 함축된다. 1번째는 '자기 마음을 본다'는 의미의 중요한 수행 가르침이다. 불교미술에서도 '관심'의 의미를 높게 평가해 작가들이 자신의 수행력을 작품에 쏟아 붓는 것으로 의미를 새긴다. 2번째는 '관심 좀 가져달라'는 뜻이다. 불일미술관은 "불모, 금어, 화승의 이름으로 그림 · 조각 · 글씨로 불법을 전하고 그 창작 행위가 수행이 되는 불교미술 작가들이 있다. 이들의 노력과 이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고 훌륭한 작품들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그림 못그리는 스님들'이란 부제로 지운 · 진관 · 비공 · 선진 스님이 참여한다. 20일까지. 2부는 '그림 잘 그리는 작가들'이란 부제로 황규철 · 달분 · 서칠교 · 박준수 · 이재윤 작가의 전시가 이어진다. 28일까지.



서칠교 작가의 '행복한 포대화상', 25x15x15cm, 청동,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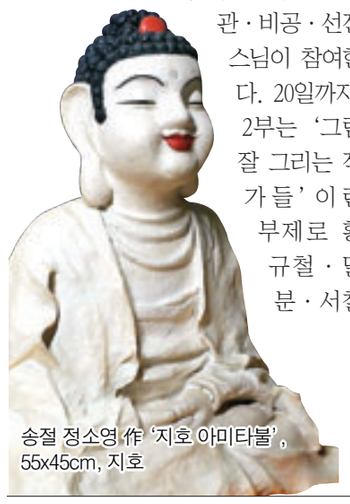
한편 불일미술관은 지호공예가인 송절 정소영 작가의 개인전 '전통의 맥을 잇다'를 10월 16~25일 연다.

조선시대까지 면면히 이어오던 한지는 1945년 해방 후 붕괴기를 맞이한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한정적 수요, 원료의 부족, 생산성 등으로 인해 전통 방식에서 쉽게 싸고 만드는 방식으로 바뀐 것. 특히 한지로 만든 생활용품인 지호공예는 유물이 매우 한정적이고, 역사서의 기록이나 연구 책자도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진다.

정소영 작가는 이처럼 맥이 끊어진 것과 다름없는 지호공예를 이어오고 있다. 정 작가는 1989년 천안시공예품경진대회에 '종이 함지방'을 출품해 대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전통공예 맥을 잇다-지호공예〉가 있다.

정 작가는 "소박하게 솜씨를 냈던 시골 아낙네들의 지혜가 전통공예라는 이름으로 예술로서 아름다움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이번 전시가 한지공예와 분리된 전통 지호공예의 명성을 찾아 한국 전통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2)733-5322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송절 정소영 作 '지호 아미타불', 55x45cm, 지호

청소년 범죄 급증, 해법은 '불교적 인성교육'

'미래사회 인성교육과 불교 역할' 주제 BBS아카데미 방송

최근 청소년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올바른 청소년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불교계와 정계 · 학계가 모여 '미래사회 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지난달 '미래사회 인성교육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BBS아카데미'를 통해 3주에 걸쳐 방송한다.

이 세미나는 지난 9월 16일 조계종과 노웅래 · 정갑윤 국회의원,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것이다.

1주차(11일)에는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의 가치와 성과'에 대해 방송했으며, 향후 2주차(18일)에는 '국가의 인성교육 정책방향과 불교적 인성교육의 상호 관계'에 대해, 3주차(25일)에는 '불교적 관점에서 본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에 대해 각각 방영된다.

BBS불교방송은 "전문가들은 그동안 입시 위주 교육과 무한경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청소년들에게 타인과 소통하고 더불어 사는 것을 중시하는 불교 교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면서 "이번 방송을 통해 불교의 치유와 상생, 불교적 인성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BBS아카데미는 BBS불교방송의 대표 불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방송된다. 재방송은 목요일 자정,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일요일 오전 4시 방송된다. 박아름 기자

로터스갤러리, 김희상 초대전 '사람꽃'

10월 30일까지… 희로애락 담아낸 도조인물상 전시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는 조각가 김희상 초대전 '사람꽃'을 10월 30일까지 개최한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생생한 표정으로 담아낸 도조인물상인 '사람꽃' 연작은 전통적 도상의 형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불교미술의 도법상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나한상(羅漢像)은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발현한 자유분방한 모습들로 표현됐다.

김희상 조각가는 호남대 미술학과 조소전공을 졸업해 '숲으로부터'(서울 인사갤러리, 2001), '일백인' 개인전(서울 코엑스, 2010), '사람꽃-희로애락'(광주 롯데갤러리, 2014) 등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현 광주민족미술인협의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아름 기자



김희상 조각가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생생한 표정으로 담아낸 도조인물상인 '사람꽃' 연작은 전통적 도상의 형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출판기념법회 및 선서화전
수안스님 선화집『행복주머니』



우리시대 선서화의 대가로 잘 알려진 수안스님의 선화집『행복주머니』의 출판기념법회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부산 코모도호텔 2층 희락정에서 봉행됩니다. 이에 대덕 스님들과 여러 인연 있는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귀한 걸음 하시어 수안스님의 선화집 발행을 축하해 주시고 선서화의 세계를 음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인연들께서는 아름다운 법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불기 2561년 10월 아름다운 날
수안스님 선서화전 준비위원회 합장

파란풍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252면 | 17,000원

일시_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_ 부산 코모도호텔 희락정 (2층)
선서화전 기간_ 2017년 11월 1일(수) ~ 11월 5일(일)
문의_ 통도사 문수원 수안스님 011.9398.0025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051.244.0263 / 010.3564.3725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호암산 호압사
사부대중일동
153-032 서울시 금천구 시흥 2동 234
TEL/ 02-803-4779 FAX/ 02-891-0770 Email : hoapsa@hanmail.net



‘철학의 길’ 남북에 조성된 아름다운 古刹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⑲ 긴카쿠지 · 난젠지



긴카쿠지 경내 전망대서 바라본 사찰의 모습. 히가시야마 문화의 정점을 느낄 수 있다.

교토 벚꽃길 유명한 ‘철학의 길’
북쪽엔 ‘銀閣寺’, 남쪽엔 ‘南禪寺’
은각사 히가시야마 문화의 정점
名園많은 남선사 일대 정원 같아



난젠지의 삼문.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긴카쿠지(銀閣寺)

은각사.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면 긴카쿠지(銀閣寺). 긴카쿠지라고 하면 지난번에 소개한 킨카쿠지가 짝으로 떠오른다. 그렇다고 이 두 사찰이 동시대에 지어진 것은 아니다. 킨카쿠지는 15세기 전반 무로마치 막부 3대 장군에 의하여, 긴카쿠지는 15세기 후반 8대 장군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다. 또 킨카쿠지는 사찰 전각에 금박이 입혀져 있어 금빛이 나지만, 긴카쿠지 전각에는 은박이 입혀 있지 않다.

긴카쿠지는 지난 3월 ‘꽃 길, 꽃 사찰’ 특집 때 소개한 적이 있던 교토 동쪽 벚꽃으로 유명한 ‘데쓰가쿠노 미치(哲學の道)’ 북쪽 기점 가까이에 있다. 임제종 쇼코쿠지(相國寺)파에 속하는 선종 사찰이고, 정식 명칭이 긴카쿠지가 아니라 도잔지쇼지(東山慈照寺)라고 한다. ‘지쇼’는 8대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 1436-90)의 법호에서 유래되었다. 1482년에 요시마사가 자신의 은거처로 건립을 시작한 별장인 히가시야마전(東山殿)이 긴카쿠지의 시작이다.

3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손자인 요시마사는 단 8세라는 어린 나이로 8대 장군이 되었다. 막부의 전성기를 이룬 요시미쓰 시절과 달리 이 때는 쓰치잇키(土一揆)라는 농민의 민란이 자주 일어나 막부의 권세가 많이 약해졌다. 가뭄과 역병 등으로 죽은 사람도 많아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요시마사는 장군 자리를 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후계자였다. 후계자 문제를 계기로 막부의 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큰 전란이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교토를 불바다로 바꾼 1467년 오닌의 난(應仁の亂)이다. 요시마사는 1473년에서야 장군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1477년 마침내 오닌의 난이 종결되자 젊었을 때부터 갖고 싶었던 별장 짓기를 시작했다. 그것이 위에서 말한 히가시야마전이다. 요시마사가 1490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이 무소국사(夢窓國師)를 권청 개산으로 한 선종 사찰, 바로 오늘날의 도잔 지쇼지 · 긴카쿠지가 되었다.

요시마사는 정치적으로도 성과가 없었고 정치가로서의 평가도 좋지 않았지만, 문화인으로서는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별장에서 중국 회화, 도자기, 칠기 등으로 실내를 꾸며 자노유(茶の湯, 일본의 茶道)나 렌가(連歌, 일본의 전통적인 시 형식의 하나)를 즐겼다.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찾아내는 눈도 높았다. 요시마사는 신분에 관계없이 실력이 있는 사람을 중용하였으며 그런 사람들을 정원 조영, 장벽화 그리기 등에 임용했다.

요시마사 시대에 꽃피운 문화를 히가시야마 문화라고 부른다. 자노유, 렌가, 화도(꽃꽂이), 노오(能, 전통 가무극), 정원 등 다양한 예술이 발달한 히가시야마 문화는 일본 전통 문화의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의 생활 문화까지 잇닿아 있다. 헤이안 시대의 궁중 문화, 요시미쓰 시대의 기타야마 문화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간소하면서도 세련되고 기품이 있는 히가시야마 문화에는 일본 문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와비’, ‘사비’가 가득하다.

현존하는 창건 당시의 건물이 긴카쿠와 도구도(東求堂)이고 이는 모두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요시마사가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한 긴카쿠는 원래 관음전(觀音殿)이라고 불렸다. 이끼로 유명한 사이호지(西芳寺)의 유리전(瑠璃殿)과 요시미쓰의 킨카쿠를 모델로 지어졌다고 전하는 긴카쿠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층에는 작은 지장보살좌상, 그 주위에 더 작은 천체지장보살입상이 안치되어 있고, 선종 불전 양식인 2층에는 관세음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그런데 긴카쿠라고 하면 원래 은박이 입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2007년에 실시된 엑스선 조사 결과, 은박이 입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은박을 입힐 계획이었다가 요시마사 죽음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원래 긴카쿠라는 명칭은 에도 시대의 자료에서 나온 것이지 창건 당시의 이름이 아니다. 아마도 긴카쿠는 에도 시대에 킨카쿠에 대비해 만들어진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외국 사람이 은빛나는 건물을 기대하고 가봤더니 은박이 없어서 실망했다고 했지만 히가시야마 문화의 특징으로 보면 은박을 입힐 계획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은박이 없어도 긴카쿠는 반짝반짝 빛을 내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난젠지(南禪寺)

난젠지(南禪寺)는 철학의 길 남쪽 기점에서 더 남쪽에 위치한다. 철학의 길 주변에 있는 사찰 중에서도 긴카쿠지, 난젠지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난젠지 창건은 긴카쿠지보다 200년 전인 13세기 가마쿠라 시대이다. 지금 난젠지 자리에는 원래 가메야마(龜山) 천황(1249~1305)이 지은 이궁이 있었다. 이궁에서는 밤마다 나타나는 요괴에 시달렸다. 그 때 법황(法皇, 출가한 태상황)이 되었던 가메야마가 고승에게 부탁해서 요괴를 없애려고 기도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도후쿠지(東福寺)의 스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그 후 가메야마 법황이 선사에게 깊이 귀의하여 1291년 이궁을 선종 사찰로 바꾸었다. 처음엔 사찰 이름이 젠린젠지(禪林禪寺)였다가 중국에서 일본에 전한 선종이 남종선(南宗禪)이어서 난젠지(南禪寺)로 바뀌었다.

도후쿠지, 덴류지를 소개했을 때 언급한 교토 5산은 교토에 있는 임제종 5대 사찰이다. 14세기 후반에 3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사찰 등급을 매길 때 난젠지를 오산지상(五山之上)이라는 5대 사찰보다 더 지위 높은 별격의 지위로 선정했다. 난젠지는 높은 사격에 어울리는 걸출한 선승들을 역대 주지로 모시고 그 사세를 자랑했다. 안타깝게도 3번에 걸친 대화재로 가람이 전소되어 창건 당시의 전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현존하는 건물은 에도 시대 초기 이후에 재건된 것이다. 그래도 국보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이나 장벽화 등이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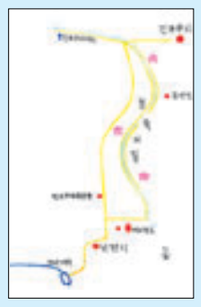
난젠지에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주로 삼문(三門), 방장(方丈), 난젠인(南禪院)이다. 천장에 운룡도가 그려져 있는 법당은 못 들어가고 밖에서 안을 구경한다. 지온인(知恩院), 닌나지(仁和寺)와 함께 ‘교토 3대문’으로 꼽히는 난젠지 삼문은 높이 약 22미터, 2층 누각으로 훌륭한 문이다.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난젠지 삼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아들인 히데요리(秀　)를 중심으로 한 도요토미가(豊臣家)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1628년에 건립된 것이다. 일반 방문객은 2층에 올라갈 수 있다. 2층 내부에는 보관석가여래상을 중심으로 16나한상 등이 안치되어 있고 천장과 벽에 화려한 봉황, 비천상이 그려져 있다. 2층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밖에서 내부를 구경할 수 있다. 2층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아주 좋다.

난젠지 방장은 1611년에 고쇼(御所)의 건물을 하사받았다고 전하는 대방장(大方丈)과 후시미성(伏見城)의 건물을 옮겼다고 전하는 소방장(小方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모두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방장 하이라이트는 가노파(狩野派) 일문에 의하여 그려진 장려한 장벽화다. 가노파란 요시마사를 모신 가노 마사노부(狩野正信)를 시조로 하는 무가(武家)를 모셔 번영한 화가 일문이다. 특히 유명한 것은 소방장에 있는 군호도(群虎圖)다.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수입한 호피를 참고로 해서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줄무늬가 아니라 반점이 있는 표범을 닮은 것도 그려져 있어 해설원에게 물어보았더니 암컷 호랑이라고 한다. 또 방장에 있는 정원은 품격이 있는 가레산스이 정원으로 알려져 있다.

방장 남쪽에 있는 난젠인에는 창건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원이 있다. 오닌의 난 이후 오랫동안 황폐되었으나 에도 시대에 재건되었다. 난젠지 주변에 있는 탑두 사원도 명원(名園)이 많아 난젠지 일대 전체가 정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글 · 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긴카쿠지 난젠지 답사 안내



긴카쿠지와 난젠지 쪽에 대중교통으로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간다. 난젠지는 지하철 동서선(東西線) 게아게(蹴上)역에서도 가까워 나는 게아게역을 자주 이용한다.

난젠지에서 가람과 난젠인 사이에 있는 수로각(水路閣)도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 수로각은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수도교(水道橋)인데 비와호(琵琶湖) 물을 교토로 끌어들이는 비와호 소수(琵琶湖疎水)의 수로가 벽돌 아치 위에 흘러 지나가고 있다. 위에 올라가면 빠르게 흐르는 물길을 바라볼 수 있다. 아치 주변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있다. 특히 단풍과 아치의 경치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이 사진을 찍으러 가을이면 찾는 곳 가운데 하나다.

난젠지 경내를 나와 북쪽으로 걸어가면 오른쪽에 에이칸도(永觀堂)라는 단풍으로 유명한 사찰이 있다. 난젠지, 긴카쿠지 일대는 에이칸도, 센오쿠하쿠코칸(泉屋博古館), 호넨인(法然院) 등 볼거리가 많다.

긴카쿠와 함께 창건 당시의 건물로 알려진 도구도(東求堂)는 매년 봄과 가을만 공개된다. 올해는 11월 30일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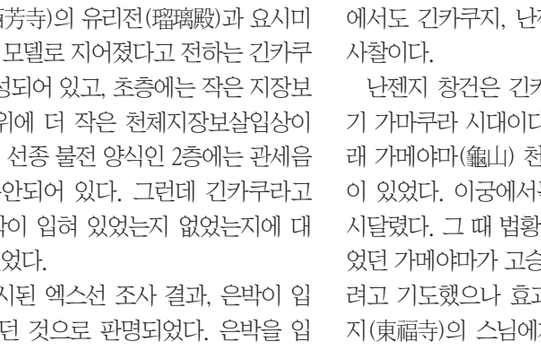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원 불사

대 원 불 교
(청동불상 조성업체)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리해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돌멩이

나도 저렇게 왔다. 우리 모두 저렇게 왔다. 어느 날 돌멩이 위에 돌멩이 하나 얹히듯, 그렇게 왔다.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가리라. 견디지 못할 것이 오는 날, 돌멩이 위에서 돌멩이 하나 굴러 떨어지듯이 우리 모두 그렇게 가리라.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⑳ 부처님의 신통력

부처님이 뿌린 물방울은 연못이 되고

발가벗고 수행을 하는 나형외도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외발로 서서 견디는 고행외도가 있었습니다. 이들 여섯 외도의 스승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는 부처와 동등하다" 하며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홀로 높으신 부처님을 두고, 외도들이 하는 말은 어처구니없는 잘못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사위국 들판에 자리잡고 계실 때에 하늘의 대범천왕과 사천왕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사위국 빔비사라왕과 교삼미의 우다야나왕과 여러 나라 왕이 신하를 거느리고 와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 외에 외도를 따르는 무리도 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중이 모였으니 많은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대범천왕이 먼저 일어나 대중에게 자리 하나씩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 두어라. 대중이 앉을 자리를 내가 마련하리라."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동 · 남 · 서 · 북을 휘둘러보시자 부처님 눈길이 닿는 곳마다 반듯하고 폭신한 자리가 빈틈없이 나타났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칠보로 된 사자자리가 나타났는데, 벌써 부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모든 대중이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만들어주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에 부처님은 "내 손으로 생명을 보여주리라"하시며 막대기 하나를 땅에 꽂으셨습니다.

막대기가 살아나 뿌리와 줄기, 가지가 쭉쭉 뻗더니 잎이 무성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튿날에도 똑같은 대중이 부처님 앞에 모였습니다. 부처님은 어제의 그 나무에 향기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빛깔이 고운 향기의 꽃잎이 떨어져 대중의 무릎에 쌓였습니다.

부처님 설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 설법을 듣고 모든 대중의 법눈이 밝아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나무에 과일이 열렸습니다. 빛깔이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과일은 하룻만에 모두 익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처님 제자와 모든 대중이 기쁜 마음으로 과일을 주워 맛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향기 있는 과일은 처음이다." 세상 어떤 과일보다 맛과 향기가 뛰어난 과일이었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의 설법이 있었습니다. 대중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넷째 날이었습니다. 어느 시주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물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이 물그릇을 기울여 물을 몇 방울 뿌리셨습니다. 그 물방울이 점점 불어나고 커지더니 커다란 호수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호수에 우발라, 분다리 등 여러 가지 연꽃이 피었습니다. 목소리가 고운 온갖 새가 나타나고, 오리 · 원앙 · 남생이와 온갖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 신비한 광경에 서 대중이 더 많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림 · 강병호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연꽃과 온갖 새와 물고기가 어우러진 호수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내가 생기더니 냇물이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냇가에는 온갖 꽃이 피고, 맑은 물이 부처님의 법문 소리를 내며 흘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대중들이 한없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설법을 들으러 모여든 사람의 모습을 똑같게 하셨습니다. 세상사람, 하늘사람이 똑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게 한 것입니다. 똑같이 부처님을 따르는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중들이 더욱 많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일곱째 날이 됐습니다. 부처님은 허공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차츰, 부처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설법하는 목소리만 허공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덟 번째 날에는 외도를 믿는 자들이 나섰습니다. "부처와 동등하다는 나형외도, 고행외도, 불을 섬기는 수행자들은 나서시오! 부처님은 놀라운 신통력을 보이고 있소. 막대기를 살려 과일이 열게 하고, 물방울 하나로 호수를 만들어 강이 흐르게 했소. 당신들도 여기 와서 한 가지 신통력이라도 보이시오!"

그러나, 부처님 신통력에 기가 죽은 외도 수행자들은 숨어버리고 없었습니다. 외도 수행자들이 소리도 없이 숨어버리자 외도의 교단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통쾌한 일이었습니다.

외도의 교단이 무너졌지만 부처님은 얼마동안 신통력을 더 보여주셨습니다. 아흐레째의 날, 부처님은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수미산 동쪽 승신주 세계, 남쪽 염부제 세계, 수미산 서쪽 우화주 세계, 북쪽 울단월 세계에 부처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부처님은 수미산 둘레 4주세계 사람들에게 모두 기쁨을 안겨 주셨습니다.

열흘 째 되는 날 부처님은 하늘나라 대범천에 올라 설법으로 대범천 사람들 눈을 밝히셨습니다. 열하루 째 날에는 부처님이 몸을 나누어 여러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 부처님이 다시 하나의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허공을 걸어다니고, 물 위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마치 땅 위를 걷듯이 여기저기를 다니셨습니다. 손을 뻗어 해와 달을 만지셨습니다.

"부처님이 해와 달을 만지셨다!" 부처님을 따르는 대중은 놀라움을 어쩔 줄 몰라 떠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열나흘 째까지 신통력을 보여주며 대중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분률(四分律) 51권〉

칠곡에 핀 우담바라



귀의 삼보 하옵고

금오산, 지리산 자락에서 출가 사문의 길을 걸어온 소납 도오입니다.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원력으로 천불사 가람 수행 중, 앞마당 소나무에서 '삼천 년에 한 번씩 꽃이 핀다'는 '우담바라꽃'을 친견하게 되어, 이는 금륜 명왕이 나타난다는 경탄스러운 마음에서 스님, 사부대중에게 회향, 공덕 자비 보살행의 기회로 대 마음으로 알려드리오니 친견하시고 소원 성취이루시길 바립니다.

경북 칠곡군 북삼읍 태평1길 71(구, 북삼읍 보손리 823-12)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천 불 사

주지 도오 합장 (010-6769-9627)

찾아오시는 길

경북고속도로 남김천IC에서 5분거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D



로터스 양초 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연꽃 향초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shcandle.com



연꽃향 국내산

연꽃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연꽃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강화(사자발)약쑥향 국내산

강화도에서 심고 가꾸어 엄선한 사자발 약쑥으로 만든 완벽한 조합이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당이 전하는 은은한 강화 사자발 약쑥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넘칠 것입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향나무향 국내산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조연향당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가야기획에서 만드는 도서출판 하이의 불교서적은 꼭 챙겨두어야 할, 전문성을 가진 책입니다!”

작명록은 (한국 278성씨 , 성씨별로 완벽하게 작명한 이름 6,065,726개를 음양, 음오행,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수리오행에 모두 맞게 지은 이름을 사주에 맞게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新사주연구
사주 공부에 “꼭” 필요한책 | 저자:지안스님



프랭크 영어 이름
*작명록(上 · 下) 구입시 무료 증정합니다.



작명록(上 · 下)
완벽하게 좋은 이름짓는 책 | 저자:지안스님



불교 의식 시리즈(1~5)
불교 의식에 “꼭” 필요한 책 | 저자:지안스님

가야기획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삼송테크노밸리 B동 433호 | 전화 02)379-2400 | 팩스 02)379-2401 | gaya2400@nate.com